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공모

1

신작의
발견

2024.1 - 2024.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시작의 발견



ARKOSELECTION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창작산실은 예술의 동시대성과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우수 신작을
발굴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 공연제작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공연예술창작산실은 기초 공연예술분야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의 특성을 살린 단계별 지원을 통해
우수한 신작을 발굴하는 <올해의신작>, 동시대성·다양성을 갖춘 작품과
창작자 발굴을 위한 <대본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ONTENTS

연극

언덕의 바리 프로젝트 내친김에 012

아들에게(부제:미옥 앨리스 현) 극단 미인 016

TEDDY DADDY RUN (테디 대디 런) 마방진 020

화전 창작공동체 아르케 024

이상한 나라의, 사라 창작집단 상상두목 028

연극 분야 비평 032

창작뮤지컬

내 친구 워렌버핏 (주)컬쳐홀릭 042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 공연제작소 작작 046

여기, 피화당 주식회사 옹컴퍼니 050

이솝이야기 주식회사 컴인컴퍼니 054

창작뮤지컬 분야 비평 058

무용

애니멀 PDPC 064

Yaras 정훈목 JUMOK Dance Theater 068

a Dark room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 072

The Line of Obsession 정형일 Ballet Creative 076

반가: 만인의 사유지(思惟地) 순헌무용단 080

Where is the Rabbit? 허 프로젝트 084

무용 분야 비평 088

음악

민요 첼로 (MINYO CELLO) 임이환 098

시선 si, Sonne! 주준영 102

크로스 콘체르토 프로젝트 오예승 106

UN/Readable Sound 가재발(이진원) 110

In & Around C 무지카 엑스 마키나 114

음악 분야 비평 118

창작오페라

3과 2분의 1 A 울산문수오페라단 128

이상의 날개 대전오페라단 132

창작오페라 분야 비평 136

전통예술

만중삭만 – 잊혀진 숨들의 기억 리폴리예술연구소 142

물의 놀이 groove& 146

남성창극 살로메 김시화 150

밤쩌: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Part. 2 불세출 154

무한수렴(無限收斂)의 멀티버스 – Multiverse of Infinite Convergence – 허윤정 158

전통예술 분야 비평 162

장르별 역대 선정작 168

연극





프로젝트 내친김에

언덕의 바리

일정	2024년 1월 6일(토) ~ 14일(일)
공연시간	**화 ~ 금** 오후 8시 / **토, 일** 오후 4시 / **월**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티켓	전석 40,000원
출연진	김문희, 김정아, 최태용, 강세웅, 이래경, 이은미, 송주희, 류혜린, 이재호, 임주현
작가	고연옥
연출	김 정
드라마터그	이홍이
무대디자인	남경식
조명디자인	신동선
분장	백지영
의상	김우성
소품	김혜지
작곡	채석진
사운드디자인	지미세르
안무	이재영
기획홍보	박서우
프로듀서	조하나

‘여자폭탄범 안경신’의 삶에서 발견한 동시대적 드라마와 바리데기 신화의 전복

<언덕의 바리>는 사진 한 장 발견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 ‘여자폭탄범 안경신’의 이야기다. 이승과 저승이 단절된 세계,

즉 현실과 다름없는 세계 속의 무력한 주인공 이야기는 신화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무력함 안에 경외심이 들 정도로 커다란 힘이 만져지는 모순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세상의 수많은 신화가 인간 삶의 모순과 양면성을 묘사하듯, ‘바리’와 ‘경신’의 삶도 그렇게 흘러간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생명은 초 끝에 매달린 불꽃처럼 위태롭게 살아남다가 한순간에 꺼진다.

돌이킬 수도 없이, 미련 없이. 자연의 섭리 그대로다.
이로써 이 이야기는 신화가 될 수 있다.

프로젝트 내친김에

[프로젝트 내친김에]는 2014년 결성된 젊은 연극인 집단입니다.

[프로젝트 내친김에]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자 모인 배우, 연출, 작가, 스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친김에]는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무대언어를 찾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내친김에]는 진실하고 집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보고 싶은 모든 작업자들과 함께 합니다.

[프로젝트 내친김에]는 연극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강렬한 체험의 순간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인터뷰

고연옥 작가, 김 정 연출

작품의 창작 배경은?

일제강점기는 우리의 현재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사이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을 동시대 인물로 만나게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중에서도 여성독립운동가들에게 집중했다. 임시정부 탄생의 기폭제가 된 3.1 만세운동은 유관순 등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여학생들이 주축이 되었고, 이후 그들은 참혹한 고문을 받아 죽었거나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 또한 그로부터 여성이 중심이 된 다양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단지 조선해방이라는 목표 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정신의 발아이기도 했다. 다양한 매체들이 독립운동가의 영웅적 면모를 다뤘지만 어쩌면 그들은 시대와 불화한 인물이었으며 지금 이 시대에도 점점 지워지는 존재가 되고 있다. 우리와 다를 바 없었던 보통의 인물이 그런 특별한 삶을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을 현재적 인물로 다시 만날 때 지금 이 시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바리데기 신화와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엮은 구성이 눈에 띈다. 어떤 부분에서 바리데기와 안경신의 연결고리를 찾게 되었는지?

우리나라 대표 신화라 할 수 있는 바리데기 신화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저승까지 다녀올 수 있는 강력한 샤먼 바리와 딸과 아내 역할에 충실한 봉건적 여성상 바리가 공존한다. 바리데기 신화 중 가장 이질적인 전승본인 <함흥본>의 경우 어미를 구하기 위한 저승여행에는 성공하지만 바리데기가 허무하게 죽는 결말. 저승여행과 여성 샤먼이라는 공통분모로 인해 바리데기와 비교되는 만주족의 니샨 샤먼도 결국 시어머니에게 죽임을 당한다. 강력한 샤먼임에도 전통적 여성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안경신 역시 현대판 바리데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경신은 3.1 운동 이후 강력한 무장독립운동을 주장하며 스스로 상해로 가서 광복군 총영 대원이 된다. 그리고 만삭의 몸으로 평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지만 출산을 하느라 검거되었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조사를 받고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 후 7년의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아이는 영양실조 등으로 장님이 되었고, 경신은 아이와 함께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다. 보이는 세상과 사라진 세상을 연결하는 의미에서 경신의 아이 역시 또 다른 바리가 아닐까 생각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 중에 안경신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안경신의 경우 단편적인 기록은 있지만,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았다. 안경신에게 주목했던 것은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장렬하게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지 독립운동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제강점기는 지금 이 시대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현대사에도 민주주의 운동에 투신했던 수많은 운동가들이 있다. 그중에는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입신양명한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운동 자체가 삶의 전부가 되어 여전히 시대와 불화하여 살아가기도 한다.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성공하지 못한 삶으로 보일지라도 역사는 소수의 영웅이 아닌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분투와 실패를 통해 현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라 믿는다.

꿈과 현실을 오가는 여정을 표현하기 위한 '언덕의 바리' 만의 무대 구성이 있다면?

관객이 있어야할 자리에 언덕이 있고 무대가 있어야할 자리에 관객이 있다. 우리는 관객과 함께 우리의 공간을 공유하며 저 너머의 갈대밭을 바라보게 된다. 배우는 관객과 아주 가까이 존재하며 그들의 눈 앞에서 침을 튀기고 몸을 떨며 끊임 없이 뒹군다. 숨을 곳도, 기댈 곳도 하나 없는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 그 징그러운 현실속에 관객과 우리는 함께 존재 하며 문득 떠나온 언덕을 그리워 한다. 경신을 불러들인 징그러운 현실 그 자체인 우리가 눈 앞에서 몸부림 치는 그녀를 다시 언덕으로 올려보내는 과정 자체가 이 연극이 되길 바란다.

작품을 통해 '안경신'이 관객들로 하여금 어떠한 인물로 기억에 남기를 바라는지?

바리데기가 샤먼을 넘어 저승을 관장하는 무조신이 되었다고 믿는 건 왜일까? 우리는 저 높은 곳의 존재보다 우리 곁에서 함께 고통받고 분투하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안경신은 3.1 운동에서 죽어간 동료들의 죽음을 차마 잊지 못하고 무장투쟁에 가담하여 인간으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으며 살아내었다. 바리데기가 그러하듯 안경신 역시 역사 속에서 숨져간 불행한 망자들 곁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 상상해 본다. 저승이 그러하듯 그들의 세계에는 비탄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다. 평화와 정의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해맑은 믿음이 있다. 우리가 그들의 세계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세계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안경신이 지금도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갈 만큼 가까이 있다고 느낄 수 있길 바란다.





극단 미인

아들에게(부제:미옥 앨리스 현)

일정	2024년 1월 13일(토) ~ 21일(일)	**영상**	한지원
공연시간	**화 ~ 금** 오후 7시 30분 / **토, 일** 오후 3시 / **월** 공연 없음	**사운드디자인**	베일리홍
		음향감독	김종현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분장**	장경숙
관람연령	12세 이상	**의상**	김미나
티켓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움직임**	이재영
작가	구두리	**접근성매니저**	김민솔
연출	김수희	**무대감독**	김혜지
프로듀서	이정은	**조연출**	박문수
드라마터그	전강희	**기획**	코르코르디움
무대	조경훈	**연주**	성유경
조명	박그림		

출연진 강해진, 김선경, 김유민, 김은석, 남권아, 린다전, 박종현, 심완준, 이승헌, 장석환, 장시현, 정나진, 조주현, 홍은정



신념과 맹목 사이 스스로를 완성해나갔던 미옥, 앨리스 현을 위한 인터뷰

<아들에게 (부제:미옥, 앨리스 현)>는 1903년 하와이에서 태어나고 중국, 일본에서 공부했으며 중국, 러시아, 미국을 오가며 독립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현미옥 (앨리스 현)의 이야기이다. 공산주의자였기에 결국 남한과 미국에서는 설 곳이 없었고 북한에서는 미국 간첩혐의로 죽었다.

이 작품은 끝없이 자신의 의지로 수많은 길을 떠났던 현미옥을 박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뷰를 하면서 박기자의 눈을 통해 미옥의 삶을 들여다 보면서 둘이 서로를 인정하고 넓게는 세대, 성별 등 다양한 이들과의 이해와 공존을 생각해본다.

극단 미인

극단 미인은 2007년 <어쩌자고 서로 만나 알게 되었는가>라는 창단공연을 시작으로 꾸준한 창작극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관계를 통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하는 작업 외에도 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정치적 불합리 앞에서 연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면서 연극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런 동시대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작업 외에도 예술체험과 인문학적 가치체험의 중요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아버지들> <말뫼의 눈물> <어디가세요 복구씨> <당신의 손> 등이 있다.

인터뷰

연출 김수희

극 중 등장 인물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공간의 전환을 한정적인 무대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표현했나요?

한 장 안에만 대, 여섯 장소로 이동하는지라 연도와 장소를 영상으로 표기해 이동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다만 타의가 아닌 스스로 각성을 통한 이동은 무대에서 연주되는 드럼 소리에 따라 회전무대 안에 설치한 레일 위를 뛰면서 미친듯이 뛰는 심장과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작은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옥의 한계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극 중 영상이나 입체 음향을 활용하는 등 참신한 시도가 돋보입니다. 이들을 활용하기 위해 고민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영상이 무대그림을 위한 배경이 아니라 미옥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적 보았을 태평양의 넓은 바다를 모티브로 원대한 꿈을 꾸는 모습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영상으로 표현하였고 그 꿈이 좌절돼 어디론가로 다시 쫓겨가게 될 때는 물속으로 잠기는 영상을 이용해 미옥의 참담한 기분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같은 공간이 아닌 곳에서의 대화라든가 같은 시대가 아닌데 소통하는 부분은 입체 음향을 이용해 거리감이나 SF적 공간 해석이 가능하도록 연출하였습니다.

제목을 <아들에게>로 선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초고는 <미옥, 앨리스 현>이었습니다. 1903년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얻은 1호로 이후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현미옥이란 사람에 매료돼, 공부하며 일대기 형식으로 희곡을 썼습니다. 초고 낭독회를 가진 후 하와이로 직접 답사를 다녀오며 자연스럽게 아들 웰링턴의 비극적인 삶에 더 깊이 다가가게 되었고 현미옥은 그런 아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길 원했고 이상을 쫓아 월북한 전문직의 여성이었지만 가정과 사랑에 있어서는 늘 서툴렀고 실수투성이였던 그녀가 자신을 향변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을까 생각하며 <아들에게>라고 고쳐 짓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현미옥(앨리스 현)은 실존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극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조사한 후 희곡을 쓰기 시작했지만 아무래도 실존 인물이다보니 미진한 공부로 역사왜곡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작가적 상상이 어디까지 가능할까 저 역시도 퍼뜩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분명 존재하나 기록되지 않은 주변인들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하는 고민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신경 쓴 부분은 훌륭한 조력자 남성들이 많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시대를 읽고 작품을 봐주시길 희망하며 수정의 방향을 잡아나갔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현미옥과 웰링턴이 관객들로 하여금 어떤 인물로 기억되길 바라나요?

자신이 믿었던 이상을 향해 죽음도 불사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의 삶은 기록되거나 삭제되는 두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지워진 사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념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옥과 웰링턴은 신념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끝이 불행이었어도 그 정신만큼은 아름답게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스스로 국가를 선택하고 자신이 믿는 이념을 따르며 새로운 이상세계를 건설하고자 했던 사람들로 남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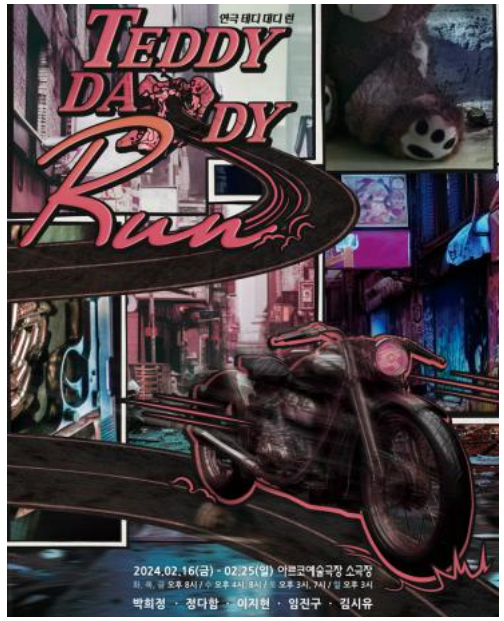




마방진

TEDDY DADDY RUN (테디 대디 런)

일정	2024년 2월 16일(금) ~ 25일(일)
공연시간	**화, 목, 금** 오후 8시 / **수** 오후 4시, 8시 / **토** 오후 3시, 7시 / **일** 오후 3시 / **월** 공연 없음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관람연령	만 15세 이상
티켓	전석 40,000원
프로듀서	고강민
작가	이세희
연출	서정완
무대·소품디자인	노주연
조명디자인	박준범
피지컬 크리에이터	지서현
음악	While asleep [박신애]
영상디자인	송정은
의상디자인	신은혜
분장디자인	장혜진
무대감독	이재은
조연출	박서현
출연진	박희정, 정다함, 이지현, 임진구, 김시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세상에 태어난 비밀 때문에

열여섯 한국 아이 윤서는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아빠를 만나기 위해 마닐라로 떠난다. 그곳에서 열다섯 코피노 아이 니나를 조우하고 아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채 아빠를 찾아 나선 두 아이는 필리핀 곳곳을 누비며 아빠의 실체를 알아간다. 무책임한 어른들 아래 빛나는 아이들의 단단하고 값진 유대를 에너지 있게 풀어낸다.

마방진

극공작소 마방진은 2005년 작가 겸 연출가인 고선웅이 창단하였습니다. 마방진은 숫자의 합이 사방으로 일치하는 정교한 진법을 말합니다. 배우의 감성과 편차에 상관없이 그 전체의 합은 늘 같아야 한다고 믿는 신념을 담았습니다.

예술성과 상업성의 기로에서 그 명분과 해답을 찾아 연극의 본연으로 회귀한다면 이 시대를 함께하는 극단으로써 충분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뷰

작가 이세희, 연출 서정완

작품을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인 '마닐라 로드 액션극'이란 무엇인가요?

필리핀 마닐라 곳곳을 누비며 펼쳐지는 로드트립, 액션 연극입니다.

작품이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작품을 만드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 썼나요?

(이세희 작가)

취재일 것 같습니다. 열흘간 마닐라의 여러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과 보고 느낀 것을 대본에 담았습니다.

접점이 전혀 없던 두 주인공의 연대가 인상적입니다. 대비되는 각각의 캐릭터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세희 작가, 서정완 연출)

윤서의 자리에서, 다시 또 니나의 자리에서 상상하며 글을 썼습니다. 극 초반에 이들이 살았던 세계에 집중하면 전혀 다른, 대비되는 인물들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둘은 다르지만 닮았습니다. 관객분들도 윤서와 니나 본연의 모습 그대로에 집중하여, 두 아이의 엇갈린 그러나 닮아 있는 이야기를 각각의 시선을 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격씬, 공간 이동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TEDDY DADDY RUN(테디 대디 런)>만의 기법이 있다면?

(서정완 연출)

<TEDDY DADDY RUN(테디 대디 런)>은 연극에서 보기 힘든 추격씬이 존재하고, 마닐라 곳곳을 이동하는 '로드 씨어터'입니다. 로드 씨어터는 많은 장소를 어떠한 효과로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 작품의 성격이 결정되는데, 이번<TEDDY DADDY RUN(테디 대디 런)>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네온사인 아트. 곳곳에 배치된 네온사인을 통해 밤낮없이 마닐라를 누비는 윤서와 니나의 여정을 미장센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둘째, 피지컬 씨어터. 피지컬 크리에이티브 지서휜 감독과 함께 배우들의 피지컬 씨어터적인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긴박감과 절실함 그리고 추격과 도망의 미장센을 만들어 관객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예정입니다.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코피노'가 어떻게 인식되기를 바라는지?

(*코피노 :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이르는 말)

(이세희 작가) '코피노'를 소재 또는 주제로 시작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렸을 적, 마닐라를 궁금해하던 때가 있었고, 어른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닿은 세계라고 해야 할까요. 마닐라에 있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글을 쓰는지, 예술은 왜 필요한지. 답은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아도 분명 거기 존재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누군가 살아 있고, 자라났고. 혹은 버텨냈거나 그리워했음을.
누군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완 연출) 우리가 바라보는 '코피노'라는 그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문제보다 '코피노'라는 사회적 문제를 만든 사람들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시선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 시선이 바뀌었을 때야 비로소 '코피노'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윤서와 니나가 테디와 대디를 찾아 떠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창작공동체 아르케

화전

일정	2024년 2월 17일(토) ~ 25일(일)
공연시간	**화 ~금** 오후 7시 30분 / **토, 일** 오후 3시 / **월** 공연 없음 *2/17(토) 첫 공연 오후 7시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티켓	R석 60,000원 / S석 40,000원
작가 · 연출	김승철
음악	공양제
조명	김성구
무대	박상봉
움직임	양은숙
제작지원	박재이
기획	한가을
홍보디자인·그림	지나다
사진	조상백
무대감독	신희존
조연출	김영경
조연출보	김성미, 이정아
조명오퍼	이승민
출연진	신현종, 조은경, 이경성, 이해성, 김구택, 김성일, 이형주, 신 욱, 홍상용, 이홍재, 한동훈, 민정오, 송현섭, 박정인, 김보라, 김태양, 박현민, 이해온, 윤슬기, 경 미, 김강민, 정영재, 양재범, 성종원
연주	공양제, 이연우, 정다정, 박재이, 이 색, 정가흘, 허유진

“산에 붙어살믄 산을 닮어야지. 산이 우덜을 받어주잖어.”

때는 1398년 초 늦겨울.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고려의 유신들이 집단으로 은거하던 두문동이 잿더미가 되고 난 이듬해…

강원도 정선 땅 서운산의 깊은 골짜기, 열댓 채의 너와집이 옹기종기 터를 잡은 화전민 부락의 민초들은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기고 있다.

마른 벼락이 유난을 떨던 어느 밤, 한겨울을 나기 위해 부락민들이 마을 공동 곳간에 꾸역꾸역 모아놓은 귀한 양식이 도난 당한다. 이건 아무리 봐도 산짐승이 아닌 사람의 소행…!



이틀 뒤, 곳간에 쳐놓은 덫에 한 사내가 걸리고 잔뜩 화가 난 부락민들이 사내에게 그간 도둑맞은 곡식의 용처를 캐묻는다. 그때, 저 어두운 숲 쪽에서 거지꼴을 한 사내들이 한 무리 나타나 부락민들의 곡식은 자신들이 전부 먹어 치웠다고 실토한다.

귀한 곡식을 훔쳐간 것은 괘씸하나 한겨울에 그들을 산속으로 내칠 수 없던 부락민들은 이 외지인들을 마을에 들이기로 결정한다.
이로써 정선 서운산 화전민들과 의문의 사내들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는데…!

창작공동체 아르케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

시간이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는 만물의 정수!

아르케(Arkhe)는 그리스어로 ‘최초’라는 의미이며, ‘만물의 근원,본질’을 뜻한다. 인간 존재의 아르케는? 부조리한 사회 현상들의 아르케는? 창조행위의 아르케는? 놀라운 자연현상과 우주질서의 아르케는?

이러한 본질적 물음에 대한 연극적 사유를 무대화 하고자 뜻을 같이하는 배우와 스태프들이 모여 창작공동체 아르케를 창단하였다.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고민, 거기에서 나타나는 의문들에 대한 집요한 파헤침이 창작공동체 아르케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다.

인터뷰

작 · 연출 김승철

코로나19로 인해 작품을 아쉽게 마무리했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한 '화전' 이 가지는 작품의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처음 '화전' 의 제작을 함께 시작한 대부분의 배우와 스태프가 이번 공연까지 함께 합니다. 작품을 준비한 누적된 시간들이 제작진 전체의 앙상블을 견고하게 다져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극 '화전'의 관람 포인트를 꼽는다면?

새로운 형식적 시도가 흥미로울 것입니다. 입체파 화가들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을 무대에 구현하는 작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시청각적 이미지를 만들어볼 것입니다.

작품이 '정선아라리'라는 전통음악을 중심 소재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우연히 '정선아라리'의 유래에 얽힌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흥미가 생겨 좀 더 공부를 하다가 대본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백여 년 전 이야기지만 동시대 우리 공동체의 부조리한 현상들이 비추어 보였습니다.

국악이 소재임에도 국악기와 클래식 악기, 전자 악기를 모두 혼용하는 점이 독특한데, 이런 악기 편성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공연 형식상 시대적 배경을 사실적으로 무대에 구현하는 작품이 아닙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시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악기의 편성도 작품의 형식적 의도를 고려하여 구성해보았습니다.

'아라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라리'를 변주하면서 가장 세심하게 신경 썼던 부분이 있다면?

앞서 설명한 대로 시대적 배경의 고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해석한 공연 형식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정선아라리'도 공연 형식에 어우러지도록 다양하게 변주될 것입니다.
형식과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창작집단 상상두목

이상한 나라의, 사라

일정 2024년 2월 23일(금) ~ 3월 3일(일)

공연시간 **화 ~ 금** 오후 7시 30분 / **토** 오후 3시, 7시 / **일** 오후 3시 / **월** 공연 없음
*3/1(금) 오후 3시, 7시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관람연령 만 12세 이상 관람가
※우울감에 대한 직접적 묘사가 있으니 해당 요소에 민감한 관객 여러분께서는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티켓 전석 40,000원

작가 원인진

연출 최치언

무대 손호성

조명 김성구

음악 김동욱

사운드 강하늘

분장 이동민

움직임 양은숙

영상디자인 류윤희

영상 최성림

소품 신은경

접근성 감수 이청

사진 윤헌태

프로듀서 손신형

기획홍보 유은지, 한솔

무대감독 임지성

조연출 강보경, 박혜령

티켓매니지먼트 공기

출연진 박세인, 원인진, 김란희, 김덕환, 이정진

낙인을 견디는 사람 – 세상의 모든 사라에게 이 작품을 드립니다

엄마의 조현병 확진과 함께 찾아온 고통의 나날.
세상의 시선과 수군거림, 손가락질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사라.
혼수상태와도 같은 잠.
사라는 이상한 나라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사라는 고백한다.

"이 글은 무덤에서 파헤친 기억들이고 지옥에서 건져 올린 문장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부디 쉼표가 되길. 신에게도, 당신에게도."

창작집단 상상두목

창작집단 상상두목은 '좋은 텍스트에서 좋은 공연이 나온다'는 신념 아래 2012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좋은 공연을 위해 관객들과 호흡하며 더 좋은 텍스트를 창작 발굴하여 '시도'와 '재시도'의 연극 정신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극과 함께 다양한 공연 예술 장르 간의 융복합을 시도하며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연극 스타일을 구축해나가고자 합니다.

인터뷰

작가 원인진

어디에서 작품 창작의 영감을 얻으셨나요?

작품의 주인공인 '사라'라는 이름은 <4.48 사이코시스>를 쓴 영국의 극작가 사라 케인(Sarah Kane)에서 왔습니다. 1999년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생전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았던 젊은 예술가 사라 케인은 위대한 작가입니다. 사라 케인이 남긴 작품과 문장들은 제가 희곡을 쓰게 만들어요. 마갈리 무젤(Magali Mougel)은 프랑스 사람이고 여성이고 극작가입니다. < 쉬지 스토르크> 를 집필했는데요. 작품은 현대 여성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관습적 문제를 과감하게 드러내요. 제가 조현병과 여성이라는 화두에 관해 고민할 때 이 희곡을 만났고 작가의 문제의식이 제게 글을 써 내려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무대 구성에서 가장 특징적인 시도를 소개해주신다면 무엇입니까?

연극<이상한 나라의, 사라>에서 가장 특징적인 무대 요소는 바로 배우(코러스)와 무대(원형 무대)입니다. 코러스는 무대와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작품의 서사와 은유·상징을 무대언어로 극대화합니다. 사라의 심연-마음-근원을 상징하는 원형 무대는 다양한 이미지와 활자로 채워지는데요. 배우들은 역할을 소화할 뿐 아니라 내레이션처럼 극 중 상황과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무대 위의 논문과 신문자료 등을 해설해요. 개인의 이야기가 다수의 소통 공간인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구현함에 있어 코러스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이 정신 질환자인 엄마가 아닌 그의 딸 '사라'입니다. '사라'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의도는 무엇인가요?

조현병에 대한 글을 쓰자 했을 때, 두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병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싶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연극을 통해 일종의 치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치유의 대상은 조현병 환자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를 바라보는 시민들과 사회였습니다. 조현병 환자와 가장 밀착되어 있는 타인은 바로 가족입니다. '사라'의 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가 타인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 주기를, 이겨낼 지혜를 모아주기를, 같이 올면서 성장해 주기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현대 사회와 정신 질환은 분리할 수 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정신 질환 중에서도 특별히 '조현병'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와 정신 질환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어요. 제 주변에도 조현병 환자가 있습니다. 인구 100명 중 한 명이 지닌 질환이 조현병이라는 통계가 있고, 전철 한 칸 수용인원이 160명이라면 전철 한 칸에 1명 이상은 조현병 증상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병 자체에 대해 올바른 지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환자들에게 가지는 혐오와 낙인은 도를 넘습니다. '어쨌든'이라는 말로 범죄자 취급하기도 하고요. 치료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관심 가졌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통해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길 기대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작품 한 편을 통해 고착화된 사회 인식이 변화되길 기대하는 건 욕심 같아요. 다만, 다양한 정신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법과 제도 그리고 기관들에 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들을 같이 응원해 주시고, 그러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시면 숨지 말고 목소리 내주시고, 정신 질환에 관심을 갖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을 통해 정신 질환뿐 아니라 차별받는 모든 것에 관심 갖는 순간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창작산실의 딜레마

김일송(공연 칼럼니스트, 이안재 대표)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 부문에는 총 5편이 선정되었었다.

공연일 순으로, '프로젝트 내친김에'의 <언덕의 바리>, '극단 미인'의 <아들에게(부제: 미옥, 앨리스 현)>, '극공작소 마방진'의 <TEDDY DADDY RUN>(이하 '테디 대디 런'), '창작공동체 아르케'의 <화전(火田)>, 마지막으로 '창작집단 상상두목'의 <이상한 나라의, 사라>가 새해 벽두 무대에 올라 관객을 맞았다.









선택과 집중, 다양한 소재

지난해 선정 편수는 최근 2년의 편수(6편)에 비해 1편 적은 셈이다. 어쩌면 이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단체별 지원금을 최대한 삭감하지 않고, 최대한 완성도를 높여 제작에 임해달라는 심사위원의 주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원심의 총평에서 이러한 짐작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신작 제작 지원사업으로서의 안정적인 제작환경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한다는 본연의 사업 목적을 들어 창작자(창작단체)의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 작품 완성도를 위한 총예산 계획을 삭감 없이 최대한 존중"하고자 최대한 예산을 보전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에서는 나중에 조금 더 부연하기로 하겠다.

규모별로는 중·대극장 작품을 셋, 중·소극장 작품을 둘 선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무대화 과정에서 중·대극장에 선정된 한 작품이 개축무대를 사용하면서 소규모 관객을 맞게 되었다. (<언덕의 바리>는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되었으나, 무대 위에 객석을 올려 회당 120명 정도의 객석을 운영했다.) 작품의 소재로 분류하면, 역사적 사건을 차용한 작품이 세 편, 그리고 당대 사회적 문제를 다룬 작품이 두 편이었다. <화전>은 조선 초 고려 유신과 화전민을 주인공으로 하고, <언덕의 바리>와 <아들에게>는 일제강점기 활약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안경신과 앨리스 현을 주인공으로 하였다. <TEDDY DADDY RUN>은 한국인과 필리피노 사이의 혼혈인 코피노를,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사라>는 정신질환(조현병)이 있는 어머니를 둔 소녀를 주인공으로 하였다.

사회적 주제, 무엇보다 여성

주제와 관련해 지난해 선정 작품들은 모두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독립운동, 인종 차별, 장애에 대한 편견 등.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사실 늘 이어져 온 경향이다. 창작산실에서, 특히 연극 분야에서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소환하거나 당대의 사회적 문제를 다룬 작품이 줄을 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올해 선정 작품들이 예년의 선정 작품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듯 보인다. 물론, 공적 지원금을, 그것도 적지 않은 상당히 큰 액수의 지원금이 사사로운 신변잡기를 다룬 작품에 흘러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난해 선정 작품 다섯 편 중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을 다룬 작품이 두 편이라는 점이 흥미로운 대목인데, 그보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 다섯 작품 중 네 작품의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마을 촌장과 문신 전오륜 등 남성이 주요 인물이긴 하나) 대체로 여러 인물이 비등한 비중으로 등장하는 <화전>을 제외하고, <언덕의 바리>, <아들에게>>, <테디 대디 런>, <이상한 나라의, 사라> 모두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다. 최근 오육 년 창작산실에 여성 서사 작품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성 서사 작품이 대부분인 건, 올해가 처음이다. 아마도 이러한 경향이 한동안은 지속할 듯하다.

사전제작, 향후 유통은

한편 제작 과정과 관련해 올해 선정 작품 중 두 편이 눈에 들어온다. '극단 미인'의 <아들에게>와 '창작공동체 아르케'의 <화전>은 지난 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작품이다. 두 단체는 2019년 중장기 창작지원 단체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3년간 지원을 받았다. 해당 작품들은 이때 개발되어 낭독공연까지 마쳤던 작품이다. 3년간 착실하게 사전제작 과정을 밟았던 점이 어쩌면 선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 작품의 완성도를 가늠할 때 사전 진척도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023년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 분야의 총 지원금은 8억으로 단체별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테디 대디 런> 2억 원, <아들에게> 1억 8천4백만 원, <화전> 1억 7천9백만 원, <언덕의 바리> 1억 3천만 원,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사라> 7천 2백만 원. 심사위원들은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단체에서 신청한 예산을 대체로 보전해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심사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도 표했다. 심의 총평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지원 제작된 작품이 재공연이 어렵고 일회적 창작 지원에 머물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게 됩니다."

창작산실은 예술의 동시대성과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우수 신작을 발굴을 취지로 한다. 더해 여기에 공표되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발굴된 신작이 단체의 레퍼토리로 연계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높은 제작비가 재공연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작 제작비보다는 덜하(겠)지만, 재공연 시에도 유사한 수준의 제작비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레퍼토리화보다 일회성 창작 지원을 지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신작 제작비를 낮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읽는다면 오독이다. 요는 우수 작품의 레퍼토리화를 위한 지원금이 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내 공연계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세상의 편견에 마주할 용기를 주는 다섯 편의 신작들

<언덕의 바리 | 아들에게 | 테디 대디 런 | 화전 | 이상한 나라의, 사라>

박정의(연극연출가)

2023년 창작산실 올해의신작(연극)에서 보여준 몇 가지 공통점을 중심으로 관람평을 작성해본다.

여성, 나레이션, 영상, 배우(신체) 움직임, 사실적이기보다 주제 전달을 위한 이미지 무대가 공통적인 특징으로 다가왔다. 그 외, 조명, 음악, 의상 등 다양한 무대 언어, 즉 연출이 많았던, 아니 풍부했던 그래서 드라마 자체보다 무대 연출적인 볼거리를 많이 선사한 공연이었다. 연출인 나로서는 무척 즐거운 관극의 시간이었고, 매니아들에게도 좋은 경험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머리가 아닌 가슴을 건드려 줄 드라마를 기대했던 관객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을지 모르겠다.

다섯 작품에서 네 작품의 주인공이 여성이다. 그 중 2작품은 일제와 해방기를 배경으로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운 두 명의 여성, 그리고 다른 두 작품의 주인공은,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이다. 역시 여성이며 동시에 청소년이다. 남은 한 작품, 화전은 엇갈린 세 사람, 두 남성과 한 여성의 사랑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두 집단의 공존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었다.

작품은 공통적으로 작품 속 인물들이 찾던, 아니 만들고 싶었던 세상이 무엇인지 그 세상을 찾기 위해, 아니 만들기 위해 어떤 신화를 만들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나레이션

무엇보다, 다섯 작품 모두 나레이션을 통해 극 전개에 필요한 배경 설명을 효과적으로 처리했다. 다만 모두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언덕의 바리, 아들에게를 제외한 세 작품은 인물에 공감하며 극을 따라가기 보다는 메시지를 전달 받는 느낌이어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배경 설명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쫓다보니 편안하게 인물에 몰입할 수 없었던 것인지, 평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메시지를 찾으려고 지나치게 긴장을 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한번 더 편하게 공연을 볼 수 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영상

대극장 무대의 삼면에 커다란 벽을 세운 '아들에게'의 무대와 영상은 매우 세련되고 멋졌다. 극의 느낌을 시각적 언어로 발전시켰다. 이상한 나라의 사라 역시 영상을 단순히 기능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 언어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테디 대디 런의 영상은 극적 분위기를 상승시키고는 있지만 언어화 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전반적으로 영상의 활용이 단순한 기능적 설명만이 아닌 작품의 느낌과 주제를 전달하는 새로운 무대 언어로 자리 잡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움직임

배우들이 뛰고 이동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기에 용이하도록 무대의 중앙 공간을 비우는 선택이 눈에 띈다. 신체 언어를 통해 심리를 전달하고 무대의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있었다. 언덕의 바리에서 보여준 다양한 움직임과 에너지의 변화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작가의 언어가 대사라고 하면 배우의 언어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배우가 작가의 언어를 단순 재현하는 것 외에 자신의 신체를 활용해 만들어내는 움직임의 언어로 무대의 언어는 더욱 풍성해졌다. 다만 움직임이 대사와 충돌하거나 전달을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아들에게 역시 편안하면서도 템포감 있는 움직임이 대사와 잘 조화되어 인물의 심리를 증폭시켰다. 무엇보다 한 인물의 일대기를 보여줘야 하는 긴 이야기를 빈 무대와 간결한 동선을 활용해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했다. 화전의 경우 배우의 시선 각(정면 응시와 마주 봄)과 정지와 움직임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극적 긴장감을 증폭하고자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상한 나라의 사라에서 주 배우와 코러스의 움직임, 그리고 테디 데디 런의 움직임이 극의 진행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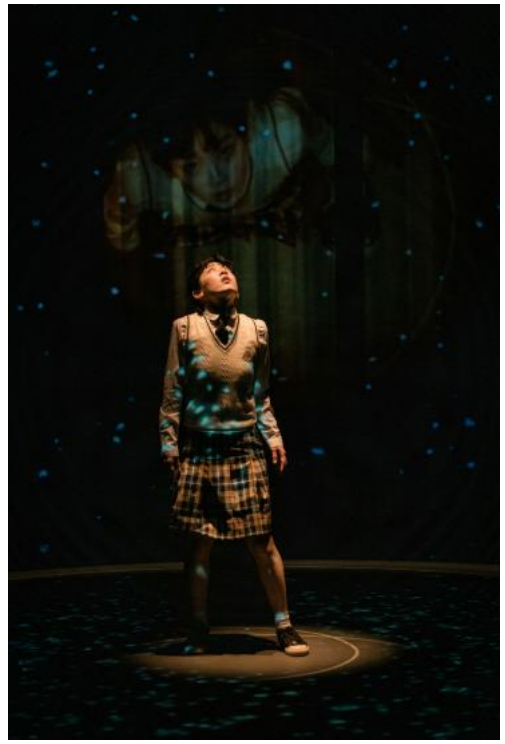


동시대성

작품 속 인물들은 세상의 편견과 폭력을 마주하고 있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다섯 작품 모두, 특히 3작품이 과거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음에도 작품을 통해 던져지는 질문은 모두 '지금', '여기'의 가장 첨예한 고민들이었다.

'이상한 나라의, 사라'는 조현병이라는 정신 질환을 이해하기 보다는 환자의 딸, 청소년인 사라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폭력을 내면의 폭력으로 키우지 않고 세상과 화해하는 또는 용서하는? 아니 이해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로 다가와 여운을 남겼다.

2023 창작산실 올해의신작들은 거대한 세계가 한 작은 인물과 어떤 관계를 주고받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의롭지 못한 세계가 개인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작품 속 인물들은 그들을 둘러싼 세상의 편견과 폭력을 피하지 않고 맞서 길을 찾는 인물들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웅이 아닌, 엄청난 삶의 무게를 국가나 사회의 도움 없이 힘겹게 견뎌야 하는 무력한 개인이다. 각자의 시대를 살아가며 끊임없이 크고 작은 파장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즉 전설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편견에 마주할 용기를 주고 있다.







창작뮤지컬



(주)컬쳐홀릭

내 친구 워렌버핏

일정	2024년 1월 21일(일) ~ 2월 18일(일)	**영상**	한지원
공연시간	**화 ~ 일** 오전 11시, 오후 2시 / **월** 공연 없음 *1/27(토), 2/3(토)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2/10(토)~11(일) 공연 없음	**조명**	장원섭
		음향	윤경민, 장태순
		의상	임경미
장소	종로 아이들극장	**분장**	임영희
티켓	전석 60,000원	**출연진**	김유성, 강산하, 김민수, 김종년, 김봄나리, 이혜인
프로듀서	진영섭		
작가	김정민		
작곡	성찬경		
연출	김명훈		
안무	김종우		
무대	정숙향		



NEW 경제교육 뮤지컬의 탄생, 우리 아이 금융 문맹 탈출의 첫걸음!

어린이만화 베스트셀러 <who?세계 인물 워런 버핏>편이
뮤지컬로 재탄생!

워렌 버핏은 숫자에 관심 많은 평범한 소년에서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
배우는 우리 아이 경제 교육!

올바른 소비와 경제 마인드, 성공과 행복의 가치를 재미있게
배우는 새로운 경제교육 뮤지컬!

㈜컬쳐홀릭

㈜컬쳐홀릭은 단순히 하나의 공연을 보여주기보다는
문화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선보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즐거움과 감동뿐만 아니라, 시대를 한발 앞서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IP를 확보하기 위해 실험정신을 가진 신진문화예술계
인재들의 자유로운 창작공간을 지향합니다. 상업적인 논리보다는
창작자와 관객 모두 영감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프로듀서 진영섭

작품 창작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지나면서 전 세계는 초유의 경제 불황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경제활동의 의미와 돈이 돌아가는 원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돈은 왜 벌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돈을 번 이후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주제 중에 금융, 경제를 핵심 주제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경제. 금융. 아이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알아야 할 이 사회의 필수 개념입니다. 돈의 흐름을 통해 이 사회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곤 하는데, 경제의 근본적인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어 아이들이 건전한 소비와 계획성 있는 지출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워간다면 경제 교육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의 시각에서 금융이라는 키워드를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작품을 제작하면서 가장 신경썼던 부분이 있다면?

돈에 대한 개념을 미취학 아동과 초등 저학년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장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난제였습니다. 또한 워렌버핏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한국의 문화와 맞지 않는 요소들이 있어 우리나라 배경에 맞게 각색하고, 무대 위 배우들과 객석의 아이들이 서로 소통할 방법들을 찾기 위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작품을 만들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극 중에서 워렌 버핏과 친구 토니 보일이 팝콘을 파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이왕이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제작팀에서 매일 팝콘을 튀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팝콘을 튀길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게 쉽지 않았고, 하나하나 직접 포장해야 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으면 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왜 필요한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어떤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지 등에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서 돈의 가치와 행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연제작소 작작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

일정	2024년 1월 27일(토) ~ 2월 25일(일)
공연시간	**화, 목, 금** 오후 7시 30분 / **수** 오후 3시, 7시 30분 / **토, 일** 오후 3시, 7시 / **월** 공연 없음
장소	CKL스테이지
관람연령	만 15세 이상
티켓	전석 66,000원
극작·연출·기획	조윤지
작곡	김승민
기획	홍지원
음악감독	강하님
안무	최성대
무대디자인	송지인
조명디자인	박원광
음향디자인	김주한
영상디자인	도예린
의상디자인	김지영
분장디자인	김보인
출연진	이수정, 이휘종, 남경주, 김수정, 신진경, 문지수, 이민규, 전성혜, 장두환

'너의 고통을, 너의 병을 인정한다. 키키'

주인공 키키는 경계성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인물이다.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는 키키가 자신의 병을 인지하고 맞닥뜨리는 이야기를 다룬다. 키키는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완전히 치료되지는 못해도 자신을 마주하고 이해하고, 조금 더 사랑하며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솔직하게 나눈다.

공연제작소 작작

'공연제작소 작작'은 작가, 배우, 프로듀서, 연출로 활동하고 있는 조윤지와 작곡가 김승민이 2020년 설립한 예술 단체이다. 창작자 중심의 작업 과정을 통해 작품성 있는 공연 예술 창작을 지향하며,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뮤지컬 <실비아,살다>를 제작했다. 공연제작소 작작은 '나아짐' 혹은 '나아감'에 관한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는 중이다.

인터뷰

극작·연출·기획 조윤지

작품을 창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릴 때부터 나 자신을 괴롭혀 오던 것이 있었다. 내 안에는 항상 공허감이 깔려 있었고, 지나치게 이별을 두려워하며, 버림받는 것, 지나가는 것, 변하는 것이 너무 슬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혐오했다. 나는 그것을 '애정결핍'이라 지칭했고, 이놈을 어떻게든 해결해보기 위해, 아니 잘 다뤄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왔다. 2018년, 이런 나의 애정결핍을 맞닥뜨리고 고군분투하며 한걸음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1인극 <윤지는 오늘도 자기 싫어한다>를 올렸다. 그리고 이 작품을 준비하며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는 키라 밴 갤더의 에세이 <키라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를 원안으로 삼은 <윤지는 오늘도 자기 싫어한다>의 확장판이다. 키라와 윤지는 (누구나 될 수 있는) 키키가 되었다.

작품의 주 소재인 '경계성 인격장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성격장애는 수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잘 인지하지 못한다. 그중에서도 경계성 인격장애 혹은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불리는 성격장애는 정도가 다를 뿐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겪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불안정한 대인관계, 만성적 공허감과 불안감, 반복적인 우울감 등을 증상으로 하는 성격장애 중 가장 발병 빈도가 높은 편이며,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성격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작품을 연출하면서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컨셉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뮤지컬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형식적으로는 간증, 혹은 토크콘서트 형식의 공연이다. 어딘지 모르게 수상해 보이는 이 쇼의 호스트 다섯 명은 오늘의 게스트 키키를 도와 키키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 어떤 것이든 되어준다. 키키는 쿨하고 아주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때로는 웃픈 상황이 닥치기도 한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별나도 괜찮아>를 보면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분명 유쾌한 소재가 아니지만, 이 드라마는 무겁거나 진지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꽤나 솔직하고 코믹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이 태도가 참 건강하다고 느껴졌다. 그 이유는 자폐 스펙트럼을 특별한 것, 진지해야 하는 것, 무거워야 하는 것, 슬퍼야 하는 것이 아닌 그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로 다루는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키키도 이런 태도로 다루어지기를 바랐다. 비극 속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랐다.

이 작품은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의 배우들이 같은 역할로 출연합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나요?

등장인물들이 남녀노소로 규정되지 않고 그저 한 '사람'일 수 있을지 고민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성격장애를 간증하는 키키라는 인물을 여자배우가 연기하기도, 남자배우가 연기하기도 하는데 그에 따라 키키의 애인 역할의 성별이 바뀌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사회화되고 학습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성애, 동성애로 느껴지고 그렇게 규정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프레임을 최대한 없애는 시도를 해보고 싶었다. 쉽지 않은 선택이고 이것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다양성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으면 하나요?

인정받는다는 것, 이해받는다는 것, 지지받는다는 것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나갈 용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 홍컴퍼니

여기, 피화당

일정	2024년 2월 7일(수) ~ 4월 14일(일)
공연시간	**화 ~ 금** 오후 8시 / **토** 오후 3시, 7시 / **일** 2시, 6시 / **월**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 플러스씨어터
티켓	R석 66,000원, S석 44,000원
프로듀서	홍승희
작·작사	김한솔
작곡	김진희
연출	김은, 한유주
음악감독	김치영
안무	홍유선
출연진	정인지, 최수진, 김이후, 조풍래, 조훈, 정다예, 장보람, 백예은, 곽나윤, 이찬렬, 류찬열



어둠 속 작은 빛으로 써내려가는 이야기

17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뮤지컬 <여기, 피화당>은 병자호란 이후 창작된 것으로 알려진 작자미상의 고전소설 '박씨전'에서 모티프를 얻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영웅소설 '박씨전'의 작가에 대한 상상에서 시작된 뮤지컬 <여기, 피화당>은 가장 약한 이들이 연대하여 써내려가는 이야기로 전하는 가슴 울리는 감동을 담아내었다. 또한, 단순한 고전의 재연에서 벗어나 뮤지컬적 판타지성을 더한 극중극의 형식을 빌림으로써 무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짙은 여운을 남긴다.

주식회사 홍컴퍼니

㈜홍컴퍼니는 공연전문 프로듀싱 컴퍼니로 창작개발 및 워크숍 주최, 제작 런칭 등 창작과정의 시스템화를 통한 시장 맞춤형 뮤지컬 제작과 유통을 목표로 2018년 설립되어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의 주크박스 뮤지컬 <미인>을 시작으로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 <라흐 헤스트>, <더모먼트>, <푸른 잿빛 밤>, <아티스> 등 안정적인 뮤지컬 제작과 레퍼토리화에 전념하고 있다.

인터뷰

작가 김한솔, 작곡가 김진희, 연출 김은

무대 연출이나 작곡 과정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작곡가 김진희)

'조선'이라는 극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국악적인 색채를 대중적이고 현대적인 음악어법으로 나타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극중극인 박씨전 이야기에선, 등장인물들의 대사로 이루어지는 가사에 따라 여러 음악적 소재들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연출 김은)

공연, 영화, 그리고 책을 통해 저는 제가 속하지 않은 다른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거나, 혹은 나와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인물을 보며 위안을 얻게 되는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뮤지컬 <여기, 피화당> 속 인물들이 박씨전의 이야기를 읽으며 느꼈던 마음, 처음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통한 경험과 인물들의 행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고민했습니다.

많은 고전 중 '박씨전'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작가 김한솔) 전쟁으로 상처입은 사람들을 위로해주었던 소설이라는 점, 여성영웅소설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어서 선택했습니다.

'박씨전'은 작가와 시대가 전부 미상으로 남아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상상력을 필요로 했을 것 같습니다. 작품을 창작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작가 김한솔) 오히려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박씨전의 작가는 누구였을까?'라는 궁금증에서 뮤지컬 <여기, 피화당>은 쓰여졌습니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조선'인데 시대적인 부분을 고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작가 김한솔) 우선 병자호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환향녀들의 처지와 최명길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너무 아팠고, 이들의 이야기가 뮤지컬 속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관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넘버나 장면은?

(작가 김한솔)

마지막에 계화, 가은비, 매화가 함께 박씨전을 쓰는 넘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뮤지컬 <여기, 피화당>에서 말하고 싶었던 '연대의 힘으로 빛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잘 표현됐다고 생각됩니다.

(작곡가 김진희)

추천 넘버: 박씨전 마지막 이야기.

넘버 설명: 첫 번째와 두 번째 박씨전 이야기는 주인공 가은비가 혼자 썼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에선 가은비와 함께 매화, 계화 모두가 집필했다는 점에 의미가 큽니다. 또한 이 넘버는 극중극인 박씨전의 절정에 해당함으로, 가사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가장 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출 김은)

자신의 의지로 동굴 밖을 나가는 가은비, 계화, 매화의 그 순간의 장면.

이 작품은 시련과 고통, 아픔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여자들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굴 속에 있는, 혹은 어두운 동굴을 빠져나온 관객들에게 뮤지컬 <여기, 피화당>이 응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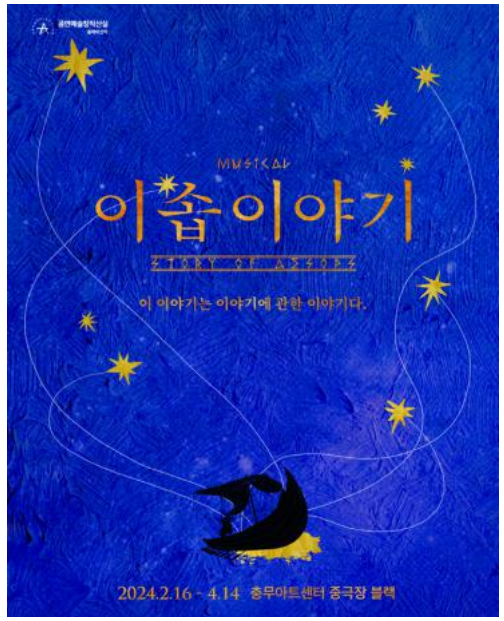




주식회사 컴인컴퍼니

이솝이야기

일정	2024년 2월 16일(목) ~ 4월 14(일)
공연시간	**화, 목, 금** 오후 8시 / **수** 오후 4시, 8시 / **토** 오후 3시, 7시 / **일** 오후 2시, 6시 / **월** 공연 없음
장소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관람연령	14세 이상
티켓	R석 66,000원 / S석 44,000원
작·작곡·연출	서윤미
음악감독	김은영
안무	정재혁
조명디자인	마선영
음향디자인	권지휘
무대디자인	조경훈
의상디자인	조문수
분장디자인	김민경
제작PD	손민지
출연진	전성우, 황휘, 이준우, 송상은, 장민제, 김도빈, 김대현. 이형훈, 강연정, 최미소, 김서환, 임태현, 조성필, 선유하, 이정화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로 흐를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당신의 마음에 닿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이 작품은 2,600년 전 그리스 사모스 섬의 노예로 살던 한 이야기꾼이 남긴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다. 몇 천 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 마음속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것의 본질에 관해, 그리고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이다. 텍스트가 가진 힘과 그 이야기를 무대 위 그려내는 수많은 움직임과 색채,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져 하나의 총체적 경험으로써 관객에게 다가가길 바란다.

주식회사 컴인컴퍼니

공연제작사 (주)컴인컴퍼니는 동시대를 관통하는 감동과 의미가 담긴 창작 스토리를 발굴하여, 공연 예술을 통해 관객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콘텐츠 IP의 보유 및 각계 전문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양질의 공연을 선보이며 한국 창작 공연계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인터뷰

작·작곡·연출 서윤미

무대 연출이나 작곡 과정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의 속성을 담고자 했습니다. 구전 문학의 속성이기도 하죠. 그걸 연출적으로는 '원형', 음악적으로는 '화음과 돌림노래'로 잡았어요. 자연스러운 이어짐,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더해지고 덧붙여지는 어우러짐. 마음에 닿는 부분들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과 전달 그리고 진심이 담긴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져 영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고 원형 무대를 활용한 연출과 배역들이 모두 이야기 꾼이 되어 작품의 장면들을 '이야기' 하도록 했습니다.

극을 이끌어나가는 가장 큰 중심이 '이야기의 힘'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야기의 힘'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야기에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나눠질수록 더욱 커지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좋은 이야기 역시 사람들 마음에 닿으며 더욱 풍성해지고 견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가치가 유한한 사람들의 생보다 더 오랜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마음에 닿고 닿으면 끊임없이 전해지니까요.

작품을 창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몇 년 전, 우연히 그리스 사모스 섬에 대한 기사를 보았고 '사모스 섬이 어디지?' 하고 검색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이솝이 이 섬에 노예로 살았다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코로나로 여행길이 막혔을 때라 집에서 이 아름다운 섬에 대해 한참을 검색했죠. 꼭 이솝이 살았다던 2600년 전의 그 섬을 여행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흘러왔다' 고 생각했죠. 그즈음 이야기의 본질과 마음에 닿음에 대한 고민을 한참 하고 있던 터라 그렇게 흘러온 이야기들이 하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솝 우화를 모티브로 하는 작품은 많지만, '이솝의 생애'를 모티브로 하는 작품은 흔치 않은데요. 이솝 우화와 이솝의 생애를 어떻게 연결하게 되었는지?

처음 영감을 준 것이 이솝의 생애였고, 고민하고 있던 주제가 이야기의 본질성이라 그가 지었다던 <이솝 우화>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어요. 이솝 우화에 가장 매력을 느낀 점은 어떻게 이 이야기가 2600년 후까지 살아남았는가 였죠. 이야기의 본질 중에서도 진심, 소통, 공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핵심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고 그렇게 연결점을 찾아 이어갔습니다.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기억에 남기를 바라나요?

관객분들의 마음에 이 이야기 말고도 수많은 이야기가 흘러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흐르길 바랍니다. 2600년 전으로부터 실려온 이 이야기 역시 관객분들의 마음에 닿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더욱 귀 기울여 볼 수 있게 하는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

김민희(뮤지컬 마케터)

필자는 오랜 기간 공연, 뮤지컬 관련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창작산실의 진행 과정을 꾸준하게 지켜봐 왔다. 매년 선정되는 작품들은 저마다 준비기간이 다르고,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작품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지니고 있음에도 해마다 공통으로 관통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2023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뮤지컬 부분에 선정된 네 작품은 '우리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각 작품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공통되게 느껴지는 건 현재의 우리가 느끼고 고민하는 것들이 작품에 투영되기 때문이리라.



내 친구 워렌버핏

뮤지컬 <내 친구 워렌버핏>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세대에게도 익숙하고 관심도가 높은 투자가인 워렌버핏의 일생을 들려주고 있다.
워렌버핏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자녀에게 들려줌으로써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경제와 금융에 대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준다.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는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키키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병을 인정해 달라고 말하지만
키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 피화당

뮤지컬 <여기, 피화당>은 어둠 속 작은 빛으로 써 내려간 '우리의' 이야기이다.
작품은 최초의 여성 영웅 소설 '박씨전'에 이야기를 더해 병자호란을 거치며 큰 역경과 시련을 마주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고난 속에서도 세 여성은 서로를 의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간다.

이솝이야기

뮤지컬 <이솝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리스 설화 이솝우화에 이야기를 더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진심을 전하는 이야기는 마음속에 꼭 흐르고 닿는다는 주제를 용기 있는 이야기꾼 티모스와 갇혀있지만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며
세상을 여행하길 꿈꾸는 소녀 다나에를 통해 들려주고 있다.

<2023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에 선정된 위 네 작품들은 그 어느 해보다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관계를 다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관객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했고
관객과의 대화, 무대인사, 커튼콜 데이, 사진 증정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이야기를 들려줄 관객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관객들에게 닿아 더욱 반짝이는 이야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의 새로운 작품들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독창성과 다양성을 향한 지속적인 탐구

배경희(라이브(주) 홍보팀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연예술창작산실은 국내 공연예술 지원 사업 활성화의 출발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내 대표 공연예술 지원 사업이다. 2008년, 연극과 뮤지컬 분야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창작팩토리'로 출발해 2013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했고, 지난 15년 간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여섯 장르를 어우르는 지원 사업으로 성장하면서 단순 지원 사업이 아닌 하나의 공연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대본 공모', '실연 심의', '본 공연'이라는 단계별 심사와 지원을 거쳐 지원작을 선정한다는 점, 그리고 특히 상업 공연에서 쉽게 보기 힘든 참신한 주제와 새로운 시도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공연예술창작산실이 공연 애호가들에게 지지를 끌어낸 이유다.





15주년의 의미가 빛나는 2023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다양성, 독창성, 동시대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선정된 6개 장르 28편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고, 뮤지컬 부문 선정작으로는 <내 친구 워렌버핏>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 <여기, 피화당> <이솝이야기>가 이름을 올렸다. 이미 전작을 통해 상업성이나 작품성을 검증받은 창작자/단체의 신작이라는 것이 뮤지컬 부문 이번 선정작들의 공통점이다.

네 작품 가운데 가장 먼저 막을 올린 <내 친구 워렌버핏>은 가족 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로 잘 알려진 컬처홀릭이 새롭게 내놓은 '어린이 경제 교육 뮤지컬'이다. 작품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억만장자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학습만화 분야 베스트셀러 'Who?' 시리즈의 '워렌 버핏' 편을 무대로 옮겨 가족 뮤지컬 주 관객층의 관심을 모았다.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는데, 경제 관념에 눈 뜨게 되는 워렌 버핏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재구성해 돈의 가치와 의미를 전한다. 어린 워렌 버핏이 단짝 친구 토니 밀러와 함께 콜라와 팝콘을 팔면서 경제 활동을 경험하고 올바른 투자 철학을 배워가는 식이다. 공연 전에 나눠주는 1 달러 모형 지폐로 팝콘을 구입하거나 불우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고, 객석으로 날아오는 모형 골프공 받기, 무대에 있는 농구 골대에 덩크하기 등 체험 요소를 많이 넣어 어린이 관객의 흥미를 유발한다.

두 번째 작품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는 첫 작품 <실비아, 살다>로 이름을 알린 공연제작소 작작의 신작으로 주목받았다. 2022년 초연된 <실비아, 살다>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천재 여성 시인 실비아 플라스의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조명해 이듬해 열린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대상 후보에 오른 작품. 공연제작소 작작이 1년 반 만에 새롭게 내놓은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는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는 주인공 키키가 자신의 성격 장애를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다. 우리의 현실에 맞닿아 있는 정신질환을 소재로 다뤄 뮤지컬이란 장르가 품은 가능성을 확장할 뿐 아니라, 키키가 겪는 변증법적 행동 치료 과정을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풀어낸 점이 신선한 작품이다. 무엇보다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가 더욱 특별한 것은 주인공 키키 역에 남녀 배우를 더블 캐스팅해 배역의 성별을 규정짓지 않고, 상업 뮤지컬로는 드물게 일부 회차를 릴랙스드 퍼포먼스 진행하거나 특정 회차에 수어통역, 터치투어를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공연을 지향했다는 점이다.

뮤지컬 <여기, 피화당>은 지난 1월에 열린 제8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작품상, 극복상, 음악상을 거머쥔 <라흐 헤스트>의 제작사 홍컴퍼니와 김한솔 작가가 다시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라흐 헤스트>에서 수필가이자 화가, 미술평론가였던 김향안의 삶을 재창작해 여성 예술가를 이야기의 중심에 세웠던 것처럼, 이번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박씨의 활약상을 담은 고전소설 '박씨전'에서 모티프를 가져왔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은비, 매화, 계화. 조선시대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끌려갔다 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정절을 잃었다는 이유로 천대받으며 집에서 쫓겨난 세 사람이 '피화당'으로 이름 지은 동굴에 숨어 살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려 애쓴다. 원 세트 무대라는 소극장 무대의 한계를 잘 살리지 못한 단조로운 연출은 다소 아쉬움을 남기지만, 같은 아픔을 지닌 세 여성이 유대감을 형성하며 사회의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서로 연대하는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려내 여성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한다.

2023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뮤지컬 부문 마지막 작품인 <이솝이야기>는 <블랙메리포핀스>라는 스테디셀러 소극장 뮤지컬을 탄생시킨 서윤미가 다시 한 번 극작, 작곡, 연출을 맡아 개발했다.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작품은 고대 그리스의 이솝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이솝우화를 모티프로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이야기 여행을 그린다. 때문에 토끼와 거북이, 햇님과 바람, 여우와 신포도, 양치기 소년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이솝우화를 만날 수 있는 반가운 작품이다. 이야기의 주인공 티모스는 이솝의 생애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노예이자 이야기꾼. 주인인 파빌로스의 딸 다나에와 가깝게 지내다 파밀로스의 노여움을 사서 쫓겨나게 되는데, 팔려간 곳에서 이야기로 사람들을 매료시켜 자유를 되찾은 후 다시 다나에와 재회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이야기의 매력을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는 뚜렷하지만 이야기 구성이 다소 헐거운데다 남녀 주인공의 캐릭터 활용과 그림자를 활용한 연출이 지나치게 전작을 떠올리게 해 아쉬움을 남긴다.





무용







인간의 잔인성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잔인함을 막을 수 있을까?

잡고 잡히고, 쫓고 쫓기고, 뜯어먹고 뜯어먹히는 가해와 피해, 폭력과 유린, 놀이가 엉망으로 뒤섞인 카니발(carnival) 속에서 드러나는 식인행위(caniballism)는 우리의 모습을 은유하고 있다.

일상적 삶에서의 규제를 벗어나는 일탈과 해방의 시공간인 카니발(carnival)속에서 만끽하는 쾌락의 한 지점에서 우리는 자신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나를, 이전에 숨겨두었던 괴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카니발(carnival)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카니발(cannibal)을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 인간에게 권력을 주면 그 인간은 짐승이 되어버린다. 인간의 잔인성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잔인함을 막을 수 있을까?

PDPC
(Physical Design Performance Company)

모든 물리적인 공간을 디자인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신체를 통해 공간에 스케치하고 소리와 빛으로 색을 칠한다. PDPC는 인간의 신체를 공간 구성의 도구로 사고한다. 그 공간에서 신체는 비로소 건축된다.

PDPC
애니멀

일정 2024년 1월 26일(금) ~ 28일(일)
공연시간 **금** 오후 8시 / **토, 일** 오후 3시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티켓 전석 30,000원
예술감독·안무 안영준
무대디자인 김종석
조명디자인 류백희
사운드디자인 부다혜
무대감독 김진우
프로듀서 박유정
출연진 권재헌, 김재진, 안남근, 이유진, 하권재



인터뷰

예술감독 안영준

동물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무용수들의 움직임에서 동물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위해 동물과 인간의 중간... 진화가 덜 된 듯한 인간의 모습을 상상하며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은 인간도 동물도 아닌 또 다른 생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꼬리를 돌리고, 서로 옷을 입고, 벗는 등 옷을 활용한 안무가 눈에 띄는데요. 이를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다면?

꼬리는 이미지 혹은 컨셉에 머물러 소품으로 소비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무용수들의 손과 발과 같이 한 몸 같이 보여 주길 바랐습니다. 그 행위는 전혀 다른 종의 모습 또는 토테미즘의 행위 같은 종교적 축제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작품이 사회에게 던지는 메세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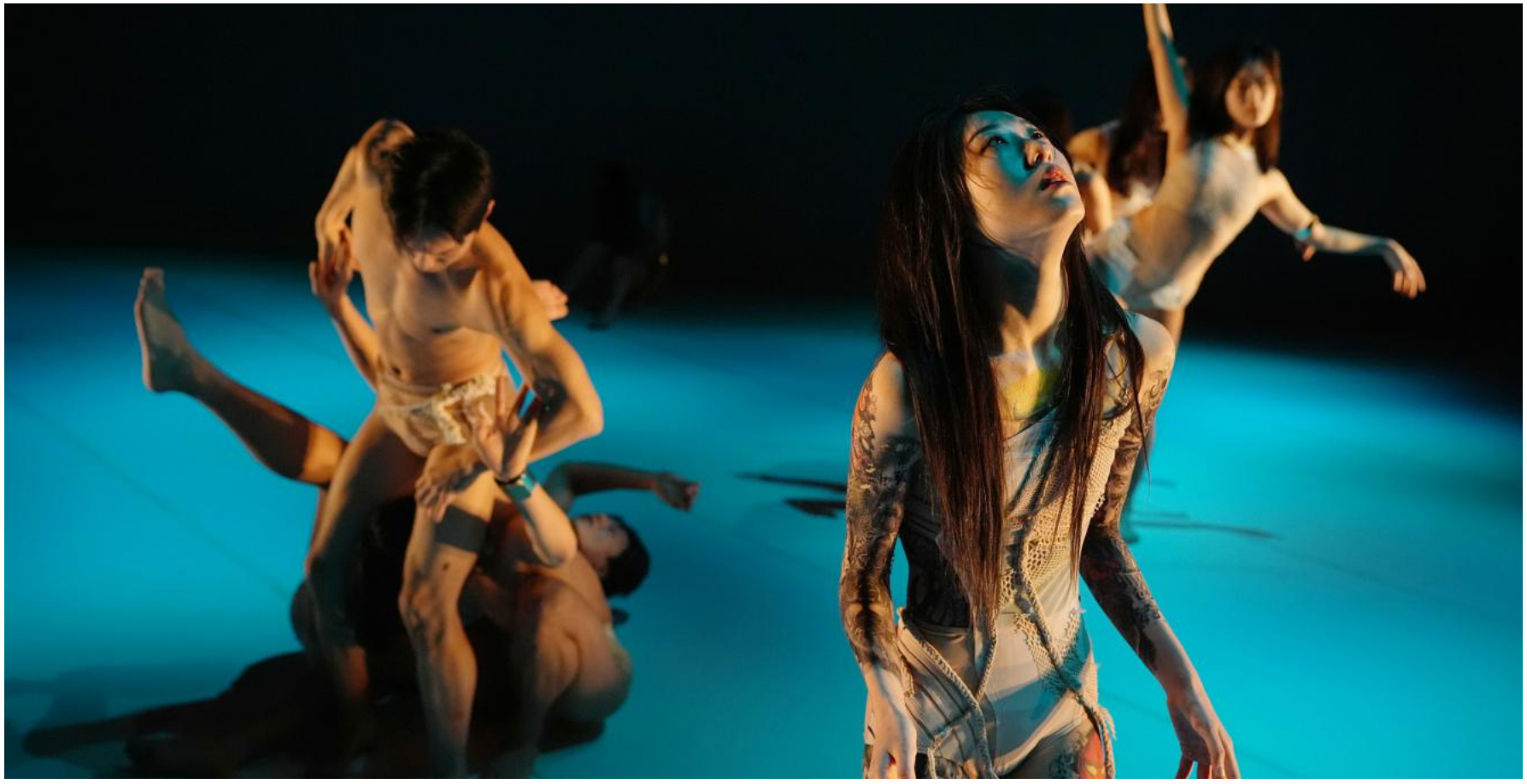
'인간의 잔인성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잔인함을 막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관객 스스로 성찰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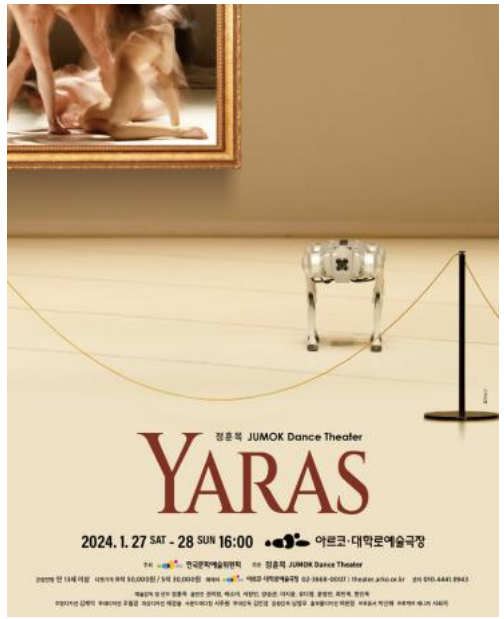
동물을 주제로 잡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 순간에도 인간의 잔인성은 최고치에 달해 있고,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자행하는 폭력과 유린 그리고 파괴를 우린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 공정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약육강식이라는 법칙 안에서 생존하는 동물보다 미개한 듯 보였습니다. '권력이 주어진 인간이 짐승이 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무엇이 동물일까?' 라는 고민 속에서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동물을 표현하기 위한 의상과 무대장치들이 돋보입니다.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서 제작했나요?

어떤 특정 동물을 형상화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떠올려지는 미지의 생물을 상상해 보는 과정에서 꼬리라는 이미지가 나왔고 그것을 소재로 움직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간도 동물도 아닌 그 전혀 다르게 변태(變態)한 듯한 이미지를 상상해 의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컨셉은 자연스럽게 무대 위 설치물에도 적용되었으며 구조물의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되며 기본적으로 움직임의 확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훈목 JUMOK Dance Theater

Yaras

일정	2024년 1월 27일(토) ~ 28일(일)
공연시간	**토, 일** 오후 4시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
티켓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예술감독 및 안무	정훈목
조명디자인	김재억
무대디자인	조일경
의상디자인	배경술
미디어아트	VRUNCH
사운드에디팅	서주원
무대감독	김인성
음향감독	남영모
홍보물디자인	여현정
프로듀서	박신애
프로젝트 매니저	서희지
출연진	권미정, 배소미, 서정빈, 양승관, 이지윤, 유다정, 윤명인, 최민욱, 한진욱

왜곡된 신체를 상징으로 한 Yaras 종족의 평형감각과 인공지능, 트랜스휴머니즘 시리즈의 첫 번째 에피소드 작품

집단의 무용수들이 각기 다른 신체의 결합, 변형, 진보된 몸과 트랜스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무대에서 잘 시도되지 않았던 오브제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과 다가올 미래에 인문학적 방향성 제시에 물음을 던진다.

다양한 사이버네틱(Cybernetic) 소재와 시대를 넘나드는 오브제의 결합으로 탈곡된 인간의 신체를 무대 위에 들어내고 가능성의 한계를 실험하며, 왜곡된 인류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도래한 인공지능 시대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우리의 방향성과 미래사회에서 '휴머니즘'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을 담는다.

정훈목 JUMOK Dance Theater

주목댄스 씨어터(JUMOK DANCE Theater)의 대표이자 예술감독 정훈목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벨기에 PEEPING TOM 컴퍼니에서 크리에이터 및 무용수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단체 '주목댄스 씨어터(JUMOK Dance Theater)'를 통해 본인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다져가고 있다. 정훈목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관객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한다. 정훈목은 풍부한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쌓인 아이덴티티를 한국인의 정서와 접목하여 작가의 시그니처, 유니크함을 지니는 것을 목표로 하며, 탄탄한 연출력과 춤, 움직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신만의 철학과 작가관을 예술이 가지고 있는 미학과 접목하여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와 서사를 이끌어내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

인터뷰

안무가 정훈목

비주얼적으로 독특하고 새로운 미장센을 연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한국 무용수들의 뒤 틀리고 변형된 몸짓과 행위를 통해 강한 매운맛을 관객들에게 선사하는 것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

Yara족은 다양한 동물과 사람을 넘나드는 캐릭터입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노력했던 부분은?

Yara족 본인들의 각자가 지닌 유니크함과 개성을 추출 해내고 비주얼적인 캐릭터의 묘사와 구현을 통해 독특한 패러다임을 찾아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와 동시에 공동체적 힘을 발휘하지만 반면에 개인적인 무력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의미로 작용한 집단지성의 모순을 반영해서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내는 인간의 불안한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다. 이는 결국 인간애로 직결되는 것으로 휴머니즘의 존재 여부를 반추한 작품이다.

작품 제목이기도 한 'Yaras'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Yara(야라)라는 개인의 인물이 모여 복수격인 Yaras(야라스)의 집단 구성원으로서 가상의 종족으로 지칭한 단어이다. 그리고 Yara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주는 중성적인 부분이

매력으로 다가왔고 철자 'ara'에서 왠지 모를 부족의 영감을 받아 선택하였다. 이 작품 안에서 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개한 자아의 일종인 Yara족과 각자의 독특한 캐릭터 안에 현재를 표방하는 종족,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존재한다.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기억에 남길 바라나요?

무용 공연을 바라보는 것은 오롯이 관객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Yaras>가 관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으로 남는 작품이길 바란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전혀 다른 인격체들에게 작품의 배경 설명, 캐릭터들의 명료화, 획일화되고 고지식한 메시지, 이 작품은 이러한 이야기이니 이렇게 해석하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공연 관람 후 키워드가 머릿속에 맴도는 작품이 아닌 관객의 관점에서 가슴 한켠 미세하게나마 조그만 요동을 느낀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관객에게 그 미세한 요동의 파도를 자극하고 예술적인 공감을 터치하는 것이 무대 위 공연작품을 치열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도그, 사이버 버드 같은 독특한 오브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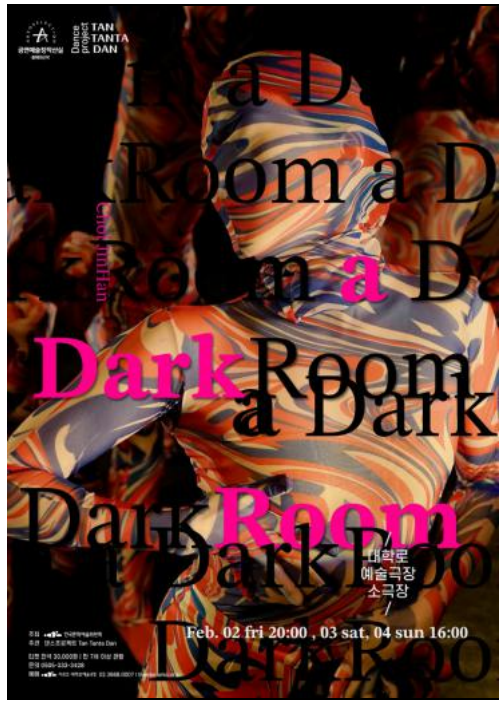
인공지능(AI)이 먼 미래가 아닌 현시점에서 사이버네틱 소재를 통해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단순한 소품이 아닌 캐릭터가 부여되고 Yara족의 존재 이유와 두려움, 그들의 포효가 AI라는 매개체를 통한 억압과 핍박이 상호작용한다면 어떨까라는 상상력의 시작점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사이버네틱 소재들과 미래 지향적인 주제들로 인해 분장, 의상이나 안무에도 많은 해석과 노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가장 신경 썼나요?

미니멀리즘을 전제로 한 간소한 세트를 통해 Yara족의 세계관에 관객들을 초대하고 그 긴장감의 끈이 작품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며 무대 위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

a Dark room

일정	2024년 2월 2일(금)~ 4일(일)
공연시간	**금** 오후 8시 / **토, 일** 오후 4시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티켓	전석 30,000원
연출·안무	최진한
조명디자인	김철희
의상디자인	최인숙
음악감독	최혜원
영상감독	임정은
무대감독	김진우
사진기록	류진욱
기획	이승윤
출연진	주하영, 최원석, 손정현, 김정수, 조연희, 주성진, 최진한

“어두운 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 안에서 두 팔을 휘저으며 앞으로 앞으로 꿈틀거리는 나를 가만히 바라본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사회’가 만들어낸 개인주의와 자존감 상실 그것으로 파생된 ‘인간소외’라고 요약할 수 있는 지나친 경쟁과 성장 중심 사회의 부작용에 주목하여, 인간이 사회라는 관계 형성망 안에서 사람은 자기의 욕망에 몰두하는 원자(原子)가 아니라 연결된 열린 존재로 서로 얽히면서 해체에서 관계로의 이정표를 제시하여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

프로젝트 형식으로 작업을 만들어가는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
잠재되어 있는 개별적 사고들을 춤의 사유로 확장하고, 다양한 즉흥적 움직임을 통해 열린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독창적인 춤을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이미지로 이끌어낸다.
지극히 자전적 경험을 춤의 서사로 만들어 춤 안에 나를 담고, 이것을 다시 객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관객과의 살아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한다.



인터뷰

안무가 최진한

<a Dark Room>이라는 제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 Dark Room은 추상적 의미로의 어두운 방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내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시선, 관계들이 나의 의지에 따라 존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갑게 외면하는 상황에서, 또는 타인이 나를 간과하거나 모른 척하는 상태, 더하여 그 공간, 그 시간에 존재하지 않는 나로 만들어 버리는 나 또는 당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 놓여있는 상태를 우리로 이루어진 사회 안의 관계 형성 모습에서 제목을 붙여 보았다.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작품을 구성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작품을 창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Pandemic 상황을 겪으며 극단적 개인성이 용인되던 시간 안에서 나와 타인의 관계 그리고 사회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서 존재하는 개인성과 관계성에 대한 인식이 이 세계 안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 존재로 살고 있는가 고민하게 했다. 내 자신이 사회의 상태에 따라 중심과 무게를 잃고 바동거리며, 나는 나의 존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나는 사회 안에서 자기실현에의 몰두를 지향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심리학적 이기주의와 경제학적 이기주의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사회'라 불리며 나와 너 모두 따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혼자 사는 삶의 트렌드는 개인주의에 대한 찬양처럼 보이지만, 어찌보면 타인들을 피해 도망치고 숨어야만하는 삶의 존재 모습을 드러낸다. 소수의 위너와 다수의 루저를 생산해내며 낙인찍는 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연결은 새로운 가능성이기 보다는 비교의식과 피해의식, 열등감과 박탈감을 양산하는 현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더하여 현시점의 경제적, 정치적 불안감이 피부로 체감되는 그 혼란스러움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으며 안으로, 안으로 숨어들게 만드는 난관(難關)이 난무(亂舞)하는 시대에 우리는 그 안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어떤 존재로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하게 되었다.

인간의 소외와 개인주의 등을 표현하기 위한 연출 포인트가 있다면?

인간소외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인격(personality)의 개별성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게 되었다. 인간의 개인성은 개인의 존재, 또 각각의 개인이 다양한 성질로 보이게 되면 너무나 쉽게 표현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본 작업에서는 그렇다면 그 개인성과 소외되는 상태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의 고민에서 그 인간의 특성인 개인성을 최대한 삭제한 상태를 만들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또 다른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개인성이 상실된 상태. 그 상태에서 드러나는 더욱 명확한 개인성,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이미지화하여 만들어 가보려 한다.

불균형과 불규칙한 무대 배경이 돋보이는데, 이를 통해 의도한 바가 있다면?

내가 바라보는 주변의 불안전함에 대한 나 자신의 반응, 정서적 흔적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있는 형태적으로의 반듯한 바닥과 벽, 테이블과 의자 등 존재하는 사물의 균형과 관계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서서 내 주변을 360도 바라보는 동시에 타인의 시선에서 결코 중심이 될 수 없는 서로의 주변인으로서 나의 현실과 존재를 자각하려 한다.

내 시선 안에 있는 현실적인 일상과 초상(肖像)과 풍경(scene)을 바라보는 동시에 비일상적인 느낌의 초상과 풍경이 함께 공유되는 이유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 양쪽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결국 나 자신이 발 딛고 있는 불규칙한 관계, 불균형한 현실, 지금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였으면 한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볼만한 불안전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이 현대사회에 어떤 해결책으로 다가가길 바라나요?

해결책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기엔 나의 작업이 버거운 무게감을 감당할지는 모르겠다.

나의 이야기가 주관적 사고 안에서의 주관적 관점과 공간을 타인이 자신을 투영하여 볼 때 느껴지는 극단적 개인의 모습을 연관 짓고 반영하게 되는 현상의 기회를 가지고 나누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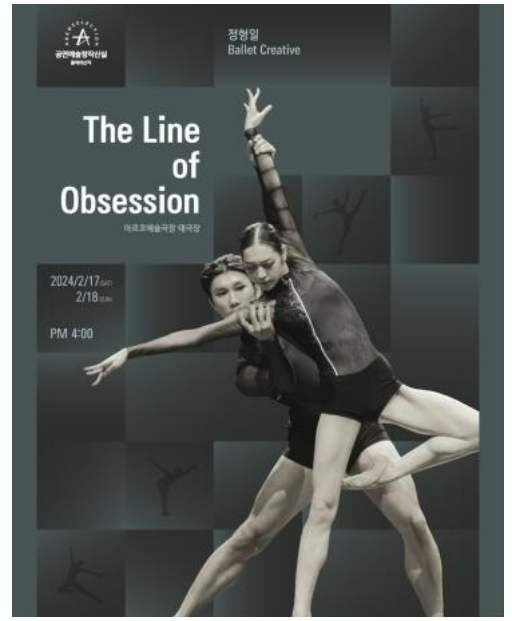
이 개인적 모습은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모습을 통하여 각자의 개인 스스로의 모습으로 비추어 은밀한 자신과 만나고 작가가 갖는 불안전하게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로의 생각 안으로 감정과 사고의 이입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화상을 함께 그려보고자 한다.



정형일 Ballet Creative

The Line of Obsession

일정	2024년 2월 17일(토) ~ 18일(일)	**기획**	김수진
공연시간	**토, 일** 오후 4시	**출연진**	강소연, 김은정, 김정하, 김성민, 김경원, 권수민, 문소윤, 이지연, 홍은서, 신솜이, 손성재, 정 민, 정이진, 진승우, 정범교, 최정인, Aldar Temuulen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티켓	전석 30,000원		
예술감독	정형일		
무대디자인	김태환		
조명디자인	김익현		
의상디자인	금세연		
영상디자인	정종호		
무대감독	박정빈		
운영이사	장지욱		



발레와 몬드리안이 빚어낸 강박과 집념의 새로운 표현

<강박의 캐릭터 - 소멸> : 발레가 요정과 백조라는 판타지를 넘어 본질이 되는 모습은 무엇일까. 발레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 전발레 속 주인공 백조와 요정을 파괴한다. 그동안 발레 작품에서 환상적인 캐릭터로 기억되었던 발레 요정과 백조의 파괴는 발레가 인간의 표현한계를 넘어가고자 하는 진화의 욕구와 열망이며, 세상에 아름다운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이자 강박일 것이다.

<강박적 반복 - 창조> : 질서와 균형의 공간 그리드 안에서 발레리나의 내적인 강제에 한하여 반복적 움직임이 계속된다. 몬드리안이 사물을 넘어 본질의 선을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하고 탐구했던 것처럼 발레리나의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선을 찾기 위한 강박적 반복을 표현한다.

정형일 Ballet Creative

정형일 Ballet Creative는 예술감독 정형일을 중심으로 컨템포러리 발레 작업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단체이다. 발레가 가지고 있는 미학적 구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미니멀하고 세련된 무대와 영상을 구현하며, 인간의 신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조형미가 강조된 정형일 만의 고유한 움직임을 특징으로 한다. 정형일 Ballet Creative는 예술성·작품성과 대중성이 균형 잡힌 레퍼토리의 지속적 개발을 목표로 하며 컨템포러리 발레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되고자 한다.

인터뷰

예술감독 정형일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 무대 측면에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이 공연에서 몬드리안의 시각적인 부분과 이미지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빔 프로젝터를 활용한 발레와 공간의 협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몬드리안이 그려왔던 상징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몬드리안의 대표적인 한 장의 이미지 소스를 통해 발레가 무대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씬 별로 세분화하고 이러한 각 장면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무대배경과 바닥을 활용하여 표현한다.

관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관람 포인트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발레에서 가장 상징적인 백조, 무대 위 백조가 되기 위한 발레리나의 노력은 고귀하다.

백조가 되기 위한 발레리나의 열망과 꿈이 만들어낸 강박의 선은 발레리나의 삶을 살면서 생기는 균형과 아름다운 선을 갖기 위한 강박의 모습처럼 절대 비율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몬드리안이 만들어 낸 강박적 선을 통해 표현되는 발레이다.

고전 클래식 이야기속 진부한 작품 내용에 갇혀 있는 발레의 대표적 캐릭터를 파괴하고 발레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대변하고 과거와 대별 되는 발레가 무엇인지 몬드리안의 선과 공간을 통해 표현되는 발레를 통해 발레의 본질이 무엇인지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작품의 주제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발레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발레는 규율, 예술성, 우아함의 시대를 초월한 융합으로 무용수와 관객 사이의 대화이며 감정과 기술의 매혹적인 융합이다. 반면 동시대 발레는 발레의 본질이 단순한 기술의 그림자 뒤에 모호하게 사라져 버린 느낌이다. 기술만 추구하게 되면서 발레의 감정을 전달하고 청중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을 잃는 것은 아닌지…

외형적인 아름다움, 화려한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레가 발레로서 가장 발레다운 컨템포러리 발레는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야 하는지 묻고 답하는 공연이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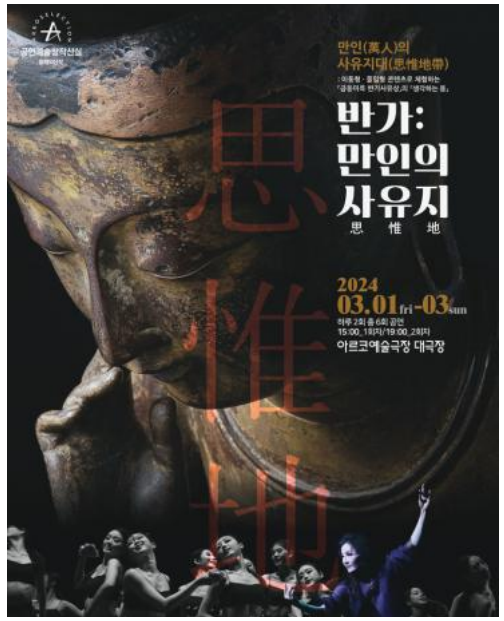
최근에 안무가는 공간에서의 발레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상상으로 발레가 공간을 디자인하고 공간이 발레의 움직임을 발현하는 요소로서 단순한 이미지와 상징성을 초월한, 협응하는 작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몬드리안을 소재로 선택 하였고 몬드리안의 수직적 선과 수평적 선이 만들어 낸 강박의 선과 발레의 강박을 몬드리안의 이미지를 통해 발레의 많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2차원의 그림을 3차원의 발레로 풀어내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요?

영상 소스 디자인 작업과 발레, 음악, 무대 세트 등 장면별로 구상중인 영상 소스가 단순히 움직임 구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음악의 흐름과도 잘 어우러져야 하기에 안무 구성 단계부터 영상 구성과 안무 구성에 대한 계산을 음악과 함께 면밀히 계산해서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막연한 2차원적인 형태의 그림에서 3차원적으로 발레의 본질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예술적 융합 시도이며 그만큼 무대에서 계획한 대로 구현된다면 성취감 또한 만족스러울 것이다.







순헌무용단

반가: 만인의 사유지(思惟地)

일정	2024년 3월 1일(금) ~ 3일(일)
공연시간	**금, 토, 일** 오후 3시, 7시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12세 이상
티켓	전석 50,000원
총 연출	이영일
예술감독·안무	차수정
작가	임영욱
사진작가	준초이
음악감독	강상구
역사학자	심용환
기술감독	이도엽
조명디자이너	허환
무대디자이너	조일경
무대감독	정찬홍
음향감독	허지환
조연출	박수진
출연진	차수정, 장윤나, 강은지, 윤하영, 윤예령, 최세아, 이재영, 강채연 외

반가(半跏), 새로운 희망을 예감하는 만인(萬人)의 사유지대(思惟地帶)

전례 없는 변화의 시대는 새로운 사유를 요한다. 넘쳐나는 이미지와 비현실적인 속도의 틈바구니에서 고즈넉한 사유의 시간을 마련하는 일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지만 또한 어려운 일이다. 이에 <반가 : 만인의 사유지>는, '금동미륵 반가사유상' 특유의 포스처(posture)를 모티프로 동시대 관객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몸'을 제안한다. 관객의 이동과 몰입을 콘셉트로 한 이번 작품은 무용, 매체, 강연, 체험을 가로지르며 반가사유상의 미적·사상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한편, 현대의 존재 방식에 대해 관객과 함께 성찰하고자 한다.

순헌무용단

순헌무용단은 2005년 9월에 창단하여 공연예술 활동을 목표로 하는 순수예술단체이다.

순헌무용단은 현 시대에 적합한 융복합 장르 무용 공연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또한 한국 문화의 세계적 우수성을 드높이며, 한국무용계에 예술적 공연 장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실험적 레퍼토리를 제작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는 작품을 창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순헌무용단의 비전은 미래 한국무용이 나아가야 할 창작적 예술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국무용의 정체성 확립을 바탕으로 21세기에 부합하는 참다운 무대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다.

실험 정신과 도전 의식을 갖고, 앞으로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전통과 창작을 공존시키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예술단체가 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터뷰

안무가 차수정

물을 사용한 점이 독특합니다. 어떤 이유로 물을 사용하게 되었나요?

물은 무용수로 하여금 춤을 통한 의식의 흐름이 물을 통해 무용수를 정화하듯, 관객이 물에 비치는 무용수처럼 자신 스스로를 정화하고 치유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길 바라는 뜻으로 정화 의식을 물로 표현하게 되었다. 반가사유상이 갖고 있는 사유의 시간을 통해 모든 현대인들의 심리를 치유하고 씻어내며 정화를 경험하기를 바란다.

무대 연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머시브 형식의 공연으로 공연자와 관객의 간극을 좁힘으로써 사유의 가치를 심어주고자 한다. 관객이 본 무대, 백스테이지, 사이드 무대, 분장실 등을 활용하여 그 공간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인해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인간의 본성을 느낄 수 있도록 자극하여 생각의 깊이와 치유를 돕는다.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반가사유상이 1400년 동안 간직한 미소로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잠깐 동안이나마 현대인들이 조금의 휴식과 쉼을 토대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반가사유상의 어떤 부분에서 창작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국보 78호 '반가사유상'은 반가부좌를 틀고 중생들을 위한 상념에 잠긴 미륵보살을 표현한 불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화재에 담겨진 한국인의 품격 높은 사유에 관해 무용 공연으로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싶었으며,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염원과 반가사유상이 지금 현시대에 주목을 받게 된 이유를 무용 쪽에서 찾다 보니 지금의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었다.

마음의 안정과 사유의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안무로 풀어내는데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나요?

이번 공연은 극장 체험형 개념을 가지고 구성하여 추상적으로 마음의 안정과 사유의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다. 이는 이머시브 형태로 사유의 시간을 극장 체험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무의 시간보다는 관념을 심어주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춤이 갖고 있는 공간 여백의 아름다움과 고요한 정적을 채우는 에너지를 관객과 가까이서 체험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었다.





허 프로젝트

Where is the Rabbit?

일정	2024년 3월 1일(금) ~ 2일(토)
공연시간	**금** 오후 8시 / **토** 오후 7시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티켓	전석 30,000원
안무·연출·출연	허성임
코 크리에이터·출연	Grace Ellen Barkey
작곡	Husk Husk
노래	Maarten Segher
조명디자인	이영욱
영상·비디오아트	김예은, 최재영
영국프로듀서	Grace Okereke / Uprise Rebel
한국프로듀서	국지수 NiNaNo
협력	Needcompany
출연진	Grace Ellen Barkey, 하지혜, 서동솔, 조현도, 허성임



두려움과 불안으로 불완전한 우리, 그리고 그 안에서의 쉼 없는 행보로 찾아내는 순수 존재로서의 우리

무엇이 우리를 검은 그림자로부터 달아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검은 잔상에서부터 달아나게 하는가?

<Where is the Rabbit?>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검은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감추고 싶어 하는 것들을 수면 위로 드러낸다. 시간과 공간이 다른 인물들을 설정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토끼는 인간에게 친숙함과 동시에 이상한 세계로,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순수의 세계로 관객을 초대한다.

허 프로젝트

허 프로젝트는 동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몸과 음악으로 해석하고 접근한다. 화려하고 현란한 무대보다 소박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며 과정에 충실한 작업을 만들어가는 창작집단이다. 유럽(그리스, 벨기에, 영국)과 한국에 있는 멤버들은 정기적인 온라인 미팅을 통해 그들의 관심 분야와 접근 방식을 서로 논의하고 토론한다. 그리고 충분한 조사와 이해를 토대로 작업을 한땀 한땀 꿰어 나간다.



인터뷰

안무가 허성임

허성임 안무가와 그래이스 엘렌 바키 안무가가 1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연구하여 탄생한 작품이라고 했는데, 작품을 제작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래이스는 63세의 나이로 수년간 많은 병마를 겪었습니다. 12년의 우정으로 시작된 이번 작업에 그래이스와 저에게 많은 챌랜지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매운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못했던 그래이스는 한국에서 리허설하는 동안 생 밥만 먹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가 생각나기보다는 지극히 다른 접근 방법을 갖고 있는 저희 두 안무가의 각각의 생각의 영역을 확장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Aging body는 무엇이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50을 바라보고 있는 저로서 그리고 60의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그래이스의 몸, 그리고 무대를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다른 2, 30대 무용수들의 몸을 보며 에이징의 몸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르게 소화해 내고 있는지 등을 알아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기를 바라나요?

이번 작업은 간단한 손전등으로 만들어내는 그림자와 글리터한 옷에 반사되는 반사광들로 인간의 내면의 이야기를 만들어 봅니다. 감추고 싶은 어두운 면, 두려움, 죽음 그리고 이것을 찾아내어 밝은 곳으로 드러내어 올리는 작업입니다. 두려움 또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감정이고 이러한 함께 있어도 외로운 우리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의 모습, 또는 우리의 그림자들 일 수 있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아주 작고 짧은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작품 소재로 토끼를 고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토끼는 우리에게 옛적부터 아주 친숙한 동물입니다. 또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처럼 현실과 이상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 토끼는 순수한 이미지이고 우리가 잃고 있었던 순수를 찾는 여정으로 관객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물을 연기하는 만큼 몸의 움직임에 특별히 신경 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안무를 짤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창작했나요?

이번 작업에서 토끼가 갖고 있는 움직임 중에 끊임없는 바운스에 집중하여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작업은 관객이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움직임은 이 방향으로 관객을 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작업 또한 토끼가 갖고 있는 뒷다리의 바운스, 뜀 등이 움직임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며 움직임의 다이내믹 그리고 에너지의 증감이 갖고 오는 역동성을 기반으로 작품을 만들어 나갑니다. 물론 무용수 분들의 에너지 소모가 많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2023 창작산실 무용 분야 총평

스펙터클이 범람하는 무대에서 소실되는 춤추기 현상

김명현(무용평론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6편이 무대에 올랐다. 지난해의 경향이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 비교적 젊은 예술가들의 도전적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올해 신작은 창작자들의 연령대가 올라가며 안무가 개개인의 예술세계를 드러내는 작가주의적 성향이 짙게 드리운다. 그런 만큼 작품의 개성이 강했고, 완성도가 높았다.

우선 여섯 작품의 공통적인 면을 보자면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무용생태계에 큰 흐름을 이뤘던 스트릿댄스와 스포츠, 서커스 물결의 퇴조가 두드러진다. 힙합 문화가 주류 문화로 부상하며 스트릿댄스가 무용의 어휘로서 적극 수용된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타장르로부터 움직임 어휘를 발견하려는 수용적 태도는 발레 동작의 정형성으로부터 벗어나 안무가만의 고유한 어휘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모던댄스 시기를 거쳐, 일상의 움직임을 수용하며 장르의 전통과 관습을 전복하고자 했던 포스트모던댄스 시기 이후에 등장한 컨템퍼러리댄스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올해의 신작이 최근의 경향을 가장 앞서 반영하는, 반영해야 할 무대라는 점에서 타장르로부터의 수용이나 융합을 적극 내세운 작업이 없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올해의 창작자들은 모두 중진이라고 할 만큼 창작역량을 인정받아 온 이들이다. 그런 만큼 이미 자신들만의 예술관이나 창작방식, 움직임 어휘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타장르로부터 움직임을 발견해 내는 것보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 주요 과제였던 듯하다. 자신들에게 이미 익숙한 언어들을 변주하면서 각 장면을 연출하는 데 힘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무용 장르에서 가장 중시되는 움직임 어휘의 고안보다는 요소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조율하는 데 필요한 연출과 퍼포먼스에 역량을 집중한 것이 눈에 띈다.

연출 면에서 시각성이 두드러진다. 채도 높은 조명, 현란한 그래픽, 화려한 의상, 극장 전체를 스크린화하거나 체험 공간으로 만든다. 공간 연출이나 비주얼 효과를 강조하며 장면을 지배하는 시노그래피가 앞으로 나온다. 이런 시각적 연출은 움직임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작들은 전반적으로 강한 조형성을 보이고, 양적으로 풍성하며, 난도가 높다. 디자인 개념이 도입된 연출 장면에 어울리는 멋진 포즈와 중독성 있는 반복, 하나의 요소에 집착한 움직임 변주가 무대를 가득 채운다. 몸성, 신체성, 춤성 등 무용의 본질 요소로서 논의되던 움직임을 통한 표현이란 중심 명제는 희미하다. 인간 내면의 깊은 층위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어휘였던 몸짓이 임팩트 강한 시각적 사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물론 창작산실만의 경향이 아니다. 올해 처음 등장한 현상도 아니다. 최근 2-3년간의 무용 무대에서 대형화한 스펙터클이 눈에 띄게 증가해 온 일면이다. 추측건대, 디지털 문명이 가져온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비주얼 문화가 일상에 파고든 영향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동류의 인간보다 기계와의 소통이 늘어나며 정보습득과 관계맺기에 있어 시각에의 의존이 높아진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가장 지원금이 많은 창작산실 무대이기에 이런 대형화, 스펙터클화는 레퍼토리 확보라는 창작산실의 지향점에 부합한 결과라 생각된다. 문제는 이것이 시각은 물론 청각, 촉각, 다중감각을 자극하는 실험들이 활발했던 포스트 씨어터 운동의 경향에서 한걸음 물러서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만의 현상일 수도 있겠으나 2024 창작산실의 행보에 벌써부터 우려와 기대가 함께한다.

개별 작품들의 완성도는 예년을 웃돌았다. 작가주의적 성향의 작품들이 저마다의 스타일과 미장센, 퍼포먼스로 웰메이드 작품의 면모를 갖추었다.

가장 큰 화제작은 정훈목 안무가의 <Yaras>(1월 27-28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이다. 관객들 사이에 극심한 호불호를 불러일으켰다. 기술진보가 가져올 인류의 미래를 낙관하지 않는 정훈목의 <Yaras>는 야라라는 가상의 부족을 등장시켜 현재와 미래를 뒤섞고, 원시성과 문명성을 뒤섞어 인류문명의 본성을 그리는데, 이들의 세계는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은 정신병리적 디스토피아다. 의미의 선명함을 지향하지 않는 정훈목은 미지의 크리처, 전신 타투, 화려한 의상, 불쾌한 소리, 로봇 생물을 등장시키고 괴기스러움과 빼어난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미장센을 전면에 내세운다.

야라족은 유령처럼 보이다가도 유럽 귀족들처럼 보이고, 야생의 원시부족 같기도 하며, 로봇 개와 로봇 새를 만들었을 정도로 나름의 문명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적 외관을 가졌으면서도 기괴한 소리를 낸다. 이렇게 원시성과 문명성을 섞고, 인류종과 비인류종을 섞고,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섞어 원인도, 증상도, 방향도, 목적도, 결과도 명확하지 않은 카오스의 역사를 그린다. 하나의 의미로 수렴되지 않는 불확정성을 의도한 연출은 오랜 유럽생활에서 획득한 차별화되는 감각을 드러낸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도, 감각적으로도 선명하지 않다. 여기서 호불호가 발생한다. 누군가는 독보적이라 할만큼 새로운 비주얼과 연출 감각으로 가득한 무대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누군가는 의미적으로도 감각적으로도 수렴되지 않는 무대를 불쾌해한다.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한 평가나 이 작품이 무용계에 미칠 영향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정훈목을 주목해야 하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정형일 안무가의 <The Line of Obsession>(2월 17-18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은 발레 무용수들이 추구하는 완벽에의 강박과 집착의 세계를 발레 그 자체를 상징하는 백조의 호수와 추상미술의 선구자 몬드리안을 불러들여 펼친다. 몬드리안의 회화를 보는 듯한 수직과 수평의 선을 교차시킨 거대 조형물을 설치하고, 빨, 노, 파, 초 등 몬드리안이 사랑했던 색을 이용하여 공간을 기하학적으로 연출한다. 발레의 정형적, 관습적 움직임을 버리고 무용수들의 뛰어난 신체와 유연성을 이용하여 선이 강조되는 움직임들로 가득 채운 장면들이 선명한 색조의 무대와 함께 화려하다. 점프와 회전 없이 오직 선을 만들어 내는 움직임으로 꽉꽉 채우고, 복잡한 스텝 시퀀스를 반복하며 몰입도를 높이는 등 안무가의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시각적 세련됨으로 관객 접근성을 높였다. 근래에 본 창작발레 중 빼어난 작품이었다.

그러나 동작의 양적 공세는 '강박'에 가닿지 않는다. 비슷한 템포(tempo)와 템퍼(temper)를 가진 동작과 장면들의 변화가 밀도를 높이며 정서적 새로움으로 환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를 읽으려고 책을 펼쳤는데 시어(詩語)보다 멋들어진 필체의 캘리그래피만 보이는 격이다. 가장 아쉬운 점은 추상미술의 거장 몬드리안의 세계가 작품과 교차하지 못한 점이다. 몬드리안은 회화의 개별 요소들을 가장 본질적인 선과 색으로 환원시켜 새로운 회화를 창조한 추상미술의 선구자다. 이런 몬드리안을 발레에 적용할 때, 몬드리안의 환원주의적 방법론이 발레에는 어떻게 적용될까를 기대하게 된다. 몬드리안을 그저 시각적 상징으로만 사용한다면(안무가가 선호하는 선적 움직임을 위해) '선에의 강박'을 표현하기 위해 굳이 몬드리안을 빌려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최진한 안무가의 <a Dark room>(2월 2-4일,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은 불안이 일상인 현대인들의 개인 공간을 그들의 내면세계가 표출되는 하나의 우주로 설정하여 초현실주의적 그래픽 아트로 가득 채우고, 반복, 변주되는 포즈 위주의 움직임으로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정신병리적 행동을 연출한 작품이다. 그동안 개미, 토끼굴, 돼지왕 등 익숙한 텍스트에 등장하는 이종(異種)존재들에 비유하여 우울한 현대인의 자화상을 연출했었다면, 이번 작품에서 안무가는 스타일리시한 공간 및 움직임 연출로 내면의 우울한 정서를 가볍게 풍경화한다. 블랙박스 극장에 삼면을 메운 화이트 월은 공간의 폐쇄성을 연출하고,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알록달록한 전신 보디수트는 강한 개별성을 가졌으면서도 익명화한 개개인을 나타낸다. 그리고 포즈, 포즈, 포즈로 이어지는 움직임과 스텝&턴의 변주로 리드미컬하게 흐르는 움직임은 불연속성의 시공간과 고립, 갈 곳 모르고 방황하는 소외된 존재를 그린다. 카세트 테이프와 별똥별, 조각난 석고상, 고흐의 의자, 브라운관 TV, 화려한 꽃병, 좌초한 선박, 비행선 등 빈티지 감성의 팝아트적 그래픽과 만화경을 보고 있는 듯한 그래픽 아트는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었고, 각 장면의 변화를 반영하는 사운드는 작품의 흐름을 조용히 보조했다. 마지막 장면에서 안무가가 머리부터 긴 천을 두르고 유령처럼 등장하며 미동도 없이 서있었던 장면은 오히려 처절한 절규처럼 느껴졌다. 에필로그 장면에서 에나멜 소재의 화이트 수트로 한껏 멋을 내고 등장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몰개성하게 보인 것도 컬러풀한 내면을 덮어버리는 무채색의 외면으로 해석되었고, 팝아트적인 비주얼이 즐거움을 주면서도 우울이 전염병처럼 번진 현대사회의 한 단면을 날카롭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동어반복을 계속하는 움직임과 장면연출에서 주제적 깊이나 다이내믹이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키네틱 아트적인 퍼포먼스였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허프로젝트 허성임 안무가의 <토끼는 어디에 있나요?>(3월 1-2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는 그녀 특유의 최소한의 요소들을 변주하며 장면을 연결하고 확장시키는 에너지 넘치는 작품이다. 반짝이 의상을 입고 엉덩이를 씰룩거리며 하나의 동작을 반복하는 시그니처 요소들에 종이 박스 옷을 입은 토끼와 검은 그림자 놀이를 더하여 동화적으로 연출했다. 손전등으로 비추는 어두운 무대에서 인간의 어두운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순수를 갈망하는 이중성이 만들어 내는 진한 외로움의 랩소디다. 전작들에 비해 더 어두운 세계를 다루면서 동화적인 접근으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런 이중적 성격은 끝내 만나지 못하는 두 세계만큼이나 장면들 사이에 이어지기 힘든 어떤 틈을 만들고 의미는 탈구된다. 움직임은 전작들에 비해 내용과의 개연성이 약하고, 수행성보다 유희성이 두드러지며 발화는 힘을 잃는다. 그림자 놀이와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 육성으로 부르는 노래의 감성적인 표현은 어두운 욕망과 순수라는 상반된 두 세계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지 못한다. 45분 정도의 작품인데도 짓다 만 매듭처럼 헐겁다.

PCPC 안영준 안무가의 <애니멀>(1월 17-18일,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을 인간 내면의 동물적 욕망에서 원인을 찾는 작품이다. 안무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꼬리, 폭력, 축제라는 세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품을 전개한다. 무대 뒤편에 둥그런 정글짐을 두고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인간을 표현한다. 권력의 맛을 본 인간들에게는 꼬리가 생겨난다. 허리에는 줄을 묶어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인 꼬리를 표현한다. 이 꼬리는 나중에 폭력의 도구로 사용된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초반의 움직임은 꽤 신선했다. 그러나 작품이 전개될수록 클리셰적 재현이 가득하다. 무용수들의 퍼포먼스는 뛰어나지만 식상한 주제에 단조로운 내러티브, 상투적 표현은 매력이 없다. 폭력의 표층이 아니라, 폭력이 발생하는 조건과 메커니즘에 대해 더 사유했어야 한다.

순헌무용단 차수정 안무가의 <반가: 만인의 사유지(思惟地)>(3월 1-3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는 반가사유상을 문화재로서가 아니라 사유와 성찰을 잃어버린 현대인에게 반성을 자극하는 상징적 실체로서 제시한 아이디어가 신선했다. 이머시브 공연을 표방한 작품은 반가상이 선정에 든 상태를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5개의 전시 공간을 만들고, 관객이 이동하면서 관람하도록 했다. 로비에서 제의적 퍼포먼스가 끝나면 관객은 무대의 가로선을 분할하여 만든 장면들을 지났다. 모래와 작은 돌, 바닷물결 동영상, 발목이 잠길 정도의 수조, 꽃과 욕조 등을 배치했고 무용수들은 그 앞에서 불보살들의 원력을 나타내는 무드라를 차용한 손 움직임이 눈에 띄는 동작들을 보여주었다. 관객들은 자유롭게 사진을 찍으며 관람할 수 있었다. 마지막은 객석에서 20여 분 정도의 퍼포먼스를 관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각하는 몸과 현대의 존재방식에 대해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바랐던 안무가의 의도와 달리 관객은 '몰입'의 체험을 전혀 하지 못했다. 관객 체험에 대한 정교한 설계와 장치가 없는 전시관람 형식의 공연은 무모했다. 관람객의 수는 너무 많아서 성찰과 관조의 시간을 갖지 못했고, 관람해야 할 대상과의 거리는 턱없이 좁았다. 이동의 자율성이 결여된 확정된 관람 순서에 따라 이동했는데 장면들간의 콘셉트도 연결성도 보이지 않았다. 극장을 떠난 장소에서 그 장소성을 체험하는 공연이 아닌, 극장 내부에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형식으로 이머시브 공연을 만들 때에는 관객 체험의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관객이 작품과의 관계 맺기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정교한 설계와 장치가 필요하다.

마지막 무대에서 보여준 깨달음이란 사건을 형상화한 다이내믹한 춤추기의 무대는 인상적이었다. 사실 사유, 즉 생각한다는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적이나 매우 큰 에너지를 요구하는 동적인 행위다. 바다가 고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거칠고 사나운 것처럼 사유도 그와 유사한 양태를 가졌다. 그런 사유의 속성을 움직임으로 형상화하는 다이내믹을 보여주는 일반 무용공연의 형식이 더 어울렸을 듯하다.

잔뼈 굵은 한국 무용단들의 신작 무대: 2023 창작산실 신작

양은혜(스튜디오 그레이스 대표)

정훈목의 <야라스(Yaras>는 Covid-19 팬데믹 이후로 미래에 대한 안무가의 관점을 담은 작품이다. 'Yaras(야라스)는 가상의 종족을 지칭한 단어인데, 원시성과 비인격적인 특징이 융합된 종족으로 미래와 과거의 시제가 한 몸에 섞여 있는 기괴한 모습을 지닌 집단으로 비춰진다. 작품의 홍보글에서도 제시하듯, 트랜스휴머니즘과 인류애를 그린 첫 번째 시리즈 작품으로 상반되는 시제의 대치 구조를 통해 앞으로도 여러 작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독특한 것은, 미래의 인류를 상상하지만 그것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묘사되고 있는 점이다. 개인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미래상에서 가상의 종족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독특한 설정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았을 때 이 집단의 모습은 신체의 기능이 기술로 인해 증강된 트랜스휴머니즘보다는 이를 넘어선 포스트휴머니즘의 맥락 속에 구현된 인물이었다. 어느 시대의 인간상을 과거와 대치관계로 놓든 간에 정훈목의 주요 키워드는 인류애, 따뜻함에 있을 것이다.

무대는 크게 전시장을 연상시키는 구도로 사족보행 로봇을 중앙에 두고 이를 감상하는 인물과의 긴장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전복되며 '누가 바라보는가? 누가 주체가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장면은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작품의 전개에서는 언제 무엇이 나타나거나 소리가 날지 모르는 긴장감을 계속 높인다. 관객은 기괴한 종족의 모습과 불편한 소리를 감내하면서도 눈을 뗄 수 없다. 또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는 긴장은 어느새 무대를 뚫고 현실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연출해낸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장면전환이 너무도 가볍게 이뤄진다는 점, 등장한 오브제가 무대에서 서사를 갖기 전에 등장하거나 사라져 장면이 급히 전환된다는 점에서 시각적, 청각적 자극 이상으로 안무가의 인류애에 대한 서사가 드러나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PDPC의 <애니멀>은 '카니발(canival)'이 작품의 주요 키워드이다. 카니발은 '사육제'로 기독교 국가의 사순절 직전 축제로 봄의 제전이자 일상을 탈피하여 '역설'이 이뤄지는 기간이다. 기존의 질서는 사라지고 오히려 질서의 앞뒤, 위아래를 뒤집는 이 카니발은 인간의 욕망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허용하는 대신 자각과 성찰로 넘어가는 통로이기도 하다. 노골적으로 드러난 작품명과 홍보글의 카니발 속에 드러나는 식인행위로 우리의 모습을 은유한다는 점에서 작품을 관람했을 때 본 작품은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질서로 충만하다. 이탈이 없고 작품의 전개는 군무로 이뤄진다. 주제와 표현방식이 상반되어 아쉬운 작품이었다.

댄스프로젝트 탄 탄타단Tan Tanta Dan의 <a Dark room>은 누군가의 의식의 방에 관객을 초대한다. 문이 없는 화이트 룸에 온갖 색이 마블링 되어 있는 존재들이 덩어리로 존재하며 이들은 따로 또 같이 움직인다. 얼굴까지 모두 패턴으로 가려진 이들의 모습은 이미 개인성은 지워져 있으나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무용수들이 움직일수록 사람이 아닌 흰 공간에 색이 섞이고 패턴이 바뀌며 의식 속에 계속 움직이는 생각의 패턴을 시각적으로 보는 듯하다. 이 방은 일상의 오브제가 떠다니기도, 시계의 바늘은 반대로 돌기도 하며 실제의 것들이 색깔로 존재해 이 방 주인만의 의식의 흐름으로 패턴화되어 움직인다. 무대, 안무, 음악, 의상은 앞뒤, 좌우, 시작과 끝의 기점들을 지워 진행형의 모습만을 절정으로 보여준다. 모티프가 휘발된 한없는 루프의 안무는 화이트로 마무리된다. 화이트의 일상복과 정지 상태의 모습으로. 최진한 안무가는 솔로에서 군무로 작품 활동을 해오면서 최진한만의 색깔을 군무에서 찾는 데 안무가도, 관객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a Dark room>에서야 안무가의 색깔이 다시 살아난 작품이었다.

정형일 Ballet Creative의 <The line of Obsession (Mondrian)>은 <백조의 호수>에서 드러난 인간의 욕망을 몬드리안의 회화와 함께 추상적으로 연결하여 현대발레의 미를 극대화한 작품이었다. 고전 발레에서 무용수에게 극도로 요하는 수직성과 수평성을 몬드리안의 선의 질서와 융합한 아이디어는 매우 기발하다. 단체의 대표인 정형일은 본질에 다가가는 것으로써 수직성과 수평성에서 '인간의 표현 한계를 넘어가고자 하는 한계와 강박적인 반복'을 드러낸다. 무대에는 관객에게도 익숙한 몬드리안의 추상회화가 무대세트와 조명으로 디자인되어 표현되기에 편안하게 작품의 미를 음미하며 관람할 수 있다. 그러나 무대의 전개가 계속해서 몬드리안의 '선(line)'으로 전개된다는 데서 안무가의 해석이 옅어진다. 화려한 추상회화의 작품이 장면별로 등장하나 어느새 회화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안무가의 아이디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안무가만의 수직성과 수평성을 재구성하는 장면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순헌무용단의 <반가: 만인의 사유지>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로비에서 시작해 무대 뒤로 입장하여 극장 객석으로 이동하는 퍼포먼스였다. 창작한국무용으로 '반가사유상'을 작품의 주요 소재로 안무가는 '생각하는 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극장에서 관객 이동의 방향과 관람 공간을 달리 사용한다는 점에서 익숙한 공간에서 새로운 보기 방식을 제안한다. '이머시브'라는 점을 강조한 데 반해 이동형에 가까웠던 본 작품은 '반가', '생각하는 몸', '이머시브'를 연결시키기 위해 장면 구성과 퍼포밍 공간, 이동에서의 경험 등의 의도를 좀 더 결속시켰다면 좋은 연출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동과 터치를 통한 몰입보다 보기에 방점이 있었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허프로젝트의 <where is the Rabbit?>은 토끼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상징성을 최소한의 무대에서 대비되는 소재를 대치시키며 극도의 반짝임을 표현했다. 메인 무용수 그레이스는 허성임 안무가와 오랜 기간 안무가와 무용수의 관계였으나 본 작품에서는 그 반대의 관계이자 협업자이다. 오랜 기간 활동해왔던 안무가의 무용수의 관계가 뒤바뀌는 작업은 이 둘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이다. 인터뷰에 의하면 특히 그레이스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자 그가 여러 차례 질병으로부터 극복해온 시간은 작품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다. 무용가로서 몸의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병마를 극복하며 생존해 있는 몸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 몸에 대한 여러 질문을 하며 무대를 바라보게 된다. 무대는 놀랍게도 대극장에서 최소한의 무대장치로 극대의 효과를 이끌어낸다. 마치 연습실에서 했던 리허설을 무대 위에 올려놓은 듯 레어하다. 무대 앞에 놓인 다섯 개의 손전등을 무용수가 하나씩 켜자 다섯 개의 흰색 원이 하나의 커다란 원으로 합쳐져 무대 벽에 비추고, 그 앞에 등장한 토끼는 다섯 마리의 토끼로 존재한다. 토끼의 걸음과 뜀 동작을 모티브로 개발된 바운스 동작은 네 명의 무용수들이 은색 반짝이 바지에 자켓을 걸치고 나와 상체를 떨군 채 엉덩이를 바운스하며 표현된다. 토끼의 운동성은 반짝이로 무대에 가득 채워지고 무대가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어진다. 빛과 어둠, 나이듦과 젊음, 외로움과 반짝임 등 상반되는 요소들은 무대에 절묘하게 드러나며 그 중앙에는 그레이스의 어글리하면서도 최대의 반짝임을 드러내는 춤이 무대의 중심을 잡는 역할로 존재한다. 그러나 무대만 보았을 때 이것들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그레이스의 나이가 대극장 무대에서 가늠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무대의 균형을 잡는 메인 무용수의 움직임이 매끄럽지 못하고 다른 무용수들에 비해 신체 힘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작품의 균형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배경이 무대에 다 드러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작품의 소개글과 홍보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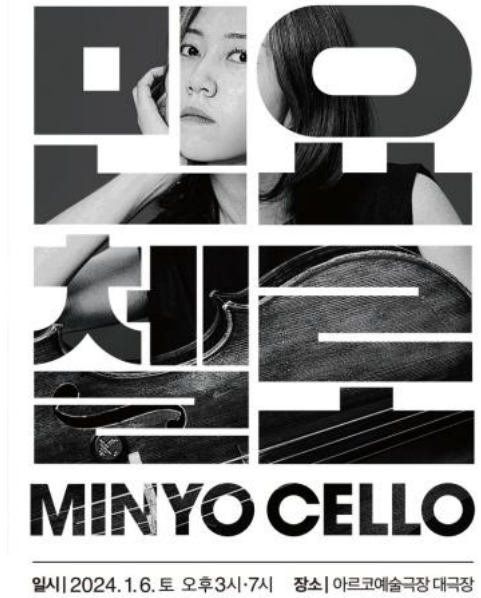




임이환

민요 첼로 (MINYO CELLO)

일정	2024년 1월 6일(토)
공연시간	**토** 오후 3시, 7시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티켓	전석 44,000원
예술감독·작곡	임이환
연출	황현우
밴드마스터	김현우
무대감독	정승환
음향감독	이은호
조명감독	김병구
영상감독	리인규
제작총괄	박연희
책임 프로듀서	박혜림
출연진	임이환, 김현우, 박가람, 박성근, 박유빈, 신아연, 이호찬, 하범석, 한동윤



클래식의 얼터너티브, 임이환의 <민요 첼로>

<임이환의 민요 첼로(MINYO CELLO)>는 한국의 전통음악, 서양의 전통악기 그리고 현시대성을 지닌 악기들로 구성되어 시대의 흐름을 앞서나가는 임이환만의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민요를 다섯 대의 첼로와 밴드 음악으로 새롭게 해석하며, 관객에게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는 폭넓은 공감을 전하고자 한다.

임이환

'빅바이올린 플레이어 (빅바플)' 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작곡가이자 첼리스트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들고 연주해오고 있다. 현재는 한국의 민요를 첼로로 재해석하여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융합하는 <민요 첼로>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인터뷰

예술감독 임이환

다른 첼로 공연과 차별화된 연출이나 공연의 특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퀸텟 구성(바이올린2,비올라1, 첼로1, 콘트라베이스1)의 전형성에서 벗어나, 첼로 5대를 활용한 오케스트레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첼로는 저음 악기라는 인식이 강한데, 피아노와 하프 다음으로 가장 넓은 음역대를 가진 악기입니다. 무려 4옥타브까지 활용이 가능한 악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현악 연주법에서 벗어나, 현을 뜯거나 긁는 등 다양한 주법들의 시도들을 곡 전체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첼로로 민요를 해석하고자 했던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두 각자의 창구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음악을 듣는 플랫폼도, 장르도 모두 다양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작업하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찾은 것이 바로 <민요>였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음악. 특정한 사람의 창작이 아닌, 취향과 즉흥성으로 생겨난 이 음악을 가지고 저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민요 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관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관람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많은 민요 음악 중에서, <놀이>민요를 중심으로 작업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 위에 새로운 화성과 리듬으로 리패키징 하듯이 작업했는데요.

어렴풋이 알고 있던 짧은 멜로디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했는지 상상하면서 들어주시면 더 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준영

시선 si, Sonne!

일정	2024년 1월 26일(금) ~ 27일(토)	**출연진**	박경주, 황순미, 신원국
공연시간	**금** 오후 8시 / **토** 오후 5시		
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관람연령	13세 이상 권장		
티켓	전석 20,000원		
예술·음악감독	주준영		
연출	이인보		
작곡	주준영, 정세진		
지휘	최혁재		
안무	심주영		
영상	손현규		
무대	유주영		

'나를 쳐다보는 그 눈, 그 눈이라니!'

타인의 시선과 자기검열에서 오는 압박감이란 오늘날 한결 더 심화되었을 뿐인, 사회적 동물인 인간으로서 늘 마주해왔던 고통이다.

이 음악극은 안톤 체호프의 독특한 단편 '어느 공무원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익숙해 마지않는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몇몇 인간상을 엿보게 한다. 원작의 어두운 유머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연출을 입고 더욱 짙게 표현된다.

주준영

한국과 프랑스에서 작곡을 공부하고 영화, 연극, 애니메이션, 무용 음악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작업해오고 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음악을 만들면서, 한 작품안에서 일어나는 장르의 충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실험의 일환으로 음악극 '시선 si, Sonne!'을 제작하게 되었다.

인터뷰

예술·음악감독 주준영

작품의 제목인 <시선 si, Sonne!>의 뜻이 궁금합니다.

한국어 제목 '시선'은 단어 그대로 주인공들을 압박하고 평가하는 타인 또는 내면의 시선을 뜻한다. 시선에 따른 행동요령인 '눈치' 또한 극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인데, 각색을 맡은 프랑스 작가에게 이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데에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프랑스어 제목 'si, Sonne!'은 '그래, 소리를 올려!'라는 뜻이며 한국어 제목과 아주 비슷한 발음을 갖는다. 여러 시선이 가하는 무게에 으스러지고 마는 주인공들이 외칠 법한, 아니 외쳤으면 하는 항거의 소리로, '너 자신의 (목)소리를 좀 내라고!'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하나같이 시련에 굴복하여 파멸적인 결과를 맞는 주인공 중 용기 있게 맞서는 자가 있는지 공연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원작 <관리의 죽음>을 각색할 때 가장 신경 썼던 포인트가 있다면?

원작의 길이는 두 쪽으로, 그 자체로는 적당한 길이의 공연을 만들기에 다소 짧았다. 주인공의 내면에 깊게 파고들어 그의 서사를 늘리는 식의 각색을 하면,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한 그의 심리상태를 해석하여 일종의 정답을 내어야겠다는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원작을 그대로 두되, 주인공의 주변인의 이야기를 창작하여 덧붙였다. 여기서 고심한 점은 체호프의 이야기가 가진 독특한 에너지, 어두운 유머와 갑작스러운 전개의 특징을 가지면서 각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성을 잃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병렬과 그것에서 나오는 음악적 흥미라는 이 음악극의 본질적인 목표를 각색 단계부터 염두에 두고 서로 다른 음악을 작곡해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음악이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는 내용을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극 중 애니어그램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데 애니어그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예나 지금이나 자기 자신이 가장 알기도 어렵거니와 또 가장 흥미가 가는 대상이다. 이렇게 내가 나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무수히도 많은 유행을 만들어 왔다. 사주팔자, 히포크라테스 체액 기질, 사상체질, 별자리, 혈액형별 성격 등등... 최근에는 MBTI가 있겠다. 애니어그램은 MBTI의 고대 버전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고대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기원설까지 그 탄생에 대한 여러 가설이 있다. 인간의 성격을 몽상가, 완벽주의자, 조력가, 성취가, 예술가, 사색가, 충성가, 낙천가, 지도자의 아홉 가지로 분류한 분석 도형이다. 극중 등장인물인 고위 상관은 호전적인 인간형인 성취가, 사소한 실수에 괴로워하는 이반은 완벽주의자, 비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반의 부인은 몽상가로 분석하여, 이들의 성격에 고통이 가해졌을 때 나올법한 반응을 도출하였다.

고통, 수치심과 같은 인간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 애쓴 부분은?

극 중 인물들이 겪는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음악극의 주요한 넘버들을 작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니었다. 그러나, 음악 '극'의 특성상 분명히 인물들의 감정과 음악의 에너지가 같은 색깔로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 고통은 인간의 감정 중에 음악으로서 표현하기 비교적 쉽다고 할 수 있겠다. 밝음과 어두움의 성격이 분명하고 극단적인 쪽으로 치우쳐있기 때문에, 어떠한 악기들의 텍스츄어를 쓰든지 간에 최종적인 음색 또한 어두운 방향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에 반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음악 자체로 표현하기가 까다로운 감정이며, 굳이 그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해야 할 이유도 없다. 다만 인물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장면에는 오히려 주인공을 조롱하는 듯한 음악이나 그 감정을 관조하는 느낌의 음악으로 살짝 방향을 틀어 짝지어 놓았다.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세지는?

우리에게 10그램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개미에게는 깔려 죽을 수도 있는 무게다. 사람도, 사람마다 견딜 수 있을만한 고통의 정도와 수치심을 유발하는 포인트가 각자 다르다. 누구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시선의 압박일 수도 있는 문제들에 하나같이 극단으로 치닫는 이 등장인물들을 보며 관객들은 한심해 할 수도 있겠고, 깊이 공감할 수도 있겠다. 자유롭게 감상해 주셨으면 한다.





오예승

크로스 콘체르토 프로젝트

일정	2024년 1월 27일(토)
공연시간	**토** 오후 3시, 7시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티켓	전석 40,000원
예술감독·작곡	오예승
작곡·피아노	조윤성
프로듀서	임희연
무대	이근진
음향	송민우
조명	최선영
출연진	조윤성, 신명섭, 전창민, 오진원, 신동진, 박지우, 송정민, 주영해, 송태진, 이다은, 임성윤, 이승희, 이수아, 조옥근



뮤직 웜홀, 클래식과 재즈를 잇다

<크로스 콘체르토 프로젝트>는 클래식 작곡가 오예승과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의 협업으로 창작된, 경계가 없는 음악을 통해 '클래식 음악계' 혹은 '재즈 음악계' 등의 특정 음악 '계' 안에서만 폐쇄적으로 순환하는 창작과 연주를 지양하고, 이 경계로 인해 놓칠 수 있었던 작업들과 창작 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오예승

작곡가 오예승은 현대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영상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어법으로 표현하는 작곡가다. 연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한 후 도미하여 뉴욕대학교에서 작곡 및 영상음악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UCLA에서 작곡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임지선, 이안 크라우스, 폴 치하라를 사사하고 현재 연세대, 상명대, 전북대 강단에 서고 있다. 화음챔버오케스트라, 현대음악앙상블소리, 어바웃오케스트라 등의 위촉을 받았고, 심포니송 상주 작곡가를 역임했다. 또한 극 콘서트 창작집단 <판이오>의 일원으로 다양한 공연기획과 작 편곡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오페라 <김부장의 죽음>, <파파가든> 등이 있으며 최근엔 오페라 카르멘을 재즈와 플라멩코, 연기가 어우러지는 작품으로 재창작한 <카르멘 - 어느 살인자의 고백>을 기획, 제작함으로써 공연제작자로서의 길을 시작하였다.

인터뷰

예술감독·작곡 오예승

재즈와 현대 클래식을 어떻게 접목시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간혹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질문을 받으면 한결같이 중학교 때 번스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라고 답을 하곤 했습니다. 번스타인의 음악은 절충적이며 감성적이라고 설명이 되곤 하는데, 클래식과 재즈, 작곡가가 활동할 당시의 대중음악적 요소를 두루 담고 있습니다. 시작이 그래서 그런지, 현대음악을 한참 공부할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는 제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 같습니다. 영화음악 공부를 하면서는 더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다양한 작업 방식들을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했었는데요. 그래도 저 혼자서는 힘든 일이었는데,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드디어 실현해 볼 용기가 났습니다.

제목이 <크로스 콘체르토 프로젝트>인 이유는?

사실 클래식이나 재즈가 어떤 악기로 연주하냐에 따라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왠지 더 클래식에 많이 사용될 것 같은 악기와 대중음악에 많이 사용될 것 같은 악기들은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총 8개의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중 일렉기타가 솔리스트로 부각되는 곡을 클래식에 기반을 둔 제가 곡을 쓰고, 바이올리니스트가 부각되는 곡을 이 공연의 다른 한 축을 맡고 계신 조윤성 재즈 피아니스트가 썼습니다. 이런 시도를 제목에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싶어서 크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장르가 다른 만큼 창작 과정이나 악기 구성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고려하였나요?

악기 구성 자체는 오히려 수월하게 진행했습니다. 밴드 쪽은 피아노, 베이스, 드럼 기본이 되는 삼중주에 일렉기타, 색소폰을 넣고, 보컬 곡이 있어서 보컬을 넣었습니다. 클래식 파트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클래시컬한 악기라고 생각되는 스트링 앙상블로 구성을 했습니다. 모든 연주자 한 분 한 분이 모두 연주자이자 작곡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창작 과정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제가 늘 하던 클래식 작업들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클래식 연주자들에게 악보를 드릴 때는 가능한 자세한 정보를 악보에 모두 넣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번엔 오히려 가능한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곡의 정체성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남기고 덜어내고 비움으로써 그 공간에서 각 연주자분들이 자신의 역량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순한 즉흥연주의 병렬적 연결이 되지 않도록 형식적으로나 기법적으로 변화를 넣어보려 하였습니다. 이건 제 곡에 대한 부분이고, 조윤성 선생님 곡의 작곡 방식은 콘서트에서 보여드리려 합니다.

클래식과 재즈의 교류가 중점이다 보니 그 과정도 새로웠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모든 리허설이 감동과 놀람의 연속이라는 게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일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악보를 자신의 곡인 양 연주하는 모습들을 보면 함께 연습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경이롭고 즐거웠습니다. 연습을 할 때마다 같은 음악의 다른 버전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가끔은, 제 생각에, 리허설에서 넣으셨던 즉흥 선율이 본 공연 때보다 좋았다 싶었던 때도 있어서, 매 리허설을 모두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곡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클래식 공연을 위해 썼었던 곡을 이번 공연을 위해서 편집한 곡이 있었는데, 제 습관 상 아무리 줄여도 악보가 열 장이나 되었는데, 이게 연주자들의 역량을 오히려 제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앙상하게 뼈만 남겨서 네 장으로 줄이고, 그렇게 줄인 악보를 통해 연주된 곡을 들으며 흡족했던 것이 새롭고도 재미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나요?

이번 공연을 기획하고 쇼케이스를 거치며 많이 받았던 질문은 '이 <크로스 콘체르토 프로젝트>에서 일어나는 재즈와 클래식의 만남이 이전의 다른 시도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기획할 때는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할 거라고 더 생각했었습니다. 군터슐러가 자신이 추구하는 '서드스트림' 음악을 직접 설명한 긴 목록에서처럼 , 클래식 선율에 재즈 리듬 붙이기도 아니고, 화성 바꾸기 등등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여러 다양한 공연들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클래식과 재즈가 융합되는 많은 예들을 보고 들으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모두가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크로스 콘체르토 프로젝트>에서 보여드리는 방식은 그저 오예승이라는 작곡가와 조윤성이라는 작곡가의 방식일 뿐이라고 생각하시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음악은 그저 모든 음악가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장르, 악보,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즐기는 방향으로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동료 작곡가 한 분이 저를 응원하는 이유가, 제 공연을 보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 나도 해도 되겠다' 싶은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전 이 공연이 앞으로의 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런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재발(이진원)

UN/Readable Sound

일정	2024년 2월 2일(금) ~ 4일(일)	**출연진**	가재발(이진원)
공연시간	**금** 오후 8시 / **토** 오후 7시 / **일** 오후 7시		
장소	THILA Ground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티켓	전석 15,000원		
언리얼엔진 비주얼	조현준(노즈스튜디오)		
라이팅	록수 LOKSU		
스토리텔링	최승린		
프로듀서	Nine Choi		
스태프	박다희, 김경미, 황선영		
자문	DGURU, 이승환		

2024.02.02金 — 02.04日
THILA GROUND 2 TOJEONG-RO 9-GIL
MAPO-GU SEOUL 04075



나만의 '사인파' – Sound is the New Music

사운드 아티스트는 진동과 노이즈로 세계를 감각한다. 자칫 난해하고 새롭다. <UN/Readable Sound>는 그 세계를 사인파를 기반으로 한 사운드와 언리얼엔진이 구현한 비주얼로 눈앞에 펼쳐 보인다. 작품 속 세계는 작가의 사운드 퍼포먼스에 연동해 변화하며, 현대와 현대인의 시야와 감각을 불가해하게, 하지만 공감할 수 있도록 들려준다.

가재발(이진원)

가재발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운드 아티스트다. 한국 전자 음악 씬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사운드 엔지니어, DJ, K-POP 프로듀서, 미디어 아티스트로 스펙트럼을 넓혀 왔다. 뉴욕에서 우탱클랜 등의 레코딩 작업에 사운드 엔지니어로 참여한 것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영국에서 발매한 테크노 곡 'MULL'으로 한국인 최초로 테크노 음악 챠트 Tune In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돌연 태싯그룹을 결성하며 미디어 아티스트로 변신했다. 태싯그룹은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미디어 작품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지금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22년 가재발은 솔로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왔다. 밀도 높은 사운드를 디스토피아 적인 게임 비주얼로 풀어낸 오디오 비주얼 작업들을 발표하고 있다.

인터뷰

가재발(이진원)

파트별로 주제를 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저는 25년 넘게 음악 작가로 살아왔습니다. 스튜디오 레코딩 엔지니어로도 일했고, 테크노 음악가, DJ, 전자음악, 미디어아트, K-팝까지 다양한 장르와 분야를 거쳤습니다. 또 대구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공부하고 일했고 지금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그런 시간을 모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저와 제 작품이 관통하는 이야기와 세계를 주제별로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농담처럼 <가재발 월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극을 전부 혼자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준비했는지?

사실 저는 퍼포먼스를 혼자 이끌어나가는데 익숙합니다. 작가가 무대에 선다는 것은 작품을 완전히 내재화하고 장소, 시간, 분위기, 속도를 모두 내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려운 것은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는 스태프 한 명 한 명도 모두 하나의 세계라서 그들을 제 작품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묘미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화학작용이 나기도 합니다.

사운드 작품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위사 페스티벌의 2023년 테마가 'Sound is the New Music'입니다. 저는 '사운드'가 가장 새로운 형태의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이 감상자에게 멜로디나 하모니의 형태로 청각적 감동을 전달하는 장르라면 '사운드'는 몸으로 느껴지는 진동과 노이즈를 통해 새로운 감각과 감동을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디오비주얼이라는 개념이 생소한데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오디오비주얼은 사운드와 비주얼 요소, 그러니까 영상, 그래픽, 라이팅 등이 결합된 예술 형식입니다. 사실 오디오와 비주얼이 결합된 예술 장르는 많은데요, '오디오비주얼'은 작가가 사운드와 비주얼을 동시에 제어함으로써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거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UN/Readable Sound>의 경우는 언리얼엔진으로 구현한 세계 속의 요소들을 사운드와 매핑했습니다. 제가 연주하는 음악에 따라 영상 속의 세부 요소들이 변화하는 거죠.

작품에 사용되는 아날로그 모듈러 신디사이저는 어떤 악기인가요?

'모듈러'는 음악 제작 및 소리 디자인을 위한 작은 기기입니다. 각각의 모듈들은 특정한 작업이나 음향 처리를 담당하는데 작가가 필요한 모듈들을 선택해 연결하거나 해제함으로써 서로 다른 소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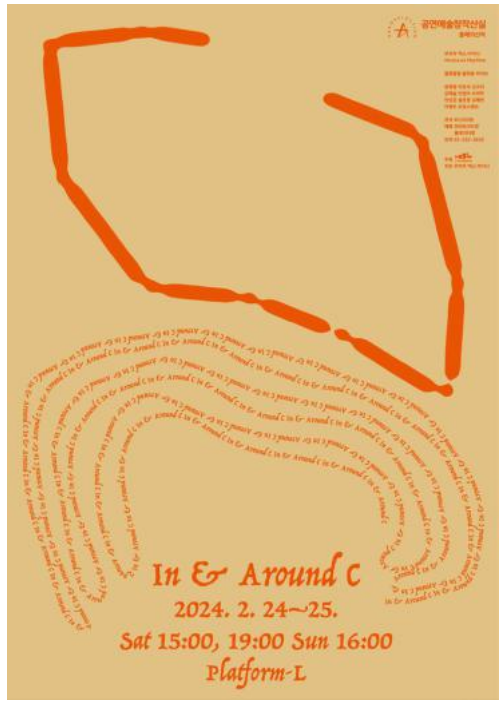




무지카 엑스 마키나(Musica ex Machina)

In & Around C

일정	2024년 2월 24일(토) ~ 25일(일)	**음향디자인**	이규헌
공연시간	**토** 오후 3시, 7시 / **일** 오후 4시	**무대디자인**	도현진
장소	플랫폼엘 플랫폼 라이브	**조명디자인**	신동선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영상**	김윤영
티켓	전석 40,000원	**기획홍보**	플티(주)
연출	장병욱	**출연진**	윤현종, 이호석, 김규리, 김예슬, 안정아, 추현탁, 안상준, 설호종, 김혜민, 아렌트 흐로스펠트
드라마터그, 소책자 제작	신예슬		
기획·구성	윤현종		
프로듀서	류혜정		
조연출	박현지		
무대감독	추명석		



‘음악적 아름다움’의 조각들을 찾는 여정

음악에는 서로 다른 기준음을 지닌 다양한 음악 체계들이 존재한다. <In & Around C>에서 각자의 기준음을 지녀왔던 열 명의 연주자는 테리 라일리의 <In C>를 연주하며 서로 다른음과 소리들을 넓게 포용한다.
그 다채로운 여정에서 음악가들은 예기치 못했던 ‘음악적 아름다움’의 조각들을 찾는다.

무지카 엑스 마키나

무지카 엑스 마키나는 전통에 단단히 발을 딛고 숙련된 공연 제작 기법으로 관객에게 공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공연 프로덕션팀이다. 〈기계장치의 음악〉(SPAF 초청작), 〈세컨드 스테이지〉, <3일간의 고음악 여행>, <스페인과 남미의 바로크 음악>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재즈와 고음악, 한국 전통음악, 전자음악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음악인들과 함께하고 있다.



인터뷰

대표 윤현종

제목의 의미를 소개해주신다면?

〈In & Around C〉는 'In C'와 'Around C'를 한데 모아 만든 제목이다. 먼저 'Around C'는 2019년 무지카 엑스 마키나가 테리 라일리의 'In C'에 영감을 받아 만든 사운드 퍼포먼스로, 수많은 소리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며 독특한 음향을 형성한다. 그리고 테리 라일리의 'In C'는 다양한 소리와 장르를 포용할 수 있는 곡으로, 무지카 엑스 마키나는 2021년부터 음악인 10인의 이야기와 그들의 음악을 수집하고 엮는 장치로 이 음악을 사용해왔다.

이 두 작업으로부터 출발한 〈In & Around C〉는 이전부터 무지카 엑스 마키나가 추구해온 '다양한 소리의 아름다움 찾기'라는 목표를 이어가며 여러 음악과 소리를 넓게 포용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In C'와 'Around C'와 더불어 한국 전통음악, 재즈, 전자음악, 유럽 고음악 등과 함께 살아가는 음악인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만들어낸 소리-음악을 엮어 선보인다.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 협업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여러 층위의 '다름'이 있었지만, 그 다름 또한 음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다름'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주요한 소재로 사용됐다. 음악가들 또한 다른 음악을 경험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연출팀 또한 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했다. 〈In & Around C〉 프로젝트에서 '다름'은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즐길 수 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다.

다큐멘터리, 관객과의 대화 등 독특한 세션들이 눈에 띄는데,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궁금합니다.

다큐멘터리 씨어터는 연출가 장병욱이 오랫동안 시도해온 연출-창작 기법이다.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오가는 사유, 진솔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공연에 녹여내고, 무대 위 배우나 연기자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의 서사를 좀 더 직접적으로 관객과 나눈다는 의미를 지닌다. 무대의 경계를 지우는 일은 물리적인 방법뿐 아니라 공연자와 관객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과정에서도 이루어진다. 즉 다큐멘터리 씨어터는 관객이 공연에 좀 더 가깝게 들어와, 친밀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장치이자 기법이다. 관객에게 정답 같은 이야기를 던지기보다는 순간순간 드러나는 감정과 이야기, 아름다운 순간들을 직관적으로 전달해 관객이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도록 했다. 관객과의 대화는 연주자와 관객이 다 함께 감상을 공유하고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두의 뒤풀이 같은 세션이다.

무지카 엑스 마키나가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 궁극적인 음악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와 음악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창작한다. 바로크와 그 이전 시대의 음악을 그 시대의 악기와 방법으로 연주하는 고음악-클래식 연주뿐 아니라, 일반적 의미의 '작곡'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 공연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특정한 장르나 전통에 국한되지 않는 열린 형태의 공연을 계속해서 창작해나가고 싶다.

이 작품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 되었으면 하나요?

무지카 엑스 마키나의 지난 작품 〈기계장치의 음악〉에서 선보이기도 했던 말을 우리의 대답으로 삼고 싶다. 존 케이지가 인터뷰에서 인용한 이마누엘 칸트의 말이다. "세상에는 의미가 없어도 되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웃음이고 하나는 음악입니다."

창작산실의 새로운 울림, 과거, 현재, 미래의 음악을 다룬 실험 무대

김진영 (음악비평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 지원 사업 '2023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신작'의 음악 부문 5개 작품이 1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국립극장, 틸라 그라운드, 플랫폼 라이브에서 선보였다. 이번 음악 분야 선정작들은 음악 장르와 스타일을 융합하고, 기술을 사용해 새로운 소리를 탐구하고, 학제간 협업을 통해 미디어, 설치 등을 통해 관객 몰입도와 상호 작용의 경험을 높였다. 또한, 사운드 디자인에 집중해 청중의 청각적 경험을 넓히고, 국악, 시대 음악 등 전통을 탐색하며 현대적인 작품에 통합해 혁신을 꾀했다. 전자 음악 및 기술을 통해 작품과 공연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라이브 공연, 그리고 작업을 통한 사회와 관계에 대한 통찰 등 최근 음악 관련 프로덕션 제작 트렌드를 보여 준 작품들로 라인업이 구성되었다.







민요를 담은 첼로의 울림, 민요 첼로 (MINYO CELLO)

첼로 5중주와 밴드 합주, 첼로와 루프 스테이션 등 조합의 앙상블을 시도한 임이환의 <민요첼로(MINYO CELLO)>(1월 6일(토),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는 민요를 소재로 차용해 동시대화하려 노력했다. 민요 주선율을 기반으로 첼로 어쿠스틱과 전자 음향, 이큅먼트의 특색을 활용, 화음, 리듬, 음량 등을 확장해 만들어 낸 창작물에 현악기인 첼로 연주에 퍼포먼스적인 요소를 녹여 타악기 등으로 활용, 펑크 등 다양한 장르의 요소를 공연에 녹여내는 등 실험적 요소를 활용하고, 파랑새 테마 배리에이션, 뱃노래 모티브를 리듬 중심으로 재창작해 낸 '우리 펑크' 등 각 작업물에 다양한 시도가 돋보였다. 다만 밴드와 현악기인 첼로 간의 음색적 융합, 음향 밸런스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해 보이며, 무엇보다 우리 음악의 소리가 지닌 근간, 뉘앙스 차이를 어떻게 구현해 낼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레퍼토리 보완과 음향 밸런스 등 완성도를 꾸준히 높여 꾸준히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공연이 되길 바란다.

음악을 초월한 연극적 실험, 극에서의 음악 <시선 si, Sonne!>

주준영의 <시선 si, Sonne!>(1월 26일(금) - 27일(토), 국립극장 하늘극장)은 19세기에 쓰인 안톤 체호프의 <어느 공무원의 죽음>에 담긴 보편적 정서를 현대화해 음악극 형식으로 연극, 음악, 무용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무대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돋보였다. 캐릭터의 심리상태를 음악으로 전달하고 무용과 음악의 비중을 동등하게 두어 조화로운 장면을 만들어내고자 하였으나, 음악, 무용, 마임,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가 길지 않은 러닝타임에 무대 위에 올려지다 보니, 극 전반의 연결과 개연성보다 퍼포먼스가 더욱 두드러졌다. 동서양의 악기가 함께 무대에 오른 라이브 연주와 미디어 음악 사이에 음향적 간극이 크게 느껴지며 음향의 기준을 어느 한곳에 두고 밸런스를 잡아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내러티브와 캐릭터를 음악으로 더욱 잘 전달하며 이 작품을 음악극이라는 형식 안에서 뮤지컬, 오페라 등과 차별성을 가지며 어떻게 레퍼토리로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더욱 고민하며 앞으로 시리즈, 연작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음악극에 대한 장르에 대한 인지가 국내에 높지 않아 이러한 시도가 분명 유의미하고 협업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계를 넘어 <크로스 콘체르토 프로젝트>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은 꽤나 자주 시도되는 협업이다. 그러나 그 잦은 빈도와 두 음악의 근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나기 쉽지 않다. 오예승의 <크로스 콘체르토 프로젝트>(1월 27일(토),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는 다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두 창작자들이 무대에 올린 작품들의 톤과 구성면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며, 보컬 등 다양한 솔로이스트들을 전면에 내세워 공연의 채도를 높였다. 공연의 콘셉트가 '콘체르토'라 즉흥연주까지 맡아 해야 하는 독주자들의 역량에 의해 공연의 완성도가 크게 좌우되었고, 연주 역량이 뛰어난 솔로이스트들 덕분에 완성도 높은 공연이 펼쳐졌다. 서곡처럼 들려졌던 첫 곡 등 공연의 흐름을 고려해 레퍼토리를 구성한 노력은 보이나, 두 차례 진행된 해설의 톤과 순서는 음악을 온전히 느끼고 즐기기에 방해가 되어 재배치 혹은 프로그램 노트, 공연 후 관객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현대음악과 재즈가 어느 부분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크로스'가 일어났는지 모호하고 레퍼토리도 제한적이지만 재즈의 근간이 클래식이고 실제 현대 클래식 음악에 재즈 역시 포함되는 영역으로 보아야 마땅하니 두 장르의 형식이 가지고 있는 양극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시도해 나간다면 크로스를 넘어 또 하나의 영역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반복과 변화, 진화하는 사운드 <언/리더블 사운드'(UN/Readable Sound)>

가재발(이진원)의 <언/리더블 사운드'(UN/Readable Sound)>(2월 2일(금) - 4일(일), 틸라 그라운드)은 모듈러 신시사이저의 사운드와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으로 만들어낸 영상이 상호작용하며 실시간 변화하는 오디오 비주얼 아트 공연이다. 창작자가 디렉팅 및 실연을 겸해 제작 프로세스 컨트롤과 유연성이 높은 프로덕션으로 사운드 퍼포먼스로 약 1시간의 단독 공연을 실연했다. 사운드와 비주얼 간에 벌어지는 즉흥성이 공연 몰입도를 높였고, 국악의 소리를 차용하는 등 관객들에게 사운드 안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멜로디, 리듬이 아닌 변화하고 반복되는 사운드가 공간에서 울려 관객에게 전해지는 진동이 새로운 감각을 열어주고 감동을 전했다. 고금을 막론하고 새로운 음악에 대한 범위와 기준은 논쟁의 지점에 놓여있다. 총체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이 영역 역시 더 많은 아티스트들의 도전하고 지속적인 시도가 이뤄진다면 분명 더 넓은 시장과 보편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해석과 새로운 지평 <In & Around C>

테리 라일리의 'In C'가 지닌 미니멀리즘과 민주주의의 의도를 얼마나 완성도 높게 관객에게 납득시키고 구현할 수 있느냐가 무지카 엑스 마키나 <In & Around C>(2월 24일(토) - 25일(일), 플랫폼엘-플랫폼 라이브) 프로덕션이 가진 숙제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창작된 이후 약 60여 년간 펼쳐 온 사회적 혼란 속에 시대를 관통하는 교감과 질서와 규칙을 찾고 연주자들의 즉흥성을 끌어내야 하는 리더십 의존도가 높은 이번 그룹은 체계적인 리허설을 진행하여 현대 음악을 중심으로 서양 고악기 및 현대 악기, 한국 전통악기 및 소리, 모듈라 신스 등과 공간이 함께 클러스터를 이루는 밀도 높은 사운드를 집약적으로 잘 이끌어 냈다. 또한, 텍스트와 영상으로 제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나가며 전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공연의 소재로 활용했다.

한국의 전통음악, 재즈와 고음악, 전자음악의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이번 작품은 기존의 동곡 연주들과는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다. 다양한 배경의 연주자들의 협업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프로그램에 추가해 전체 프로그램의 완급을 조절한 부분 역시 앞으로 더욱 이 공연이 지속되며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다만, 루프로 연결되는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음악으로 소리의 경험을 넘어 이 곡이 지닌 근본적인 아이디어와 개방성을 어떻게 더 많은 관객들에게 더욱 깊게 인식시키고, 작품으로 빠져들어 각자의 경험을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다. 이는 동시대의 음악이 더 자주 무대에 올려져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창작산실의 15년, 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이끄는 길

올해로 15년을 맞이한 <공연예술창작산실>은 국내 창작 환경에 미친 영향은 막대하다. 무엇보다 예술가들이 펀드레이징, 홍보마케팅 대관 등의 안정된 지원으로 예술가들이 창작에 더욱 집중해 힘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지원은 창작 활동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며, 예술가들의 창작 열정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그동안 지원 제도를 거쳐간 수많은 작품들이 한두 시즌을 지속하지 못하고 사라진 것도 사실이다. 이는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와 더불어,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의 도전과 어려움을 보여준다.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더 오래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더욱 급변하는 사회와 환경이 어디 그러한가? 기술을 이해하고 넓은 시각으로 기획과 미디어를 아우를 수 있는 기획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대 예술은 기술과 미디어의 발전으로 더 다채롭고 복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품의 제작과 관리 과정에서는 기술적 지식과 창의적인 기획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번 음악 부문의 다섯 작품의 경우 프로덕션 운영의 부분에서 그 격차가 두드러졌다.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는 물론이고, 작품의 홍보와 관객 유치, 그리고 유지와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획자의 역할은 그야말로 중추적이다. 산실에서 탄생한 작품들이 오랜 성공을 거두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획자의 역할과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공연 예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과 창의성을 결합한 기획자들의 존재가 더욱 필수적이며, 다음 창작산실의 작품을 선정 시 이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올해의신작' 작품들이 제도의 지원을 토대로 한 챕터를 마무리하며 '산실'에 머무르지 않고, 동시대의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오랜 생명력을 갖춘 작품으로 지속적인 진화와 발전을 이뤄나가길 기대한다.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음악가들에게 보내는 박수

홍경섭(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과 겸임교수)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창작산실 음악 분야의 다섯 작품의 평가단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필자에게 현재 우리나라 음악가들의 뜨거운 열정과 고뇌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큽니다. 평가단이라는 명목으로 공연을 봐야 했지만, 한명의 감상자가 되어 새로운 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음에 기뻤습니다.

필자는 총5개의 공연 작품을 관람하였는데, 모든 작품들이 높은 완성도를 보여 주었기에 감상자로서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기에 이렇게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I. 무지카 엑스 마키나 [In & Around C]

"신선한 표현 방식과 다이나믹한 전개가 돋보이다."

주어진 악보를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며 연주하는 방식이 아닌, 연주자가 주체가 되어 연주 내용을 결정하고, 다른 연주자와 상호작용하는 음악적인 현상을 명확하게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형화된 내용과 즉흥적인 내용의 경계가 모호하고, 전통과 서양음악의 경계 또한 무의미하며, 악기의 역할도 자유롭게 변화되는 것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II. 오예승 [크로스 콘체르토 프로젝트]

"재즈, 클래식의 경계를 넘나들다."

음악 속 장르들을 꼭 섞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꼭 구별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현대사회에서 음악가들은 장르에 속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장르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작품에 담아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예승, 조윤성 두 창작 주체는 각각 클래식과 재즈를 대변하는 듯했지만, 오리지널 컴포지션 작품 속에서는 그것들의 경계가 무너져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작곡된 부분과 즉흥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서로 넘나들며 만들어낸 긴장감은 관객들에게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III. 가재발 [UN/Readable Sound]

'이것이 전자음악이다.'라는 창작주체의 예술적 자신감을 확인하다.

미디어아트 작품과 전자음악이라는 형식은 새로운 것이 아님이 확실하나 사운드의 질감과 영상의 완성도는 그러한 장르의 예술적 가치를 한단계 끌어 올렸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듈러를 이용한 사운드 퍼포먼스의 전개는 일반 음악공연과 전혀 다른 감성적 자극을 이끌어 냈으며, 보편적인 멜로디와 화음 및 리듬을 배제하고 노이즈와 사운드만으로 만들어진 공연임에도 공연의 구성이 매우 논리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IV. 임이환 [민요 첼로]

"첼로의 다양한 음악적 시도가 주는 즐거움"

클래식 현악기의 대표적인 악기중 하나인 첼로로 연주되는 민요, 하지만 그 민요도 현대의 음악적인 형식으로 변형된 형태를 띄고 있기에 더욱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퓨전 재즈음악 스타일과 결합된 첼로 연주자들의 앙상블은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더라고 가볍게 즐거운 음악형태로 즐길 수 있는 산뜻한 공연이었습니다.

V. 주준영 [Si, Sonne!]

"이 작품은 음악극의 미래다."

미디어아트, 춤과 연극 그리고 음악으로 이뤄진 복합장르 작품으로서 구성과 전개가 매우 치밀하고 정교하였으며, 무대 퍼포먼스가 다채롭고, 주제가 매우 명확히 전달 되었습니다. 원작인 안톤 체홉의 '어느 공무원의 죽음'이 꽤 오래전 작품임에도 현대인들의 공감을 이끌기에 손색이 없었고, 때로는 연극으로, 때로는 음악으로, 춤등 다양한 표현방식은 관객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음악과 극의 어색한 동거가 아닌 각 장르간의 균형과 융합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 음악극의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평가단 활동을 하면서 접한 다섯 공연 작품들을 통해 한국 음악가들이 얼마나 성장 하였으며, 다양한 주제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품활동을 펼치는지 알게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물론 작품마다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예술적 시도에는 완벽이란 없기에 그런 부분 또한 작품의 일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어졌으며, 대부분의 작품들은 각 주제와 표현방식이 매우 명확하였고, 공연 퍼포먼스 또한 각 주제에 맞게 매우 적절한 구성을 갖췄기에 거론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전개 방식으로 인하여 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담으면서도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러한 공연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소개되어 보다 많은 예술 애호가의 사랑을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공연에 참가한 창작주체들 이하 연주가 스텝 모두에게 진심어린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창작오페라







울산문수오페라단

3과 2분의 1 A

일정	2024년 1월 11일(목) ~ 12일(금)
공연시간	**목, 금** 오후 7시 30분
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관람연령	만 12세 이상
티켓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작가	신성우
작곡가	양상진
지휘자	황성진
연출	김 관
음악코치	김소영
안무	강혜림
무대디자인	김정란
조명디자인	김민재
영상디자인	윤호섭
음향감독	이상하
의상디자인	김지연
분장디자인	박정미
그래픽디자인	이세이
제작감독	김미실
기획	컬쳐루트
출연진	강연희, 김미실, 서미선, 이병웅, 강혜림, 서보권, 김혜린, 최나윤, 이유나, 김진성, 홍주표. 박유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은 이루지 못한 욕망인가 지금의 내 모습인가?

신성우 작, 양상진 작곡의 창작오페라 <3과 1/2 A>의 주된 관심은 욕망이다. 내게 없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을 욕망이라 한다면,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에서 다른 자신의 모습을 가지려는 상승의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두 언니의 내적 갈등을 통해 풀어낸 풍자적인 잔혹동화다.

울산문수오페라단

설립목적: 오페라 운동을 통한 다양한 오페라의 시도와 음악 및 예술 활동의 기반 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문수오페라단은 울산광역시를 대표하는 오페라단으로 2006년 5월 창단하여 같은 해 9월 첫 공연을 올렸으며, 오페라를 통한 공연예술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오페라 제작에 끝없이 힘쓰고 있는 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음악 예술의 길을 닦아가고 있으며 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음악예술인들과 함께 음악으로 꿈꾸며, 무대를 준비하는 울산 오페라의 살아있는 역사로서 길을 다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작가 신성우, 연출 김 관 외

신데렐라를 소재로 삼아 이야기를 재창작함에 있어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셨나요?

기존의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조연이었던 신데렐라의 두 의붓언니를 주인공으로 하여, 주류의 시선에서 배제되었던 그들의 욕망을 극의 중심에 놓은 것이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 신데렐라의 두 의붓언니의 욕망은 좌절되었기에, 여전히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기에, 성공한 신데렐라의 욕망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보통의 수많은 '우리'의 욕망을 대변한다고 전제하고 극을 구성하였다.

극의 중심 주제이기도 한 '욕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적, 음악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추상적인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 무대를 가장 단순한 미니멀리즘 개념으로 단순하게 구성하기로 했다. 인물들이 지닌 욕망의 속성은 대부분 과시욕이다. 무대 위에 올려진 거대한 거울을 통해 이들은 자신의 외향적 욕망을 드러낸다. 거기에 소박한 안락의자 하나에 어울리지 않은 곰인형 하나 정도만 놓여 있고, 욕망을 나타내는 유리구두는 이들의 욕망을 계속 부추기는 오브제로 놓였다. 거기에 관객석과 개방된 무대 형식으로 마치 이들의 은밀한 욕망이 관객들에게 우스꽝스럽게 드러나게 배치하고, 이들의 심리 상황에 맞는 영상 디자인을 통해 두 자매의 욕망이 이들이 속한 현실과 환상 속에서 병치하여 충돌하게 구상했다. 숨길수록 더욱 강하게 튀어나가는 속성처럼. 디즈니 음악을 패러디하여 구성하여 전반적으로 어른들을 위한 우화, 혹은 잔혹동화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서사적인 구성을 진행하였다. 반복되어 들리는 일종의 후크송 같은 음악적 구성은 디즈니의 음악처럼 대중적인 분위기를 중심으로 들리나 이들의 노랫말은 심리적이고 원초적이다. 마치 무대 위에 존재하지만 감히 만질 수 없는 오브제는 자매가 결코 성취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꿈처럼 허망하게 느껴질 것이다.

흔히 알고 있는 신데렐라와 다른 결말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극한의 욕망이 불러올 파국적 결과를 보여주고 싶었다. 욕망의 추구가 극한에 달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나 대신 그것을 성취한 사람에게 박수 쳐주고 축하를 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극한의 욕망'이 아닌 것이 되니까. 극한의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그 병적인 마음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모두의 좌절, 즉 완전한 파국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관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

신데렐라 이야기에 신데렐라와 왕자는 무용수로 존재한다. 이들은 자매와 의붓어머니와는 달리 춤으로 존재하며, 동떨어진 공간 속에서 욕망을 내뿜는 존재와는 달리 환영처럼 존재한다. 거기에 관객이기도 하고 해설자이기도 한 코러스들이 자유로운 동선 속에서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유도할 것이다. 늘 신데렐라의 편에서 이야기를 바라보던 관점을 탈피하여 악역으로 존재했던 두 자매의 관점에서 또 다른 신데렐라 이야기의 잔혹성과 폭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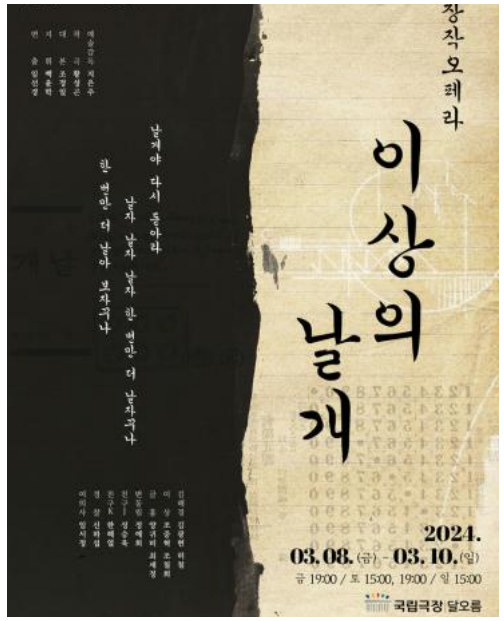
거기에 마치 마당놀이의 놀이판 같은 극장주의적 무대와 단순한 가구로만으로 이루어진 단출한 무대에서 극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구성할 것이다. 관객들은 개방되고 소박하지만 다채로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되바라진 이야기 속에서 적극적 상상력을 자극하여 극적 체험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작품이 관객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으면 하나요?

대중적인 오페라를 만들기 위한 연극적 상상력, 개방적인 무대와 자유로운 상상을 통한 공연성, 경쾌하고 역동적인 음악적 구성과 더불어 상징적인 시각화를 통한 되바라진 상상력이 자극되길 바란다. 한 번쯤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연습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전오페라단

이상의 날개

일정	2024년 3월 8일(금) ~ 10일(일)
공연시간	**금** 오후 7시 / **토** 오후 3시, 7시 / **일**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티켓	VIP석 100,000원 /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예술감독	지은주
작곡	황성곤
대본	조정일
지휘	백윤학
연출	임선경
출연진	김광현, 허철, 조중혁, 조철희, 양귀비, 최세정, 정예희, 성승욱, 한혜열, 신하섭, 임서정

미래를 살았던 사람, 시인 이상

소설가, 수필가, 건축가, 화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지만 26년이란 짧은 삶을 살다간 천재 시인 이상(본명 김해경).

시인이 쳐했던 삶과 초현실적 작품들이 융합된 이야기를 통해, 난해함으로 유명한 그의 예술세계가 부조리한 시대의 생생한 반영임을 알게 할 것이다. 한 전위적 예술가의 순수한 갈망과 추구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그의 삶과 예술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영감을 공유한다.

삶과 예술의 욕망이 절정에 이른 시인 이상의 생애 마지막 시기. '오감도'와 '날개'의 성공과 실패, 일본에 건너가 최후의 불꽃을 태우고 죽는 명멸의 순간들을 실제 행적, 대표적인 작품들을 취해 현장감 있게 재현한다. 여기에 분신의 등장, 초현실적 환상 장면들이 이상의 시어들과 함께 무대에 펼쳐진다.

대전오페라단

대전오페라단은 36년 이상의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오페라 공연의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 아티스트를 위한 무대 제공과 인재 발굴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 문화교류의 중심단체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몽골과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국제문화교류의 중심단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작가 조정일, 작곡가 황성곤

이상의 작품들을 차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목에 '날개'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다면?

이 오페라는 이상의 소설 <날개>를 구현하는 작품은 아니다. 이상의 삶과 시는 한마디로 "심미적 저항"이라고 보였다. 그가 살았던 극악하고 부조리한 폭압기에 그만이 보여 줄 수 있는 특유의 방식으로 저항했던 것이다. 이상의 작품 속에는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소리가 들어있다. 갑갑한 현실에서 퍼덕거리는 날갯짓 소리. 그는 날개가 없으므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해 고통스러워했지만 날개의 꿈을 접지 않았기에 이상(理想)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불멸로 남았다. 시인 이상의 젊은 육체가 실제 박제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친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게 될는지 모른다.

극 중 해경의 분신인 '이상'은 끊임없이 해경에게 자살을 권유합니다. 이 극에서 죽음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상은 해경 자신의 가장 내밀한 목소리가 육화된 존재이다. 해경은 폐병에 걸린 이후부터 어쩌면 그의 최후가 오늘일지도 모른다고 항상 죽음을 예감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자신을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끼어 질식해가는 존재라 정의 내리고 시대를 저주한다. 이런 세상에서 구차하게 연명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빠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병든 몸, 수렁에 빠진듯한 생활, 희망을 가질 수조차 없는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는 길은 바로 죽음밖에 없노라고 해경의 또 다른 자아 '이상'은 자살을 권한다. 끝내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할지, 자신의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가감 없이 새겨 넣은 작품들로 '무서운 시대'의 증언자가 될지, 무대 위 해경과 이상의 선택을 목도하시길 바란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가 있다면?

우선, 이 작품을 통해 이상의 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음악을 통해 전달되기를 바란다. 어렵고 괴기하게 느껴졌던 한 천재의 외침이 삶과 구원을 향한 증언이었음이 관객들에게 가닿는 작품이 되기를 원한다.

음악과 시어들로 전해지는, 광폭한 시대를 살다 간 한 천재의 절망과 희망은 지금을 사는 우리의 심장을 울린다. 어떤 시대를 살아도 사람은 자기 몫의 삶에서 자주 궁지에 몰리곤 한다. 그럴수록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 좋겠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날개가.

어떤 고통에도 희망의 날개를 접지 않는 자, 마침내 그 희망에 가장 가까이 닿을 것이다.

작품 창작의 배경과 계기는 무엇인가요?

현실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다 할 저항을 하지 않고 순응해 살아간다. 영혼의 자유로움에는 대가가 따르고, 비극적인 결말이 있다는 예감에 더 이상 모험하지 않는다. 젊음을 잃는 것이다. 시인 이상은 낡지 않는 젊음의 초상이다. 그의 정신은 어느 시대에 다시 펼쳐보아도 늘 앞서 있고, 낡지 않는다. 이것이 이상의 시가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이유이다. 이상의 강렬한 삶은 한때 우리의 피를 뜨겁게 했지만 우리가 놓아버린 여러 감정들을 다시 돌이켜 공감과 위로, 해방감을 줄 것이다.

천재 작가로 불리는 '이상'의 이야기를 재해석하였는데, 실존 인물을 활용하면서 고민이 많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이상은 규정하기 힘든 인물이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왜 이런 암호와 같은 시를 남겼는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제각각의 해석을 한데 모으면 혼란스럽기만 하다. 실제 그를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 속에서도 이상의 모습은 종잡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의 알 수 없는 삶의 빈칸을 채우려 할 때 이것이 정말 이상의 말과 행동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족적을 따라 계속 뒤를 밟지만 끝까지 정면 얼굴을 못 본 기분.

본 작품은 이상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고증하려는 것이 아니다. 실존 인물의 삶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관객들과 공유하고 싶다. 이상의 시와 실제 이상이 살았던 현실이 뒤얽혀 한편의 꿈처럼, 만화경처럼 보이기를 바란다.



창작오페라 이제 인식도 개선되어야 할 때…



김지영(오페라 연출가)

1948년 1월 16일. 베르디의 오페라 <춘희 (La Traviata)>가 서울 명동 시공관(현 명동예술극장)에서 국내 오페라의 첫 공연이 올려 퍼졌다. 그 후 2년. 1950년 5월 최초의 창작오페라로 알려진 현제명 작곡의 <춘향전>이 공연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창작오페라는 국립오페라단의 '맘 프로젝트'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창작산실'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탄생하기 시작하였다.

오페라는 흔히 순수예술이라고 한다. 순수예술은 그 분야의 전문가인 특정한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는 예술이라 하겠다. 그래서인가. 음악애호가가 즐기는 장르로 인식이 되어버린 것이 오페라이다. 이런 오페라계는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했다. 그간 장르의 대중화를 시키려고 '소극장 오페라페스티벌'과 같은 행사를 만들어 관객과 소통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숙제로 남아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리 소극장 오페라라고해도 고전 오페라는 말 그대로 '고전'이기 때문이 아닐까. 다른 나라 언어로 되어있어 꼭 자막을 봐야하고 공감할 수 없는 시대의 귀족 이야기의 구성과 불편해 보이는 폭넓은 드레스들이 때로는 관객들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온게 아닌가.

이러한 상황 속에 창작오페라는 새로운 길이 개척해주고 있다. K-OPERA라는 명칭도 생겨날 만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23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에 선정된 창작오페라 두 작품을 보아도 그러하다.

먼저 지난 1월 11일~12일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공연한 울산문수오페라단의 <3과 2분의 1A>은 동화 신데렐라를. 재해석한 작품이어서 관객이 쉽게 이해 할 수 있었으며 특히 주인공인 신데렐라와 왕자 배역을 성악가가 아닌 무용수로 구성하여 신선함을 주었다. 또한 대사를 통해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시켜 오페라와 뮤지컬의 중간인 뮤페라라는 장르를 완성시킨듯 하였다. 3월 8~10일 국립극장 달오름에서 공연되었던 <이상의 날개>는 역사적 사건에서 벗어나 이제는 현실, 초현실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1930년대 배경을 현대적으로 세련된 LED를 이용한 화려한 미디어무대로 극장을 무대를 압도하였다.

이제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만 바뀐다면 창작오페라의 이런 변화들이 오페라의 장르가 고급예술이 아닌 연극, 영화와 같은 대중예술로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길이 되어주지 않을까 한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오페라하우스의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2025년 이후 공연될 <창작오페라 작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신진오페라 작곡가와 극작가를 발굴하고, 부산오페라하우스에서 선보일 다양한 레퍼토리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창작오페라에 대한 관심은 국 공립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창작오페라의 큰 문제점은 흥행에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적은 관객 수에 제작단체들은 적자를 볼 수 밖에 없고 자금확보를 위해 지자체의지원금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 무언가를 만들고 잘 하고 싶어도 주머니사정을 생각하면 아껴지는 무대를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창작 오페라를 만들기위해선 대본가, 작곡가의 해석이 다르게 창작되어선 안된다. 오페라 극장을 중심으로 제작과 공연 전 과정이 모두 일관성 있게 되려면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극장체제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극장의 대본가, 작곡가 이외에도 연출자를 비롯하여 무대에 필요한 스텝들과 지휘자를 포함해 음악에 관련된 인력이 잘 갖춰진다면 더 좋은 작품이 탄생 하리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국내뿐만이 아닌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K-OPERA가 울려퍼지길 소망한다.

관객의 시선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창작오페라

이명국(대한민국 오페라단연합회 이사)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오페라부문 선정작인 '3과 2분의1 A' 와 '이상의 날개'를 관람하고 예술 관계자의 입장이 아닌 순수 관객의 입장으로 느낌을 써보려한다.

먼저 울산 문수오페라단이 주관한 '3과 2분의1 A' 는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올려졌으며 공연장의 특성상 전 출연진이 헤드마이크를 착용하여 음향 시스탬의 도움을 받은 작품이었다. 오페라의 내용도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연회장에 두고 온 이후 왕자가 그 구두에 맞는 발을 가진 여인을 찾는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동화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주인공인 신데렐라가 아닌 2명의 언니와 계모, 왕자의 명을 받고 구두의 주인을 찾아다니는 신하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동화의 주연이 아닌 조연들의 내면과 이야기를 조연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극을 이끌어간 스토리가 탄탄한 작품이었다.

다음 작품은 대전오페라단이 주관한 '이상의 날개'이다. 이 작품 또한 국립극장에서 올려 졌는데 하늘극장이 아닌 달오름극장이었다. 달오름극장은 다목적 극장으로 오케스트라 피트가 따로 없어 무대의 앞부분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오케스트라를 배치시켰고 오케스트라가 내려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악가와 오케스트라의 발란스가 맞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 이상의 작품을 대사로 넣어야 한다는 작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인지 시인 이상의 일생에 대한 내용이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인 초현실주의나 아방가르드가 떠오를 정도로 너무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다. 여기까지는 그냥 내가 오페라를 즐기기 위해 공연을 보러 간 관객이라면 받았을 느낌에 대해 쓴 것이고 공연 관계자로 받은 느낌은 오페라 3과 2분의1A는 엄청나게 단조롭고 쉬운 멜로디와 공연장 특성상 사용한 마이크 때문에 오페라라고 보는 것보다 어린이 뮤지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곡가가 설정한 성악가들의 음역대도 성악가들의 기량이나 실력이 거의 필요 없는 아주 평이하고 쉬운 음역대였다. 다음 작품인 이상의 날개는 매우 난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페라 작품의 퀄리티를 최고로 끌어 올리기 위한 오페라단의 노력이 돋보인 작품이었다. 오페라를 보면서 이 작품은 오페라가 아니고 이상의 시에 합창곡을 만들고 나머지 이상의 일생을 배역을 맡은 성악가들이 브릿지로 넣고 극을 이끌어가기 위해 안무를 추가한 음악극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페라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LED판을 대량으로 사용하여 이상의 내면 세계와 정신적 고뇌와 갈등을 너무 잘 표현하였고 합창단과 안무를 맡은 배역들까지 의상을 제작하여 상황에 너무나 잘 어울리게 신경 썼다는 게 확연히 들어난 작품이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창작에 대한 정답은 없다. 오페라가 끝나고 나도 모르게 쉬운 멜로디를 따라서 흥얼거릴수도있고 오페라의 주인공인 사람의 일생과 작품을 찾아보며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곱 씹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창작의 영역에선 내가 생각하고 배웠던 오페라가 정답은 아니다.







전통예술



라폴라예술연구소

만중삭만 – 잊혀진 숨들의 기억

일정	2024년 1월 12일(금) ~ 13일(토)
공연시간	**금** 오후 7시 30분 / **토** 오후 3시, 7시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관람연령	7세 이상
티켓	전석 30,000원
기획	김고은
연출	김영은
작곡	유용주
전자음악	조성란
무대감독	이율
무대디자이너	정애솔
조명디자이너	김영준
음향디자이너	우경민
홍보디자이너	함민구
출연진	추현탁, 김고은, 김정현, 이성동, 정영은, 김영은, 최예환, 정승준



발걸음이 박자가 되던 시대. 그 호흡을 반영한 그 음악은 사라졌지만, '만 중 삭'의 순환의 흐름을 통해 다시금 발견하는 자아

조선시대, <만대엽>이 너무 느려 사람들이 싫어하여 없어진 기록이 있다. 이를 토대로 음악이 빨라지는 순서인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의 흐름을 통해 바삐 움직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정리.비움.채움'의 순환과정으로 선보이고자 한다.

라폴라예술연구소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뜻에 맞게, 국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젊은 예술인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예술을 창작한다.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전통음악을 다양한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함께 듣는 음악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인터뷰

연출 김영은, 기획 김고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순환하고 비워내는 과정이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해소의 과정을 만중삭의 속도에 맞게 연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온 '만'에서는 이것들이 해소가 되어 또다시 새로운 것을 담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알아가고, 채우고 또 비워내는 과정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를 음악적 형식에 빗대어서 '만중삭' 그리고 다시 '만'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만중삭'이라는 개념이 생소한데, 만중삭이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자면, 느린 음악에서 점차 빨라지는 전통음악의 음악적 형식이에요. 그런데 느리다는 기준이 요즘 말하는 발라드의 기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느렸냐면요, "만은 극히 느려서 사람들이 싫어하여 없어진 지 오래고, 중은 조금 빠르나 역시 좋아하는 이가 적고,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것은 삭대엽이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무대연출이나 악기 구성 등 이번 공연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무대에 배치된 항아리는 '나=자신'을 의미해요. 그리고 항아리와 함께 연출된 다양한 천들은 우리의 '이상'과 '현실'의 생각들을 의미하죠. 이러한 생각들이 모두 내 안에 담기게 되고, 그것들이 얽기 설기 있지만 결국에 풀리는 과정을 통해 이번 공연을 통해 주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만중삭에서 다시 만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서 특별히 의도한 바가 있나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만중삭은 음악의 속도의 개념인데, 여기서 만중삭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만'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쌓아진 다양한 생각들이 순환되지 못하고 그대로 고여있어요. 나 자신이 인지하지 못할 만큼.

왜 무대의 오브제로서 항아리를 선택하셨나요?

항아리라는 것은 무언가를 담는 도구이기도 하고, 근래 들어서는 '달항아리'가 어떤 명상을 의미하는 오브제로서 주목받고 있어요.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항아리를 보고 사색에 잠기는 것처럼, 이번 '만중삭만' 무대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서 보면, '항아리'라는 게 역사가 깊은 도구인데, 어찌 보면 '만중삭' 이라는 개념도 우리나라의 음악사에서 오래된 개념이 공통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래된 것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재생산되고, 주목받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개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공연이 관객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으면 하나요?

만중삭 자체가 음악의 속도를 말하고 있고, 이러한 음악의 속도를 빗대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속도, 그러한 사회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찾아가는 명상의 과정을 표현하였어요. 길게 이어진 팬데믹으로 빠르게 움직이던 사회가 잠시 일시정지하고, 바쁘게 살던 사람들이 방향성을 잃고 당황하는 경험들을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중삭만' 이 자신을 찾아가는 '명상음악'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속도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나만의 속도대로 가는 것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이번 무대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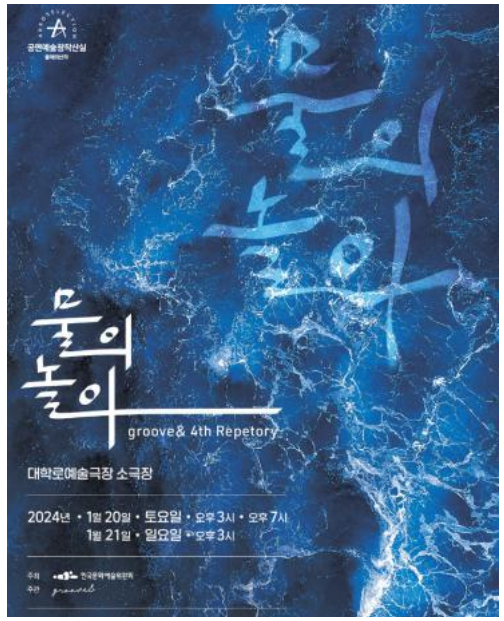




groove&

물의 놀이

일정	2024년 1월 20일(토) ~ 21일(일)	**출연진**	groove&(이상경, 손민주, 김하경)
공연시간	**토** 오후 3시, 7시 / **일** 오후 3시	**무용수**	정주령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관람연령	만 7세(초등학생) 이상		
티켓	전석 30,000원		
기획 · 구성	groove&		
공동연출	정종임		
무대감독	최정환		
영상디자인	이수경		
음향디자인	민병욱		
조명디자인	박유진		
작곡 및 총괄	이상경		



'흐르는 장단 위의 물의 놀이'

전통 장단은 원의 호흡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호흡은 물이 흘러가듯 끊이지 않는다. 이것에 영감을 받아 둥근 호흡으로 이어지는 전통 장단을 순환하며 흐르는 물에 빗대어 표현한다. 한 곡에 한 장단을 사용하여 심상을 극적으로 표현하며, '물'이라는 일상적이고 단순한 소재를 영상디자인과 결합하여 종합예술로 이야기를 그려나가고자 한다.'

groove&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한 여성 타악 앙상블로, 섬세하면서도 감각적인 음악을 추구한다. 타악기의 다양한 소리를 더욱 꼼꼼하고 탄탄한 짜임새로 무대 위에서 발현시켜 나가고자 한다.

인터뷰

groove&

‘물’이라는 소재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전통 음악, 그중에서도 전통 타악을 연주하는 단체로서 창작의 소재를 장단에서 떠올리곤 한다. 장단은 원의 호흡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호흡이 물이 흘러가듯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에 영감을 받아 둥근 호흡으로 이어지는 전통 장단을 순환하며 흐르는 물에 빗대어 표현하며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주제화 시키게 되었다.

정확한 형태가 없는 ‘물’ 을 형상화하기 위한 연출적 시도는?

우선은 음악적으로 물을 형상화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각 물의 형태에 어울리는 장단을 선정하고 어떤 악기와 사운드, 구성으로 그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심도 깊게 연구하였다. 이후에 앰비언트 사운드를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소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과 무용수라는 매개체를 통해 물의 형태를 직관적으로도 느낄 수 있게 연출하였다.

타악기로만 이루어진 팀이라는 점이 신선합니다. 타악기만으로 구성된 음악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먼저는 말씀하셨듯이 신선한 구성이 큰 강점인 것 같다.
흔하지 않은 악기와 인원 구성이 어떤 음악을 하는 팀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두 번째는 타악 연주자 세 명이 만들어내는 그루브에서 느낄 수 있는 ‘흥’이다. 타악기의 리듬은 세대, 문화, 취향의 차이를 극복하여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생각한다. 여러 타악기를 통해 절묘하게 맞물려가는 리듬과, 세 명의 파워가 더해진 폭발적인 에너지는 사람들의 숨겨진 흥을 깨우고 심장 박동을 뛰게 할 수 있다.

실제 자연에서 얻어지는 소리들이나 떠오른 영감들을 표현할 수 있는 소리들을 직접 녹음하는 작업을 거쳤는데, 이에 관련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면?

앰비언트 사운드로 쓸 만한 깔끔한 사운드를 찾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예를 들어 같은 빗소리를 녹음하더라도 차 안에서 듣는 빗소리, 도로변에 내리는 빗소리,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가 다 다르고, 적절한 잡음으로 음악과 어우러지는 사운드를 골라내는 것도 어려웠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녹음할 준비를 하고 다녔는데, 심지어 해외 투어 중에 방문했던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까지 구경보다는 폭포소리 녹음하는 것에 더 집중했던 생각이 난다.

관객들에게 이 작품이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하나요?

‘단순한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다. 또한 쉬는 구간 없이 물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공연 컨셉에 맞게, 관객이 공연 내내 완전히 몰입하여 작품 속에 빠져 함께 ‘물의 놀이’를 했다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김시화

남성창극 살로메

일정	2024년 2월 2일(금)~4일(일)
공연시간	**금** 오후 7시 30분 / **토** 오후 3시, 7시 / **일** 오후 3시, 7시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14세 이상
티켓	R석 77,000원 / S석 55,000원
원작	오스카 와일드
극본	고선웅
연출	김시화
작창	정은혜
작곡	김현섭
음악감독	이아람
안무감독	신선호
무대감독	박민호
의상디자인	이상봉
조명디자인	류백희
무대디자인	백혜린
음향디자인	소부용
분장디자인	진동희
사진	준열
그래픽디자인	박재현
프로듀서	정성진
조연출	홍예지
출연진	김준수, 윤제원, 김도완, 유태평양, 서의철, 정보권, 김수인, 이정원, 정혜수, 유휘찬, 배연우, 송다훈, 최재명
악사	김슬지, 김현섭, 이호찬, 차승현, 황소라, 조한민, 신승훈

집착에 눈 먼 자들이 벌이는 그로테스크한 난장, 살로메

성스러운 사람과 속된 자들의 광기의 충돌
욕망은 얼마나 더 비정상적이어야 하는가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가 탐미적 창극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소리로 광기와 집착을 노래하다.

김시화

김시화는 안무자이자 연출가이다. 전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 만나는 시도를 해왔다. 전북도립국악원, 천안시립예술단, 경기국악원, 국립무형유산원 등 국공립단체에서 안무와 연출, 국립창극단 조연출, 방송 드라마 사극의 안무감독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 <친구따라 제비간다>, <토끼외전>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춘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무용전공자 최초로 국립무형유산원 전통공연 연출가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연출의 길로 들어선 김시화는 무용극, 창극뿐만 아니라 뮤지컬, 오페라 등 다양한 무대예술장르를 아우르는 연출가로 나아가고자 한다.



인터뷰

작가 고선웅, 연출 김시화

극의 여성 캐릭터인 공주와 왕비를 남성배우로 변환할 때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신경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연출 김시화)

여성을 연기할 남성 배우의 보이스와 모든 출연자가 남성이기에 제한될 음역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목소리의 경우 그런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배우 본연의 목소리가 배역과 너무 잘 맞았다. 오히려 애써 꾸미는 것이 부담스러워 자연스럽게 그들의 보이스 컬러를 살려 연기하도록 하였으며, 음역대에 대한 부분은 성부의 단조로움을 고려한 작창과 인물이 갖는 감정 주체가 주요 선율이 되도록 작곡하여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키려 노력했다.

다양한 악기 구성이 돋보인다. 이런 악기 구성을 선택한 이유는?

(연출 김시화)

극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등장인물의 성격을 고려했다. 아쟁, 첼로, 피리, 태평소, 생황, 피아노, 타악 등 전통악기와 서양악기의 비율을 비슷하게 구성하여 악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불협적인 사운드로 그로테스크하고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구현하고 싶었다. 악기 본연의 소리뿐만 아니라 분리하고 해체하여 독특하고 다채로운 사운드로 극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원작을 각색하며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 썼는지 궁금합니다.

(작가 고선웅)

원작의 탐미적 비극성에 이끌렸다. 그러나 잔인함과 욕망의 이면을 넘어선 주제에 관한 미덕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은 공허한 삶을 살다가 충동적으로 삐져나오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집착이었고 그 극단의 선택이 죽음이라는 것을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는 일이었다. 각색을 하면서 살로메만을 응징하기에는 무언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과도한 서사를 더 극단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야만 이 이야기가 완성될 것 같았고, 그래야만 이 이야기가 원작보다 더 선명한 교훈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남성창극'이라는 수식어가 독특한데, 남성 단원(배우)로 전원을 구성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연출 김시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기 때문에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을 넓고 깊은 관점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에는 없던 실험적인 도전이며 단언컨대 새로운 시선으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작품이 궁극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이런 기형적인 욕망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간절하다. 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취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불세출

밤쩌: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Part. 2

일정	2024년 2월 2일(금)~3일(토)
공연시간	**금** 오후 8시 / **토** 오후 4시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러닝타임	만 7세 이상
티켓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기획 · 구성	불세출
음악감독	최덕렬
작곡	김용하, 최덕렬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김윤미
안무	정효민
조안무	위송이, 이혜선
무대 조명디자인	김려원
음향디자인	정새롬
무대감독	김동영
자문	전지환
포스터 사진	전우석
홍보물디자인	영호공작실
출연진	불세출(배정찬, 김용하, 최덕렬, 이준, 전우석, 김진욱, 박계전, 박제헌), 김동언(부산기장오구굿 무형문화재), 전지환, 한누리무용단(이혜선, 구경현, 모주빈, 이은솔, 문채영, 정다은)



'동해안 오구굿'의 기악화 작업–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새로운 생명력 불어넣기

공연 제목인 '밤쩌'는 세습무들이 동해안 오구굿을 부르는 은어로, 이를 그대로 제목으로 가져온 것은 굿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보통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민속문화'를 대하는 불세출의 진중한 마음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밤을 새워 망자의 넋을 위로하는 세습무 특성상,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져가는 동해안 오구굿의 가치와 특징을 단체만의 음악적 실험과 색으로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불세출

불세출은 '좀처럼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만큼 뛰어남'이라는 이름으로 2006년 결성하였다. 전통음악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전통에 있는 다채로운 원천과 형식을 활용하여 각각의 악기들이 돋보일 수 있는 음악적 실험을 해오고 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익숙함을 확장하는 방식을 통해 불세출만의 음악적 개성을 고스란히 녹여내고 있다.

인터뷰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김운미, 불세출

세습무라는 개념이 생소한데, 세습무는 무엇이며 그중에서도 '동해안 오구굿'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굿은 '강신무'와 '세습무'로 대별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강신무는 신을 섬기고 길흉을 점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무속신앙인이라면, 세습무는 부모로부터 무당의 신분이나 직업을 물려받은 무당입니다. 세습무는 강신무와 달리, 신을 모시고 굿을 하지만, 무당이 되기 위하여 강신의 과정이나 신이 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동해안 오구굿도 망자를 위로하는 세습무로 망자를 위로하는 굿입니다.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시리즈 2탄으로 동해안 오구굿을 선택한 이유는 남대(부산, 울산 외), 안대(경북) 오구굿을 합친 동해안 오구굿이라는 큰 범주 안에 장단과 음악적으로 작업하기 좋은 곡을 선별하여, 주로 타악으로 푸는 굿 장단의 다채로운 변화를 기악으로 풀어내는 음악적 실험을 진행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무,악을 아우르는 굿의 특색과 미학적인 부분도 함께 담아, 시각적 요소가 풍부한 음악 공연으로 풀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김동언 선생님과 한 무대에서 함께 공연한다는 매력적인 부분이 한몫하기도 하였습니다.)

작품을 준비하며 무대미술 측면에서 신경 쓰는 포인트가 있다면?

본 작품은 재현과 전승이 목적이 아닌, 동해안 오구굿을 오마주하여 선보이는 창작 작업으로 현재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예술단체가 음악적 실험을 통해 동해안 오구굿을 기악화 작업한 실내악 공연입니다. 무대미술도 마찬가지로 재현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으로 풀어낸 동해안 오구굿의 모습을 관객들과 마주할 수 있게 장식과 무구를 해체 표현하는 작업으로 구상 중입니다. 당연히 동해안 오구굿에 대한 존중과 예의에서 벗어나서 소위 우리 멋대로의 해석이 아닌 필수 요소와 장면에서 꼭 사용해야 하는 소품과 장단의 틀거리 등은 고증에 맞춰 창작할 예정이며, 이 부분이 본 공연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밤쩌'라는 제목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밤쩌'는 동해안 세습무들이 오구굿을 부르는 은어인 '밤자'를 소리나는 대로 쓴 단어입니다.' 밤쩌'를 공연 타이틀로 택한 이유는 오구굿이 밤새 진행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밤이라는 명확한 단어가 들어가기도 했으며, '밤저'보다 그들이 부르는 말투에 조금 더 향토성과 친근함이 더 묻어나 특색 있는 공연 제목으로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정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선보였던 <자락: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이후 3년만의 연작입니다. 전작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가요?

불세출은 '전통'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집중합니다. 동시대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만들어지고 설익은 채 없어지는 음악이 아닌, 현재의 우리의 창작이 훗날의 미래 전통이 될 수 있기에 전통의 특색과 깊이에 대한 작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전통 창작공연에서 소재 사용에 그칠 뿐,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며 희소성이 높아진 전통의 본질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자락: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는 2019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선보이게 된 작품으로(코로나로 1년 연기), 시리즈 1탄인 <자락>이 토속민요를 가지고 풀었다면, 이번에는 동해안 오구굿을 가지고 젊은 예술인들의 시선으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어보고자 합니다.

작품을 통해 세습무가 관객들로 하여금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하나요?

작품을 통해 세습무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동해안 오구굿만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특징과 가치를 관객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경남지방(남대)와 경북지방(안대)를 아우르는 굿의 재해석 작업은 불세출에게도 크나큰 도전이며, 작은 시작이지만, 이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전통에 다양한 음악과 종목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 갔으면 합니다.







허윤정

무한수렴(無限收斂)의 멀티버스 –Multiverse of Infinite Convergence–

일정	2024년 2월 23일(금)~24일(토)
공연시간	**금** 오후 8시 / **토** 오후 3시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티켓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음악감독	허윤정
프로듀서	계명국
공동연출	남윤호, 이치민
기획홍보	이채미
포스터디자인	김상만
음향감독	황순기
조명감독	황규연
무대디자인·무대감독	이은규
영상디자이너	김장연
그래픽디자인	김철진
출연진	허윤정, 오정수, 이아람, 황민왕, 김율희, 조성재, 박종화, 최경은, Cassandre Balbar, Satoshi Takeishi
영상출연	Mark Dresser, Michael Dessen, Ned Rothenberg, Gabriel Prokofiev

*공연 특성상 공연 회차별 출연진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공연 상세 프로그램 확인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Always! 거문고 명인 허윤정이 선사하는 무한 시공간의 멀티버스 음악세상

같은 공간일지라도 시간에 따른 다른 음악이, 같은 시간대라 해도 공간에 따라 다른 음악이 존재하는 음악적 시공간 개념을 일종의 멀티버스(Multiverse)라 정의할 수 있다.

2,000년 역사를 가진 거문고와 함께 다양한 시공간을 여행하며 지난 40년간 자신의 음악세계를 만들어온 허윤정에게 그녀가 걸어온 음악의 길 자체가 과거이자 현재이고 미래였다. 이번 공연은 오롯이 거문고라는 악기의 원초적 힘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각기 다른 음악적 멀티버스마다 무한수렴의 주체가 되어온 허윤정의 전통과 창작세계를 집대성하여 한 무대에서 온전히 보여주고자 한다.

허윤정

거문고 명인 허윤정은 전통음악, 즉흥음악, 현대음악 등 장르를 넘나들며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보적인 연주자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이수자로서 전통음악의 계승과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월드뮤직 그룹 블랙스트링의 리더이며, 한국음악가 최초 영국 송라인즈 뮤직어워즈를 수상, 아시아 음악가 최초 독일의 메이저 레이블 ACT Music 에서 3장의 Blackstring 정규앨범을 발매하였다.

KBS국악대상, 이데일리 문화대상을 수상, 제1회 서울예술상 대상 수상, 거문고 독집 앨범 "더늠", "일곱개의 시선" 등이 있다.



인터뷰

음악감독 허윤정

작품의 주요 악기가 거문고인데, 거문고만이 가지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거문고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해 온 세상의 현악기들 중 매우 독특한 악기 중 하나입니다. 악기 모양, 연주 방법, 연주 자세 그리고 악기가 지닌 연주 철학 등이 합쳐져서 독특함과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는 악기죠. 우리말로는 '괘' 즉 지판 위에 프렛(fret)이 있는 거의 모든 악기들은 울림통과 지판이 분리되며(기타처럼) 변화해 왔는데, 거문고는 울림통과 지판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고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크고 긴 악기를 45도로 뉘여 연주하는 매우 인위적이고 힘든 연주 자세, 술대로 연주하기 때문에 타악기적 속성과 현악기적인 속성이 공존하고 자연발생적인 악기 소음 등이 합쳐져서 더욱 독특하면서 시크한 매력을 발산하는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거문고를 저음의 악기로 많이 알고 계신데, 거문고는 국악기 중에서도 음역대가 가장 넓은 악기 중 하나로 낮은 음은 물론 고음의 화려한 멜로디도 연주가 가능한 악기입니다. 이런 거문고의 독창적인 요소들이 한때는 한계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는데, 저는 언제나, 거문고는 가장 현대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악기라고 생각해왔어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장 한국적이며 가장 미래적인 악기라고요.

멀티버스라는 개념을 음악에 녹여내는 작업이 신선한데, 멀티버스 개념에 착안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2000여 년 역사의 고대악기인 거문고를 연주하다 보니 자연히 이 악기와 전통음악의 원류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주의 원리라던가 고고학, 동양철학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문고가 타임머신 같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그러다 보면 미래에서 즐기게 될 음악은 어떤 것일까 궁금해지고 상상력이 미래로 확장되곤 합니다.

창작산실 무대에서 전통예술 장르가 처음 시작된 2017년에<거문고Space>라는 공연을 올렸던 것도 그런 저의 관심이 반영된 첫 작업이었고요. 이번 공연은 <거문고Space>가 확장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멀티버스, 양자역학 등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발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소리'로 이루어진 음악을 하는 저에겐 가슴 두근거리는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를 보고 이 공연에 대한 영감이 떠오른 계명국 프로듀서가 이 공연의 컨셉을 제안했을 때 주저없이 손을 잡았죠. 전통,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멀티버스와 관련한 거문고 공연을 함께 만들어보자고요.

조명과 영상을 사용한 연출이 눈에 띄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명과 영상을 활용하나요?

멀티버스, 즉 다양한 시공간이 투영된 음악을 시각적으로 한 무대에서 보여드려야 하는 공연의 특성상 조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음악공연과는 다른 구도로 무대를 배치하고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연결시켜 공연이 이어져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현재, 미래의 허윤정이 한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만 연출진과 무대, 조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적인 테크닉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또한 실시간 혹은 녹화된 영상으로 함께 연주하는 음악가들, 무대에서 실시간으로 변화시켜 만들어지는 거문고의 사운드 등 테크놀로지와 음악의 만남을 적극 활용하는 공연이기에 들을 거리와 볼 거리가 함께하는 공연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상상은 현실이 되었고, 현실은 또 다른 전통으로 이어지다 - 올해의신작’

김희영(사회적협동조합 놀터 이사장)

한국의 전통예술은 ‘한국 고유의 것’이라는 정의 하에 ‘고유’의 범주를 벗어나면 한국의 전통예술이 아니라는 인식에 자유로운 창작이 오래도록 쉽지 않았다.

전통예술은 일제강점기에 의도적 단절을 겪으며, 왜곡되어 ‘원형 보존’이 시급했고, ‘전통예술의 현대화’라는 말이 과제처럼 붙어 다니며, 당대에 발맞춰 가기 바빴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전통예술의 ‘창작’은 ‘보존’이 되기도 전해 원형이 변질될까 우려의 마음이 컸던 것이다.

동시대 전통예술 창작의 흐름을 제시하는 주축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전통예술계의 과제는 ‘보존과 창조적 계승’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3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창조적 계승의 과제를 함께 풀어가 주는 든든한 동반자와도 같다.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 예술인들이 좀 더 마음 편히 상상하고, 그 상상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지원과 함께 손을 잡아주는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다.

창작은 자유로운 상상에서 시작된다. 상상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전통예술 부문 선정 작품인 ‘만중삭만’ ‘물의 놀이’ ‘밤쩌: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Part. 2’ ‘남성창극 살로메’ ‘무한수렴의 멀티버스’의 창작은 시공간을 넘어 장르의 경계도 초월한 상상 이상이었다.

전통음악의 대표적 특징인 한배에 따른 형식 ‘만중삭’과 인간내면을 연결하여 ‘영산회상’ 작품을 창작한 ‘만중삭만’,

자연 ‘물’의 순환과 장단의 호흡을 알고리즘으로 연결하여, 태아가 느낄 엄마 뱃속과도 같은 편안하고 신비스럽고 경이로운 느낌 연출과 동해안 무속음악의 타악적 특징과 무용, 영상, 조명, 무대 디자인의 탄탄한 협업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극대화한 ‘물의 놀이’,

‘동해안 오구굿’의 보유자가 함께 공연하되, 전승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단체 ‘불세출’만의 주체적 편곡의 곡과 입체감 있는 무대에서 새로운 전통을 써내려가는 자주적 행보가 뚜렷한 ‘밤쩌: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Part. 2’,

1900년대 여성국극단 이후로 약50년 만에 탄생된 남성국극단은 예술사적 의미 뿐만 아니라 젠더프리의 시대성 반영과 국경을 넘나드는 창극 콘텐츠, K-음악극이라는 장르 탄생의 가능성이 보이는 ‘남성창극 살로메’,

한국의 대표적인 향악기, 거문고. 하지만 전반적 감소추세로 그 가치 확산이 시급한 시점에서 거문고 연주자 허윤정의 국경과 장르를 넘는 텔레마틱 퍼포먼스와 추상적인 영상 조명으로 다중우주를 표현한 창작진의 완벽한 협업이 돋보인 ‘무한수렴의 멀티버스’

상상력이 현실이 된 다섯 작품은 ‘전통예술의 현대화’ 정도가 아닌 전통을 품은 채 미래로 향하고 있었다. 전통예술의 멋진 미래가 상상되었다.

창작산실 공연을 접할 때마다 아쉬운 점은 일반 관객만이 아닌 예술계열 전공자나 관계자들도 많이 관람했으면 하는 점이다. 기존 예술계열 교육과정으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공연 방식이 다수이다. 창작산실의 공연관람은 콘텐츠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줄 것으로 예상되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들 작품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하되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과 호흡, 소통으로 전통예술의 멋 ‘포괄성’이 보였다. 다양하면서도 한 가지 멋을 내는 일즉다, 다즉일의 ‘한’의 개념.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는 한국의 멋이 돋보였다. 한국의 대표성을 충분히 띌만한 K-콘텐츠로 가치 있는 작품들이었다.

김 구 선생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 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 들 작품들이 세계인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K-콘텐츠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유로운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수많은 전통예술 창작 작품들이 수많은 예산과 열정을 쏟고도 일회성 공연으로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깝다. 끊임없이 상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의 동반자 ‘창작산실 올해의신작’에 기대해본다.







아르코(ARKO)의 공연예술창작산실 : ‘실험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신정혜(판소리보존회 서울중구 지부장)

매년 초 대학로는 아르코(ARKO, Arts Council Korea,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를 통과한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공연으로 흥성거린다. 올해는 <만중삭만-잊혀진 숨들의 기억>, <물의 놀이>, <남성창극 살로메>, <밤쩌: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Part.2> 그리고 <무한수렴의 멀티버스 Multiverse of Infinite Convergency> 등 전통예술 분야에서 5개 작품이 첫 선을 보였다.

라폴라예술연구소의 <만중삭만-잊혀진 숨들의 기억>은 영산회상의 장단 중 만(慢) 중(中) 삭(數) 개념을 소재로 정악의 장단을 ‘사색과 명상’으로 접근한 방법론이 돋보였다. 무대의 오브제로서의 달항아리, 고전과 현대를 융합시킨 의상,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 및 생활 소음 등을 활용한 도입부(INTRO), 전통악기와 미디어사운드의 융합 그리고 장단 없이 관·현악의 호흡만으로 만중삭을 연주한 연주자의 역량 등이 훌륭했다. ‘예술을 위한 예술’을 지향하는 라폴라(L’art Pour L’art)의 실험 정신이 느껴지는 소재와 주제가 비교적 참신하다. 이번 작품은 향후 연출, 안무 등 공연형식의 깊은 고민을 통해서 ‘명상과 사색’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작품으로 사료되며, 그 첫걸음으로 의미가 있었다.

그루브앤드(groove&)의 <물의 놀이>는 물을 형상화한 타악의 무대이다. ‘물’이라는 일상적이고 단순한 소재로 흐름과 순환의 주제를 표현하고자한 발상이 신선했다. 물방울, 냇물, 강, 바다, 심해를 끊임없이 흘러가는 서사의 시도가 소리, 무용, 영상 등 다양한 형식과 어우러졌고, 전통음악의 리듬(groove)을 통해 이런 추상적 주제를 잘 구현했다. <물의 놀이>에서 운라, 양금, 핸드팬 등 다양한 유율 타악기의 맑고 영롱한 음색, 적절한 안무, 영상 및 조명을 결합하여 물의 흐름이 주는 꿈과 몽상을 구상화시켰고, 관객들을 명상의 세계로 초대했다. 몽상이란 깨어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는 의식 상태이며, 명상의 최고 순간이다. 그루브앤드가 <물의 놀이>에서 보여준 실험정신은 우리에게 신선한 인사이트를 주었으며,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게 했다. 개인적으로는 <물의 놀이>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젊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상상력의 철학자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4~1962)의 4원소 즉 물, 불, 공기, 흙(대지)과 같은 이미지를 모두 담아내는 연작들도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김시화의 <남성창극 살로메>는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를 창극으로, 그것도 기존 인물의 인물구성을 전부 남성으로 연기한 젠더프리(gender free)의 파격적인 실험작이다. 탐미적이고 잔혹한 원작의 주제를 ‘욕망의 막장극’으로 재해석한 고선웅의 각색, 광기와 탐욕, 집착의 캐릭터 모두를 한순간에 파멸로 몰고 간 김시화의 연출은 뛰어났다. 진양조와 왈츠를 융합하고,

다양한 음계를 사용한 정은혜의 작창은 뮤지컬적 요소를 가미하여 연출의 의도를 충족시켰고, 김현섭의 그로테스크한 작곡, 특히 첼로를 이용한 음악적 연출 역시 인상적이었다. 또한 국립창극단 간판 스타들의 소리와 연기 역시 완벽했다. 너무 높은 음역대에서 노정된 어쩔 수 없는 한계마저도 '파국을 표현하기 위한 연출'로 여겨질 정도였다. 주요 등장인물 다섯 명 사이의 변태적 탐욕과 집착, 마지막 광란의 아리아 속에서 모두가 파멸하는 허망함, 속도감 있는 전개를 받쳐주는 뛰어난 음악적 연출 등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1896년 파리 초연, 1912년 도쿄 초연에 이어 일제 강점기 경성에서 1915년 초연된 오스카 와일드의 연극 살로메는 '퇴폐적 에로티시즘'의 데카당적 성격으로 당대 식민지 조선의 청년 지식인들에게 문화적으로 큰 파급력을 미쳤는데, 100여년 후 남성창극의 형식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또한 뜻깊다.

2006년 결성된 불세출(不世出)은 전통음악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 다양한 원천과 형식을 활용하여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작 음악 연주단체이다. 이번 작품은 동해안 오구굿의 기악화를 모토로 <밤쩌: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Part.2>를 선보였다. 공연의 제목 '밤쩌'는 세습무들이 동해안 오구굿을 부르는 은어인데, 밤을 새며 망자를 위로하는 굿을 뜻한다. 작년에는 동해안 별신굿을 연주자 1인 중심의 장구병창으로 새롭게 시도하며, 현 시대성을 반영한 홍성현 아트컴퍼니의 <RE:오리지널리티>가 선정되었는데, 올해는 <밤쩌>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작품은 동해안 오구굿을 오마주한 창작실험음악으로 단순한 재현과 전승을 뛰어넘고자 시도하였으나, 무녀 김동언의 굿 연행이 중심이 되어 불세출만의 음악적 개성은 다소 가려진 느낌이었다.

그러나, 굿판의 현장성과 예술성을 재현하고 오구굿의 전통적 본질을 담아내려 한 점, 동해안 오구굿을 악, 가, 무의 조화를 통해 입체적인 작품으로 녹여내고자 한 것은 고무적이었다.

허윤정의 <무한수렴(無限收斂)의 멀티버스 Multiverse of Infinite Convergency>는 거문고 명인 허윤정의 음악을 집대성한 공연인데, 악기 거문고가 갖는 원초적 힘과 그 현대적 변용의 무한한 가능성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허윤정의 거문고를 중심으로 소리, 아쟁, 첼로, 피아노, 트럼본, 콘트라베이스, 백파이프, 기타 등 다양한 악기의 뛰어난 연주자들과의 협연이 훌륭했다. 회전무대를 통한 속도감 있는 장면 전환, 움직이는 동심원의 조명 등 스태프들의 역량 역시 허윤정의 음악이 갖는 현실과 비현실의 감각적 소통을 매우 잘 뒷받침했다. 또한 모든 예술가가 각자의 우주(universe)를 가지며, 이런 개개의 우주들이 모여 다중 우주(multiverse)가 되며, 이런 다중 우주를 무한 합산하면 결국 '사랑'으로 수렴된다는 주제가 잘 구현된 공연이었다.

허윤정의 거문고는 현재와 미래, 현실과 비현실,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우주의 소리'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전통의 소리를 넘어 온갖 소리의 향연을 지휘하는 절대자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지행위로서의 예술을 주창한 페터 바이벨(Peter Weibel)은 2023.2 서울에서 열린 자신의 전시회에서 "예술은 작가의 행위이기도 하고 관객의 참여행위이기도 하다"면서 "이 행위는 단순히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에 기여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따라서 전통예술을 포함한 모든 예술 진흥의 초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어떻게 아름답고 조화롭게 제시하는가에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벌써 15년의 연륜을 가진 아르코(ARKO)의 <공연예술창작산실>은 세상을 인지하는 다양한 관점들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올해 아르코가 선정한 5개 작품 중 <만중삭만>, <물의 놀이> 및 <밤쩌>는 젊은 예술가들의 실험적인 성격이 짙었다면, 김시화의 <남성창극 살로메>는 각색을 통해 한국적 정서가 조율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의 문화적 역량이 비교적 잘 결집되었기 때문에 장기 공연의 레퍼토리로 상업적 성공까지 기대된다. 허윤정의 <무한수렴의 멀티버스> 역시 동·서양 악기 뿐 아니라 나아가 다양한 현대 악기들과의 협연을 통해 전통 악기인 거문고에 내재된 한국의 원초적 힘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대중적 보편성을 확보했다.





연극 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08	그류? 그류!	창작공동체 아르케
2008	그 샘에 고인 말	극단 코끼리만보
2008	바다 거북의 꿈	극단 골목길
2009	1동 28번지, 차숙이네	극단 놀땅
2009	경성스타	연희단 거리패
2009	미친극	극단 백수광부
2010	매기의 추억	극단 작은신화
2010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극단 이루
2010	사랑이 온다	극단 전망
2011	그리고 또 하루	극단 연우무대
2011	모든 이에게 모든 것	극단 작은신화
2011	숲 속의 잠자는 옥희	극단 백수광부
2012	그 집 여자	극단 전망
2012	봄이 사라진 계절	극단 작은신화
2012	싸움꾼들	극단 청우
2013	2인실(二人室)	극단 풍경
2013	고공정원	극단 산
2013	팬지	극단 이루
2013	헤비메탈 걸스	극단 명작옥수수밭
2014	경복궁에서 만난 빨간 여자	창작공동체 아르케
2014	공장	극단 미인
2014	그 봄, 한낮의 우울	한강아트컴퍼니
2014	그림자 아이	공연제작센터
2014	날아다니는 돌	극단 백수광부
2014	맘모스 해동	공상집단 똥딴지
2014	미국아버지	극단 이와삼
2014	색다른 이야기를 읽기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게	극단 대학로극장
2014	엄마	극단 작은신화
2014	홍준씨는 파라오다	극단 놀땅
2015	고제	극단 돌파구
2015	달빛 안갯길	한양레퍼토리
2015	떠도는 땅	극단 두
2015	방문	극단 풍경
2015	우주의 물방울	극단 피오르
2015	토일릿 피플	극단 작은신화
2015	하나코	극단 물리
2016	소나기마차	공상집단 똥딴지
2016	신인류의 백분토론	극단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2016	인어: 바다를 부른 여인	창작집단 꼴
2016	좋은 이웃	극단 수
2016	쪽마루 아틀리에	아트브릿지
2016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극단 피악
2016	툇마루가 있는 집	창작공동체 아르케
2016	하늘로 간 청춘팔	플레이그룹 잼잼
2016	혈우	극단 M.Factory
2017	고래가 산다	유목민
2017	깨비가 잃어버린 도깨비 방망이	하땅세
2017	모래시계	극단 목화
2017	'미인도' 위작 논란 이후 제 2학예실에서 벌어진 일들	극단 위대한모험
2017	선을 넘는 자들	극단 놀땅
2017	암전	극단 두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7	최서림, 야화순례기행전	극단 백수광부
2018	가미카제 아리랑	극발전소301
2018	배소고지 이야기:기억의 연못	프로덕션IDA
2018	분노 하세요!	극단 파수꾼
2018	비명자들1	고래
2018	빌미	극단 인어
2018	세기의 사나이	극단 명작옥수수밭
2018	하거도	극단 작은신화
2019	목련 아래의 디오니소스	극단 난희
2019	수정의 밤	극단 여행자
2019	체액	즉각반응
2019	터널구간	극단 그룹 動 시대
2019	마트료시카	극단 수
2019	아랫것들의 위	극단 마고
2019	대신 목자	극단 물리
2019	의자 고치는 여인	극단 물결
2020	에볼루션 오브 러브 Evolution of Love	극단 김장하는날
2020	달걀의 일	창작집단 푸른수염
2020	누란누란	극단 산수유
2020	깐느로 가는 길	극단 명작옥수수밭
2020	고역	공연연구소 탐구생활
2021	메이드 인 세운상가	극단 명작옥수수밭
2021	탈피	극단 Y
2021	신신방	극단 실한
2021	낮은 칼바람	TEAM돌
2021	콜타임	호랑이기운
2021	화로	극단 인어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22	빵야	㈜엠비제트컴퍼니
2022	노스체(NOSCE)	프로젝트집단 세사람
2022	미궁(迷宮)의 설계자	연극집단 반
2022	견고딕-걸	극단 작은방
2022	엑스트라 연대기	그린피그
2022	하얀 봄	극단 놀땅

2023 올해의신작 작품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23	언덕의 바리	프로젝트 내친김에
2023	아들에게 (부제 : 미옥 앨리스 현)	극단 미인
2023	TEDDY DADDY RUN (테디 대디 런)	마방진
2023	화전	창작공동체 아르케
2023	이상한 나라의, 사라	창작집단 상상두목

창작뮤지컬 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08	오월엔 결혼할거야 (웨딩펀드)	오디뮤지컬컴퍼니
2009	도도	학전
2009	달콤한 나의 도시	오디뮤지컬컴퍼니
2009	번지점프를 하다	㈜뮤지컬해븐
2009	왕세자 실종사건	극단 죽도록달린다
2010	넌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파파프로덕션
2010	식구를 찾아서	극단 오징어, MJ Planet
2010	콩칠팔 새삼륙	모비딕 프로덕션
2011	Trace U(그 남자의 비밀)	㈜장인엔터테인먼트
2011	Underneath Memory (언더니스 메모리)	㈜스컹크웍스
2012	내 결혼식에 와줘	공연예술제작소 비상
2012	덕혜옹주	극단 그애생각
2012	미드나잇 블루	㈜더프로액터스
2012	영웅을 기다리며	파파프로덕션
2012	완득이	㈜에이콤인터내셔날
2013	공동경비구역 JSA	CenS
2013	가야십이지곡	창작집단 기능재부
2013	곤, 더 버스커	오픈런뮤지컬컴퍼니
2013	런웨이비트	달 컴퍼니
2013	정글라이프	김선미무용단
2013	주홍글씨(A)	극단 죽도록달린다
2014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	㈜위네트웍스
2014	달빛요정과 소녀	극단 차이무
2014	바람직한 청소년	㈜이다엔터테인먼트
2014	봄날	극단 하늘하늘
2014	신과 함께 가라	뮤지컬이야기쇼
2014	아보가로	LSM Company
2014	파리넬리	에이치제이컬쳐
2014	운영(서천 꿈길, 저편)	서울오페라앙상블
2015	스페셜 딜리버리(맘2맘)	신나는 극단 하늘 나는 오징어
2015	안녕! 유에프오	LSM Company
2015	에어포트 베이비	㈜신시컴퍼니
2015	웰다잉	스페셜원컴퍼니
2016	경성특사	비무브드 컴퍼니
2016	광염소나타	아시아브릿지컨텐츠
2016	레드북	바이브 매니지먼트
2016	청춘, 18대 1	극단 죽도록달린다
2017	줄리앤폴	컬처트리
2017	찰리 찰리	㈜연우무대
2017	카라마조프	주식회사 아츠온
2018	마리 퀴리	라이브㈜
2018	재생불량소년	아웃스포큰
2018	HOPE: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알앤디웍스
2019	안데모사	공연창작소 M.A.P.
2019	봄을 그대에게	㈜컬처마인
2019	Via Air Mail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
2019	아티스 ARTIS	㈜홍컴퍼니
2020	그라피티	우리별이야기
2020	히드클리프	㈜엠비제트컴퍼니
2020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랑
2020	인사이드 윌리엄	연극열전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21	이상한 나라의 아빠	㈜다아트
2021	#해시태그	㈜바움커뮤니케이션
2021	PIP-위대한 유산	파파프로덕션
2022	청춘소음	시작프로덕션㈜
2022	앨리스	섬으로 간 나비
2022	다이스	(주)컬처마인
2022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컴퍼니 일상,적

2023 올해의신작 작품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23	내 친구 워렌버핏	(주)컬쳐홀릭
2023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	공연제작소 작작
2023	여기, 피화당	주식회사 홍컴퍼니
2023	이솝이야기	주식회사 컴인컴퍼니

무용 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1	2040년의 하루	SEO발레단
2011	대답없는 외침	김경영
2011	비애모	김용걸댄스씨어터
2011	<발레-판소리> "발레가 발레를 추다.."	백영태
2012	Once Upon A Time In 발레	와이즈발레단
2012	Untitled	정형일 Ballet Creative
2012	천개의 기억	백연옥
2012	회향	글로벌 컨템포러리 발레단
2013	5번째 Birthday Party 抛球 ROCK(포구락)	프로젝트 수(手) & 안팍 Ann-Park
2013	Fake Diamond	Collective A
2013	스코틀랜드의꽃	이원국발레단
2013	I'm so tired	예효승
2013	VANITY(무상)	LEE발레단
2013	관(關)_처용을 주제로 한 다섯 개의 아포리즘	강미리할무용단
2013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롤)	조윤라발레단
2013	파랑새	문영철발레뽀에마
2013	푸너리 1.5	장유경무용단
2013	행,간(between the lines)	리케이댄스
2014	RAGE	(사)서울발레시어터
2014	FATAL	Company J
2014	계보학적 탐구	(사)트러스트무용단
2014	눈	댄스씨어터 창
2014	백 개의 머리를 가진 여인	김경영
2014	시저데일 서전트	박나훈무용단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4	심청	이경옥무용단
2014	안녕	김설진
2014	천	김선미무용단
2014	2015	미나유(유정옥)
2014	Smile Mask Syndrome	이정연댄스프로젝트
2015	THE DOOR (La Danaide)	오!최진수발레단
2015	거울속의 거울	마홀라 컴퍼니
2015	길 떠나는 가족	최소빈
2015	뉴턴의 3법칙	안수영컴퍼니
2016	소무	Art Project BORA
2016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M발레단
2016	화火, 화和 - 바람을 만나다	정신혜무용단
2016	공상 물리적 춤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시어터
2017	귀신(I)고래	윤수미무용단
2017	당신의 바닥	PDPC
2017	시집가는 날	(사)서울발레시어터
2018	옛날옛적에	고블린파티
2018	음형공간(音.形空間) - Atopos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2018	인간	신현지
2019	침묵	나인티나인 아트 컴퍼니
2019	"The Chaos" 혼돈	최상철현대무용단
2019	Baroque goes to Present	와이즈발레단
2019	Perfect death	Ground Zero Project
2020	가상 리스트, Virtual List	원댄스프로젝트그룹
2020	가족놀이	PDPC
2020	물속 골리앗	김범호
2020	美 A (미아)	휴먼 스탕스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7	인생의 사계를 그리는 춤 -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김남식&댄스루룹-다(Da)
2017	Down the rabbit hole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
2018	Hidden Dimension	UBIN Dance
2018	NUTCRUSHER	허성임
2018	개미	프로젝트 클라우드 나인
2018	댕기풀이	이경옥 무용단
2018	매스?게임!	장은정무용단
2018	변신	류장현과 친구들
2018	소극적 적극	고블린파티
2018	평행교차	안애순
2019	오월바람	오월바람
2019	호모파베르	호모 파베르
2019	군림	Soo d Art & Co
2019	新청 랩소디	라만무용단
2019	Body Rock	미나유
2019	Swan Lake: The wall	정형일 Ballet Creative
2019	Hit & Run	시나브로 가슴에
2020	평안하게 하라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
2020	BLACK	노네임소수
2020	플라스틱 버드	최지연 무브먼트
2020	호모 모빌리쿠스	김남식&댄스루룹-다(Da)
2020	고요한 순환	무용단Altimeets
2020	그런데 사과는 왜 까먹었습니까?	YJK댄스프로젝트
2020	두 개의 혀 - A Double Tongue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
2020	돌	휴먼 스탕스
2021	모빌리티	멜랑콜리댄스컴퍼니
2021	굿(Exorcism)_사도	댄스씨어터 창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21	28조론	초록소
2021	조동	김성훈 댄스프로젝트
2021	Senseless violence(부제: 이해할 수 없는 폭력)	유장일발레단
2021	윤회매십전	윤회매십전
2022	> “hello world” ;	댑댄스프로젝트
2022	Recall: 불러오기	화이트큐브 프로젝트
2022	On the Rock	모든 컴퍼니
2022	태양	시나브로 가슴에
2022	클라라 슈만	(사)서울발레시어터
2022	WHITE	노네임소수
2022	더로드(The Road)	미나유(유정옥)

2023 올해의신작 작품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23	애니멀	PDPC
2023	Yaras	정훈목 JUMOK Dance Theater
2023	a Dark room	정형일 Ballet Creative
2023	반가: 만인의 사유지(思惟地)	순헌무용단
2023	Where is the Rabbit?	허 프로젝트

음악 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22	김재훈의 P.N.O	김재훈컴퍼니
2022	창작 실내악 음악극 붕(鵬)새의 꿈	하늬바람

2023 올해의신작 작품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23	민요 첼로 (MINYO CELLO)	임이환
2023	시선 si, Sonne!	주준영
2023	크로스 콘체르토 프로젝트	오예승
2023	UN/Readable Sound	가재발(이진원)
2023	In & Around C	무지카 엑스 마키나(Musica ex Machina)

창작오페라 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0	도시연가	대구오페라하우스
2010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강동아트센터
2011	나는 이중섭이다	코리안챔버오페라단
2011	천 년의 사랑	창음예술
2012	쉰 살의 남자	부평아트센터
2012	아리 아리랑	한오페라단
2013	루갈라	호남오페라단
2016	붉은 자화상	서울오페라앙상블
2017	1953	오페라앙상블C
2018	검은 리코더	(사)라벨라오페라단
2018	인형의 신전	영산오페라단
2019	김부장의 죽음 (원제:이반 일리치의 죽음)	오페라뱅크
2019	까마귀 (원제:내가 까마귀였을 때)	라벨라오페라단
2020	뱀이 심장을 먹었어	김앤리프로덕션
2021	장총	서울오페라앙상블
2022	피가로의 이혼	그랜드오페라단
2022	피싱	(사)글로벌아트오페라단
2022	양철지붕	오페라팩토리
2022	사막 속의 흰개미	현대성악앙상블

2023 올해의신작 작품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23	3과 2분의 1 A	울산문수오페라단
2023	이상의 날개	대전오페라단

전통예술 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6	거문고 스페이스	허윤정
2016	해미오와 금이에	해금연구회
2017	아리랑, 삶의 노래-흘어진 사람들2	사단법인 정가악회
2017	오셀로와 이아고	천하제일탈공작소
2017	완창판소리프로젝트1	이향하
2018	"생사의" - 죽음에 관한 삶의 음악	왓와이아트
2018	도공지몽-잊혀지고 있는 우리의 악기 "훈"의 재발견	송경근
2018	창극 <내 이름은 사방지>	송경근
2019	삼대의 판	천하제일탈공작소
2019	완창판소리프로젝트2_강산제 수궁가	입과손스튜디오
2019	8음(八音)	음악그룹 나무
2019	오래된 미래 : 내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이야기	해금플러스
2020	新 심방곡	신노이
2020	새판소리 <마당을 나온 암탉>	지기학
2020	울릴 굉 轟	임용주
2021	정가악회 콘서트 <탈춤은 탈춤>	사단법인 정가악회
2021	TIMER	연희앙상블 비단
2021	꼭두각시	음악동인고물
2022	RE: 오리지널리티	홍성현아트컴퍼니
2022	판소리 스토리 - 모파상 篇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
2022	절 대목(大木)	연희공방 음마갱깽
2022	태고의 소리, 흙의 울림, 혼과 율기	공간서리서리

2023 올해의신작 작품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23	만중삭만 - 잊혀진 숨들의 기억	라폴라예술연구소
2023	물의 놀이	groove&
2023	남성창극 살로메	김시화
2023	밤쩌: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Part. 2	볼세출
2023	무한수렴(無限收斂)의 멀티버스 -Multiverse of Infinite Convergence-	허윤정

2023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정병국

사무처장 | 송시경

예술극장장 | 강량원

극장운영팀

팀장 | 홍승욱

창작산실 기획·운영 | 박성은, 김은옥, 박현정, 심정훈, 두송희

대관 | 송윤정, 류정숙, 임나래, 최예솔

제작·기획 | 오선명, 이효정, 이유진

홍보 | 황금실

고객지원센터 | 신지혜

하우스 | 변고은, 이경민, 황수희, 박유진, 김태연

티켓 | 이주담, 김지수(A), 이은혜, 김지수(B)

시설 | 이기복, 박성국, 박동진, 윤지환, 유호성, 진호택

무대예술팀

팀장 | 진용남

무대팀 | 유창대, 이동선, 신동환, 박민호, 김인성, 서지훈, 김혜지, 이동현, 원소미, 이미현

조명팀 | 이주환, 곽현주, 탁형선, 김병구, 이명한, 박선임, 박헌수

음향팀 | 도명호, 김경남, 허선영, 김종현, 남영모, 정하윤

협력사

홍보운영총괄 | ㈜아이디어랩

홍보영상제작 | 윈윈픽쳐스

공연영상제작 | 푸른잎커뮤니케이션

공연사진 | 유경오, 옥상훈, 하지영

키비주얼 | 디자인스튜디오 파이카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2024.01–2024.03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국립극장
충무아트홀
대학로 플러스씨어터
종로 아이들극장
플랫폼엘
CKL스테이지
THILA Ground